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3호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깨달음 논쟁, 종단 차원서 논의하자"

현응 · 수불 스님 촉발 논쟁
'종단서 논의' 목소리 높아

초점 벗어난 교리 논쟁 안돼
韓 불교 정체성 논의가 필요
"무엇이 지혜와 자비의 완성 이르는 길인지 의견 나눠야"
학계 관심도 지속적으로 고조

새해 벽두부터 불거진 '깨달음은 무엇인가' 논쟁이 한 달여 가 지난 현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논쟁이 종단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불교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깨달음 논쟁'이 종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다. 〈기고문 전문 27면〉

법응 스님은 기고문을 통해 논쟁을 처음 제기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공식적 반론을 내놓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공식적인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응 스님은 "법을 논하는 자리보다 더 자비롭고 자색광명이 방광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조계종 총무원이나 교육원이 주최하고 여러 기관 · 단체의 협찬 속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서 토론이 이뤄진다면 여법성이 구족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시간을 끌거나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응 · 수불 스님에게도 "매순간 삶의 고통이 연속인 우리 사회와, 크나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불교 전반에 무엇이 지혜와 자비의 완성에 이르는 길인지, 걸출한 두 스님이 대좌해서 대중들의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깨달음 논쟁'이 종단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높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현응 · 수불 스님의 개인 대 개인 논쟁은 무의하다. 종단 차원에서 한국불교 법성의 정통성 ·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스님의 논쟁에 여러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본래 논의 초점에서 다른 교리 논쟁으로 곁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깨달음 무엇인지, 깨달음은 이해인지 증득인지 확실한 토론 주제와 목표를 정하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가 수행자는 수행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실제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는 "만약 어느 단체가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도 토론이 학술적 측면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오는 2월 22일 동안거 해제 후 수좌 스님들이 본격적인 논쟁에 참여해 종단적인 공론의 장이 펼쳐졌으면 한다. 진정한 수행자들이 이야기하는 깨달음을 사부대중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 등 종단과는 별개로 불교 지식인들도 '깨달음 논쟁'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장을 준비 중이다. 올해 성도재일을 맞아 지난 1월 15일 관련 논쟁 세미나를 제일 처음 열었던 정의평화불교연대는 2월 중순부터 회의를 거쳐 2차 세미나 준비에 들어간다. 발제자와 토론자 선정과 원고 청탁의 절차를 진행 후 3월 중순 경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계 유일 학술계간지인 〈불교평론〉도 올해 여름호의 특집으로 '깨달음'에 대해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정평불 대표 · 불교평론 편집위원장)는 "깨달음은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화두를 던진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현응 스님과 수불 스님이 나서서 깨달음의 논쟁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지식인들도 토론회와 연구 논문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통함 잊고 고국으로 돌아오소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월 30일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 죠세이탄광 추모비 앞에서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과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등 한국불교계 대표들과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죠세이탄광의 흔적인 피아(배기구)가 보이는 해변에서 헌화의식을 진행하고 추모광장으로 이동해 추모재를 개최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한국불교계가 수몰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 노덕현 기자 · 사진=금강신문 제공

"희망 주는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세요"

본지 창간독자 2000만원 기부
연재 읽으며 발심해 보시 결심
군대·교도소 등 법보시 사용키로
"더 열심히 佛法 전하겠습니다"



포항교도소 재소자 독자가 보낸 감사편지.

"현대불교신문사지요? 전 20여 년동안 신문 구독한 창간 독자인데요. 신문사 계좌로 2000만원 보냅니다. 요즘 신문 포교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힘내시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 주는 부처님 가르침 많이 전하세요."

1월 초 본지 독자관리부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힌 한 독자님 이었습니다. 이름 밝히길 한사코 꺼려한 독자님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글들을 읽으며 다시금 초발심이 생겨나 남편과 상의 끝에 신문사 발전을 위해 보시를 결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불교 언론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 달라. 구독자인 남편이름으로 계좌 이체했으니 확인해보라"고 용건만 전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뜻밖의 전화에 구독관리부 담당자는 보시 연유를 전화로 재차 물었지만 독자님은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부부는 그동안 본지가 펼친 법보시 운동에도 수차례나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본지 임원진은 기부자가 거주하는 부산으로 직접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소소하게 마음 냈을 뿐 일체 알리고 싶지 않다. 특히 남편이 무주상보시라는 원칙을 갖고 기부한 뜻을 존중해 달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의견을 존중키로 한 본지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기부금 용도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부금을 올 1년 동안 교도소와 군부대 등 사회의 그늘진 곳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부자들은 원치 않았지만, 이 훈훈한 소식을 알 권리가 있는 독자님들과 공유키로 했습니다. 그래야 본지 임직원들의 책임감이 더욱 커질 것이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새해 벽두 더욱 굳게 다짐합니다. 정론직필에 앞장서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비심이 충만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고귀한 뜻 잘 받들어 신문불사에 진력하겠습니다.

창간 이후 본지는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사회의 손길이 덜 미치고 부처님 법음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합니다. 특히 전국 교도소에 보내는 법보시의 경우 많은 감사 편지가 답지합니다.

최근 포항교도소 재소자인 한 불자는 "수용생활 중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불교를 처음 알게 됐고, 발심해 현재는 매일 독경과 기도정진을 통해 지은 죄를 참회중이다. 법보시를 보내준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정성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부 선행으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에게 법보시 혜택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주일 취재부장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 추진한다

3일 기자회견서 공식 주장
"군사정권 강제 수용"이유

"최근 매각된 한전부지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청사를 명분으로 강제수용한 땅이기에 봉은사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조계종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옛 한전부지의 환수에 나선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효력 없이 강제 수용된 한전 부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9월 10조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의 한전 부지는 본래 봉은사가 갖고 있었으나, 1970년 당시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매입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토지 거래 당시 상공부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총무원을 압박했다"며 "거래 대상이 봉은사가 돼야 함에도 봉은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엉뚱하게 총무원으로부터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인무효소송을 통해 당시 계약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특히 "수용 당시 상공부가 지정하는 포철, 한전, 광업진흥공사 등 10개 회사가 입주하는 정부청사 용도 명목이었지만 이후 한전만이 이전하고 개인에게 모두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봉은사는 이미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된 2007년 수의매각을 요청했으나 한전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종단과 2015년부터 관련 자료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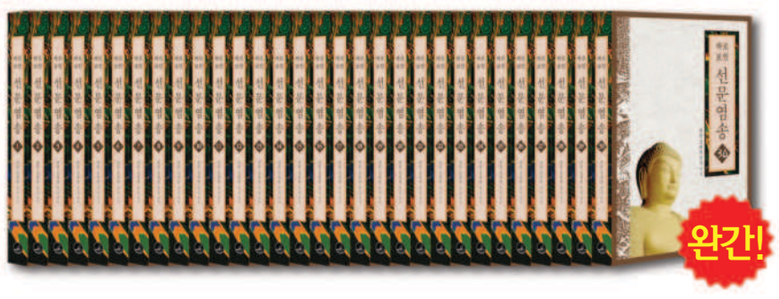
환수위 대변인 김봉석 변호사는 "당시 계약상 봉은사가 매도인이었어야 함에도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문제가 있다. 봉은사가 개별사찰이었기에 원인무효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목각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대 신임 이사 선출
지원·정념·법산·세영 스님

2월 3일 이사회서… 3월 중앙종회서 추인

동국대 신임 이사에 조계종 호계원장 지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이사들의 선출로 정수 13명이 채워졌으며, 향후 임원 사퇴 결의가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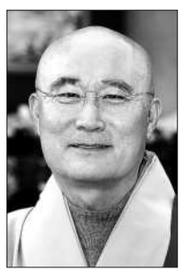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성타)는 2월 3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99차 회의를 열고 공석 중인 이사 4명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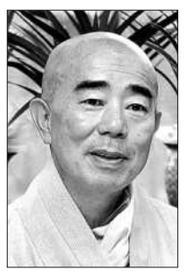
이사회는 명신 스님 후임으로 법산 스님을, 삼보 스님 후임으로 정념 스님을, 지홍 스님 후임으로 지원 스님을, 수불 스님 후임으로 호법부장 세영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사 명신·삼보·지홍 스님과 이사 선임 전 사퇴했던 수불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 법산·정도 스님과 정념·원명 스님, 지원·정념 스님 (흥천사 주지), 세영·성무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르면 종관위는 임원 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동국대에 복수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월 26일 열린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결원 이사 선출이 3일 이사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후 선출 이사를 대상으로 중앙종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종법에서 동국대 이사에 대한 추인 등과 같은 조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 스님


정념 스님


법산 스님


세영 스님

한편 이날 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우봉 스님과 김선근·김기유 이사를 추천했다. 또 동국대 총예산을 기존 6420억원에서 240억 늘어난 6660억원으로 확대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전원 이상無

중앙선관위는 2월 4일 열린 제311차 회의에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직선직 쌍계사 2명, 직능대표 2명, 비구니대표 1명 등 총 5명의 스님의 후보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쌍계사 직선직은 전 주지 성조 스님과 전 중앙종회의원 이암 스님이 입후보 했으며, 2명 선출에 2명이 등록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될 예정이다.

직능대표(교육)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 스님이 입후보 했으며, 직능대표(강원)에는 송광사 일화 스님이 등록했다. 또 비구니대표로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직능대표와 비구니대표는 2월 22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노덕현 기자

제주 관음사 주지 현 직무대행 허운 스님

관음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호)는 3월 2일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관음사선관위는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를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중앙선관위가 후보로 등록한 허운 스님에 대해 경력 부족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허운 스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자격있음으로 재판정했으며 선거가 재개되게 됐다.

단독후보인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운 스님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덕현 기자

미완의 '1983년 개혁' 재조명 된다

비상종단개혁종책연구모임 결성, 올해 세미나 등 개최

1983년 조계종에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본사 주지 임명을 두고 스님들 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10·27 법난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기, 불자대중들은 조계종에 대한 분노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1983년 9월 조계사 승려대회 후 소장 스님들과 청년재가운동가들은 종정 성철 스님의 교시를 받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비상종단을 구성한다. 이른바 83년 종단비상조치다. 당시 비상종단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파격적인 여러 종책을 입안한다. 본사의 폐지 및 도심지 교구 신설, 상·하원 입법기관 구성 및 재가자 입회, 사찰재산관리 공영화, 재가 전법사 제도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 승단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이내 좌초되고 만다.

1983년 비상종단 사태 후 33년 뒤인 2016년, 당시 비상종단 개혁을 이끈 소장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이 때의 개혁안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나섰다. 비상종단개혁종책연구모임이 그것이다.

비상종단개혁종책연구모임(회장 이희선, 이하 개혁연구모임)은 2월 2일 서울 조계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종책 재조명사업에 대한 의미와 계획에 대해 밝혔다.

개혁연구모임은 당시 비상종단운영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조계종 종회의장 성문 스님을 고문으로 이희선 회장 등 재야 학자들로 구성됐다.

이희선 회장은 "비상종단 1년간의 활동은 결국 미완의 개혁이 됐지만 현재와 94년 개혁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현재에도 유의미한 종책이 많은 만큼 재조명을 통해 불교 쇄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임 취지를 설명하는 조계종 종회의장 성문 스님(사진 왼쪽)과 이희선 개혁연구모임 회장.

종회의장 성문 스님 고문으로
당시 재가학자 등 10여명 참여
2월 25일 세미나 및 자료 발간

이날 자리에는 당시 소장 스님들 대표했던 성문 스님이 연구모임 고문으로 함께 자리해 당시 활동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의미를 털어놨다.

성문 스님은 "10·27법난 이후 젊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인식 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기였다. 그러던 와중 신흥사 사건이 터지자 이들이 단식농성 등으로 집행부를 물러나게 하고 비상종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당시 전법사 제도를 두어 스님을 보좌하는가 하면 시대 흐름에 맞춰 불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선보였다. 이때 입안한 여러 종책이 정착됐다면 현재 한국불교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종단 측은 1984년 제1기 전법사 품수식을 열어 80여 명이 품수를 받았다. 이런 전법사 제도는 현재 포교사 제도의 전신이 됐다. 전법사 제도와 함께 현 종회 역할을 대신한 교정회의에도 재가불자 배정을 추진했다. 시민단체가 종회의 재가불자 배정 등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1984년 7월 15일 비상종단이 진행한 전법사 품수식 모습

본말사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와 직할시도에 교무원을 설치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집권식 종무행정을 도입하고 각 사찰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찰 재산관리기구를 신설하여 사찰 재정 안정화를 꾀한 것도 특징이었다. 이런 개혁도 채 1년만에 좌초된다. 급진적인 변화에 원로·중진 스님들이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교시를 내리는 등 비상종단을 지지했던 성철 스님도 개혁안 발표 후 이를 거부했고, 곧이어 전국승려자 대표회의에서 녹원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다시 선출하며 비상종단 체제는 막을 내린다.

성문 스님은 "짧게 끝난 개혁 움직임이었지만 이후 불교 개혁의 청사진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로소 이제야 처음으로 조명하게 됐다"며 "개혁은 대중들와 함께 해야 이뤄진다. 그렇게 본다면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연구모임은 지난해 11월 12일 성문 스님과 법타 스님, 이용부 당시 문광부 종무실장,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 정승석 불교학술원장, 장범중, 김영국 씨 등과 함께 좌담회를 갖고 재조명 운동에 뜻을 모았다.

현재 비상종단 관련 스님 및 재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정승석 교수가 '비상종단의 진행경과 및 성과와 한계', 박부영 불교신문 기자가 '비상종단의 개혁과 94년 개혁의 비교검토'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관한 자료집도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설립된다

조계종·문화재청 추진… 2018년 최종 완공

조계종이 불교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 조계종과 협의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교유산 소장자 중심의 보존센터 건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존센터는 국고지원으로 140억원, 조계종에서 60억원을 부담해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 복원, 연구를 담당한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기본설계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불교계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찰성보 약 10만 7000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보와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가 1490점이며 나머지 98.6%에 달하는 10만 5950점이 비지정문화재이다.

2018년 완공예정인 보존센터는 목조, 석조 금동 등 불상과 불화 등 지류의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더불어 보존환경 개선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복원, 사찰에 맞게 보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불교문화재 보존처리 업체에 공간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

3월 29일~4월 6일 범어사

조계종의 정식 스님을 배출하는 구족계 수계산림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8박 9일동안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제36회를 맞는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의 수계대상은 2012년 3월까지 사미계 또는 식차마나니계를 수지한 사미·식차마나니로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4일까지이며,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大韓佛教禪教宗 宗正 瑞海堂 慧宗 大宗師의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및 追慕齋(49齋) 案內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월 27일 입적하신 대한불교선교종 종정 서해당 혜종 대종사의 영결식을 1월 30일 종단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49재 안내

초재 : 2월 2일	5재 : 3월 1일
2재 : 2월 9일	6재 : 3월 8일
3재 : 2월 16일	막재 : 3월 13일(일요일)
4재 : 2월 23일	• 장소 : 덕성사 큰법당

불기 2560년 2월 2일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도인
대한불교선교종 화엄문도회 일동 합장

유일 영문 불교학술지 동국대서 발간한다

동국대·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2일 'IJBTC' 이관식

국내 유일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의 발행처가 동국대로 이관돼 발간된다. 지금까지는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편찬해 왔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2월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IJBTC〉 이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관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송석구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장과 불교대학 및 불교학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2년 창립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영문 불교학술지를 육성하기 위해 〈IJBTC〉를 매년 2회씩 발간해왔다. 2002년 2월 창간된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로 현재까지 25집이 발간됐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적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게재 논문은 237편이며, 이 중 해외 학자 비중은 52%에 달한다. 편집진의 이력도 화려하다. 대륙별 부회장으로 로버트 버스웰(미국 버클리대 교수), 카렌 워너(영국 런던대 교수), S.R. 바트(인도 델리대 교수), 권기종(동국대 교수)가 참여하며,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수석 부회장과 편집장을 맡았다.

매회 300부를 발행해 해외 학술기관과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며, 하버드대, 예일대, 콜럼비아대 등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학회 창립
영문 불교학술지 'IJBTC' 선보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25집 발간

재정 안정화·전문 편집인 양성위해
동국대로 발행처 이관 '통큰 결정'
보광 스님 "국제적 학술지 만들 것"

그간 〈IJBTC〉의 편집장으로 활동한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IJBTC〉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세계 불교학자와의 교류, 그리고 불교학 학제 간 연구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실제 제2집에 국제원효학회와의 협조로 게재된 12편의 원효 관련 영문 논문은 구미 각국에서 한국불교학 강의 교재로 사용중"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동국대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2월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IJBTC〉 이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송석구 학회장(가운데)이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발행 학술지 〈IJBTC〉의 발행처를 동국대로 이관한 것은 재정 안정화와 함께 전문 편집인 양성, 정기적인 국제 학술대회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국제적 명성의 영문 학술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기관과 풍부한 인력 인프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송석구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장은 "동국대는 불교학의 본산이다. 이제는 〈IJBTC〉를 동국대에서 맡아 세계적인 학술지로 성장시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송석구 학회장과 김용표 교수가 10여 년간을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행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많은 애착이 있었을 텐데 큰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면서 "불교학술원과 불교대학 등도 〈IJBTC〉에 대한 관심이 높다. 〈IJBTC〉를 A&HCI 등재하는 등 국제적 명성의 유수의 영문 불교 학술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석구 학회장은 이관식에서 불교학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총장 보광 스님은 그간 〈IJBTC〉 발행의 노고를 치하해 송석구 학회장과 김용표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는 조계종 브랜드 이미지 UP의 해로"

조계종 불교사회硏, 신년계획 밝혀



[종책연구] 인사·재정 문제 연구
[사회연구] 헬조선 치유방법 모색
[호국불교] 호국의승의날 제정 추진

조계종이 2016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월 1일 서울 인사동 선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소장 법안 스님〈사진〉은 총 29개 사업 중 특히 조계종 브랜드 이미지 사업에 진력할 것임을 밝혔다.

법안 스님은 "국민들에게 불교라 하면 그동안 수행, 명상 등의 좋은 이미지도 있었지만 자리다툼, 폭력 등의 부정적 이미지도 많았다"며 "불교가 역사 속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고 불법공동체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미지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사회연구소는 5월 중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연구 보고서를 11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의 세부연구 내역으로는 이미지 진단 및 평가, 이미지 전력평가, 대국민 이미지 조사, 이미지 전략 및 리모델링 연구 등이 담겨 종단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미지 조사와 함께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던 인사 및 재정 투명화에 대한 종책연구도 진행된다.

먼저 사찰 재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교구단위 중장기 재정운영정책을 검토하고 비자립사찰 추이분석 등 불교계 재정 현황 및 환경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종단 소임현황을 분석하고 직위별 직무자격 요건을 검토해 바람직한 인사제도를 제안한다.

법안 스님은 "불교계 내에서도 사찰별 재정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신교 중 감리교회의 경우 최근 재정이 열악한 교회의 목회자 외부 직책 겸임이 허가 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상황은 아니기에 이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불교행사의 과정을 정리한 의전편람 연구보고서(2월) 및 수행체계 연구보고서(3월), 교구활성화 연구보고서(4월) 등도 발간한다. 또 사회변화에 맞춘 불자들의 활동의 표준 지침인 '불교와 사회' 교재 발간도 8월 진행되며 종교공동체 세미나도 7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된다. 또 소외계층와 사회 변화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다룬 보고서도 다수 발간된다. 먼저 2월 중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며 3월에는 불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4월에는 교과서 개정에 맞춰 윤리와 역사, 사회교과서 집필진에 참고매뉴얼을 펴내 제공할 계획이며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온다.

8월에는 한국 계층 갈등의 핵심인 부의 재분배와 헬조선 현상을 다룬다. 법안 스님은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계층간 삶의 질이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 중에는 비정규직 문제 및 청년 실업에 대한 연구, 10월에는 선진국 진입의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국민행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올해 호국불교 사업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계 3·1운동 관련 인사의 활동내역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10월 중에는 보현사 서산대사 남북합동 제향을 추진하며, 11월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금산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려시대 승려 법맥도를 발간하는가 하면 '조선시대 불교와 국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유산, 3D 데이터로 만나보세요

문화재청, 2월 1일부터 3D 데이터 121점 제공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광 도갑사 해탈문 등 불교 문화유산을 3D 데이터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정보문화원(원장 김소연)과 문화유산 89건 121점에 대한 3차원(3D)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서비스되는 자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원천 데이터(ASC파일, PLY파일)는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www.alright.or.kr)을 통해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점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사용범위에 따라 산정된다.

하지만, 동영상·PDF·ICF·도면 등 서비스용 데이터는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원형정보의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복원·보수 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출판·영상 분야 등에 공공저작물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문화유산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 등이 적용됐으며, 앞으로 문화재 수리·복원, 구조 설계분야는 물론, 전통문화상품 개발, 전시용 복제품 제작, 입체영상 구현 기술(S3D) 콘텐츠 제작 등 문화산업, 정보통신(IT)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작한 21건 46점의 데이터베이스는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서비스된다.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유산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문화재 원형의 온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록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 공유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무료로 제공되는 수덕사 대웅전 일원의 3D 스캐닝 촬영 영상.

대중공사 100인 위원 공개모집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지난해에 이어 진행하는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가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는 1월 25일 공고를 통해 100인 대중공사 위원 동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사부대중이 주체가 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대중공의를 수렴하고 평등하고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대중공사는 중앙과 지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3월 31일과 5월 26일, 7월 14일, 10월 20일, 11월 24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다. 지역 100인 대중공사는 권역별로 교구본사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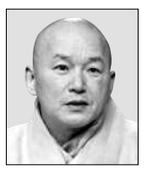
의제는 대중공사를 통해 중점의제 2개(단기과제, 근본과제)와 현안 의제를 선정한다. 특히 중점의제의 경우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상시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 모집은 교구본사 추천 신청과 함께 출재가 각 영역을 대표하는 부문별 추천 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여기에 자발적인 동참 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동참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주택가 도로 접, 정남향 과천토지 매각!
GB정책, 용도지역제에서 개발행위허가제로 / 국토부, 과천 그린벨트 풀어 임대주택(뉴스데이) 5700세대 건설 확정!
수도권 규제 더 푼다!
국토부,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주민실태조사 실시중!
재산권 행사 허용 (개발행위 허가) 등 규제 개선으로 지역개발 탄력 받을듯...
과천시, 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규제완화 최대 수혜 예상지-과천"
3.3㎡당 35만원부터~
관악산
과천시내
2016년 투자유망 부동산-그린벨트 내 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는 서울 인접한 과천·남양주 등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높은 도시지역 토지 관심
2015년 12월 18일자 한국경제 기사
"그린벨트, 주민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
●국토부, 주민 실태조사 중으로 개선안 마련계획 (2015-05-21 한국경제)
●30만㎡이하 해제 권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장에게 이관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7곳 해제, 12곳 용역 검토중)
돈이 되는 대박투자 - 숨어있는 도심지 토지!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IC 인근)
■ 매각지 진입로 사기막골 타운하우스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과천, 그린벨트 규제 대거 풀린다~
과천시, 핵심전략 1순위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과천~양재간 지하철 연결 추진중...
과천·주암동에 57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발표
3.3㎡당 35만원부터~
(매각단위 : 330㎡)
※인접 토지, 3.3㎡당 1,500~3,000만원
시세가 형성중 (공시지가 : 700~800만원)
■100만원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등기이전)
▶청약금→ 필지배정 → 계약금→ 잔금납입→ 소유권 등기이전
청약신청 일요일 공휴일 상담
02)2058-0132

일 주 문



보월 · 도암 대종사 다례재

현조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1월 31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보월 · 도암 대종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신흥사 장학증서 수여식

우송 속초 신흥사 주지 스님은 2월 3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2016년 상반기 신흥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봉행했다.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2월 23일 부안 개암사 및 고창 문수사에서 '정월대보름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설 합동 다례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2월 8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2016년 설 합동 다례'를 봉행했다.



정각회 2월 정기법회

강창일 국회정각회장은 2월 3일 국회의사당 본청 정각선원에서 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화촉 조용주 금강신문 기자는 오는 2월 27일 낮 12시 40분 광주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샤넬홀에서 신부 기하나 씨와 화촉을 밝힌다.

"죽기 전 딸 얼굴 보는 것이 소원"

생명나눔 2월 치료비 지원 환자 김판석 씨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2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김판석(가명 · 72) 씨를 선정했다. 김 씨는 7년 전 혈액 투석을 시작했지만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 염증이 심해졌고, 결국 괴사가 진행됐다. 이에 최근 발목아래를 모두 절단해야 했지만, 1000만원이 넘는 의족은 구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김 씨에게는 어린 딸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다. 젊은 시절 운영하던 식당에 화재가 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 씨는 수감생활을 했다. 그동안 가세(家勢)가 기울자 여동생은 김 씨의 딸 3명을 고아원에 맡겼고, 딸들은 모두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김 씨는 "죽기 전 딸들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나눔 측은 "환자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환자가 다시 일어나 자식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02)734-805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창회 화합 · 학교발전 기여할 터"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 2월 4일, 신년계획 밝혀



화해 · 협력 · 단합 기조 삼아
지역동창회와 협력체계 구축
중단된 장학사업도 펼칠 계획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가 학교발전에 대한 동문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앞장선다.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2월 4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총동창회 운영 기조를 밝혔다.

전 회장은 이날 "화해와 협력, 단합의 정신을 기조로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려 한다"며 "능력 있는 동문을 발굴하고, 동창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합된 분위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동문들의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는 결국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재정확보와 장학사업, 후배들의 취업에 동문들이 함께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올 한 해 △뿌리 찾기 및 자긍심 고취 △조직 재정비 및 네트워크 강화 △재정 자립기반 확충 △장학사업 및 후배 취업 알선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이들 사업 중 동문들의 화합과 동창회 참여의 요인인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동문회는 뿌리 찾기 사업으로 초대 동창회장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대정신'에 대한 재조명을 진행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해당지자체가 진행하는 선양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만해마을에서 동문템플스테이와 동문명사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동창회를 모토로 동문 발굴에도 앞장선다. 총동창회 집행부가 지방을 찾아다니며 지역동창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월 중에는 미주동창회 방문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현재 중단된 장학회를 정상화하는 데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 회장은 "장학사업은 총동창회의 핵심사업 중 하나지만 이연택 장학회 이사장 이후 표류하고 있다"며 "지난해 빚어진 갈등 양상에서 많은 후배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면목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장학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또 모교와의 협력관계도 새롭게 모색된다. 전 회장은 "지난해 이사진 총사퇴 결의 후 가시적인 실행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재구성 등을 요청한다"며 "특히 이사회에도 동문사회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재가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오래 전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으로는 현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과감히 투자지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히 개방이사를 적극 활용해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될 동문인사를 이사로 모셨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전 회장은 "학교 측이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학교발전위원회 발족과 이에 대한 동문들의 참여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회장은 "금년 한 해를 총동창회의 변혁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열어나가겠다"며 "동국대 동문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열심히 일꾼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성 스님, 홍은동 소외계층에 온정

쌀 20kg 100포대 전달해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서울 도선사 조실 · 현성정사 주지)은 2월 3일 서울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 현성정사 선우신도회와 함께 '사랑의 쌀' 20kg 100포대를 관내 독거어르신과 실향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현성 스님은 "기록적인 한파로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쌀을 들고 나왔다"며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쌀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성 스님은 매년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관내 소외계층과 군부대, 교도소 등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복지재단, 설맞이 떡국떡 나눔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등 150가구에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홍파)은 병신년 설날을 앞두고 2월 3일 서울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

재단이사장 홍파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뜻깊은 명절을 맞아 떡국을 드시면서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종복지재단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아동 의료지원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사랑의 김장(떡국 떡) 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정여 스님,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목적 쾌척



(사)세상을향기롭게 대표 정여 스님이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정여 스님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재)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자승) 측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종단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학교건립을 추진 중이란 소식을 들었다"며 "학교 짓는 일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참키로 마음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원명 스님, 서울청 경승실장 위촉

1월 29일 청장실서 위촉식 가져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1월 29일 서울시지방경찰청장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원명 스님은 "경찰 불자들 신행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승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경찰청 법회 활성화를 위해 불자회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공불련, 신년법회 · 임원연수

1박2일간 '공무원불자 신심 고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는 1월 30~31일 공주 마곡사에서 '2016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봉행했다. 임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공무원불자로서의 신심 고취를 주제로 한 신년법회에는 공불련 임원 및 각 기관 불자회 임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佛法·文化로 하나된 한국·대만 도반들

국제불광회 부산협, 제6회 한국·대만 문화교류 현장

대만 불광대학교 학생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1월 26일~2월 4일 동안 대만 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해 해인사, 통도사, 불광산사 등을 순례했다.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홍법사(주지 심산)의 초대로 시작된 학생들의 방문은 올해 6회를 맞았다.

하지만 올해 열린 문화교류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국의 한국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해 교류의 의미가 더욱 확장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서부터 부산 홍법사까지 한국 대학생들이 주도하며 대만 학생들을 위한 문화사절단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월 30일~2월 1일 동안 홍법사에서 마련한 템플 스테이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대만 학생들을 위해 사물놀이, 제기차기, 민속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108배 염주꿰기, 발우공양, 다라니 기도 등 불교문화를 접하는 시간도 구체적으로 가졌다.

또한 부산 시내 탐방을 자율적으로 진행했으며 젊은이들이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감을 적극 유도했다. 홍법사는 이 모든 봉사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장을 마련했고 한국 대학생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전통 체험으로 우의 다져

1월 30일 홍법사에는 장구 소리와 북소리가 잔디 마당 앞에서 울려퍼졌다. 30여 명의 청년들이 둥글게 앉아 사물놀이를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덩기덕 덩더더더 쿵기덕 덩더더더' 이번에는 이 소리를 연습해 볼 것입니다"는 안내와 함께 어색한 것도 잠시 대만 학생들은 열심히 장구채를 휘둘렀다.

이윽고 장구와 북을 들고 흥겹게 연주하며 다함께 잔디마당을 둥글게 돌기 시작했다. 말이 안 통해도 웃음이 가득하다. 새로운 것을 신기해하며 체험하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했다.

유인조(순천향대 국제문화학과) 씨는 대만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홍법사를 찾았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물놀이를 배웠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특별히 활용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대만 학생들이 좋아할지 몰랐다.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능 기부로 진행된 사물놀이에서 유인조 씨의 단소와 김효정(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씨의 가야금 연주가 특별무대로 이어졌다. 아리랑과 대장금의 연주는 청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효정 씨는 "어릴 적부터 가족을 통해 전통 무용과 가야금을 배웠는데 이렇게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물놀이에 이어 군고구마를 먹는 시간도 이어졌다. 대만 학생들은 편안하게 앉아 처음 먹어보는 군고구마에 연신 웃음을 지었다. 비슷한 요리가 있지만 이렇게 먹으니 더욱 맛있다며 대만 학생들은 즐거워했다.

국적 달라도 불법 진리는 하나

전통 체험을 마친 대만 학생들은 이어 홍법사 대광명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내 진행된 프로그램은 '108배 염주 꿰기.'

좌복 위에 가지런히 앉아 절하는 법부터 염주를 꿰는 방법까지 배워나갔다.

대만 불광大 학생들 한국 방문
韓불자 대학생과 함께 교류행사
전통문화 체험 등 우정을 나눠
국제 대학생 교류 장으로 확대

이들은 안내에 따라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다. 정성스레 절을 마치고 염주가 완성되자 주지 심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심산 스님은 "'신심·기쁨·희망·지혜' 4가지는 국제불광회 성운 대사의 신조 가운데 하나"라며 "4가지 신조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 불광인으로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처음 접해본 발우공양의 시간에는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각 발우의 이름부터 꼼꼼히 배우며 국과 밥을 먹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지체됐지만 모두 다 익히기까지 대만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어색해하는 대만 학생들을 위해 한국 대학생들은 자리 곳곳에 함께 앉아 진행을 도왔다.

대만 학생들은 발우 공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공양에 담겨 있는 한국불교의 놀라운 철학에 감탄했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대만 수 ●위(21) 학생은 "절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험이었다"면서 "재미있고 친절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인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쉔유첸(25) 학생은 "가족들이 불자이지만 자주 절을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불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홍법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학생 국제 교류 확장할 것"

이번 문화교류를 위해 전국 곳곳의 한국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동국대, 부산대, 동아대, 전주 순천향대, 남서울대, 부경대를 포함해 예비 대학생들까지 총 26명의 학생들이다.

홍법사의 문화 교류행사에 국내 대학생들이 연합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학생들과의 교류뿐 아니라 대학생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이번 행사는 매우 유용했다.

홍법사 역시 이번 문화교류행사의 목표와 취지에 공감에 활동을 위한 모든 국내 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홍법사는 현재 대불련 협회의 법회 및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후원하고 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의 불교 대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금도 홍법사에서는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교류를 위한 대만 학생 초청도 더 늘릴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불광사에서 설립한 종합 대학이 불광대와 더불어 남화대가 있는데 남화대 교수가 직접 찾아와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내년에는 초청 학생 수도 더욱 늘려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불자 대학생들도 대만을 방문한다. 홍법사는 지난해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메르스 사태로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심산 스님은 "각국의 문화 교류를 통해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하성미 기자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 홍법사의 초청으로 대만 불광대 학생 20여 명이 한국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했다. 사진은 불광대 학생들이 108배와 염주꿰기를 하는 모습.



대만 불광대 학생들이 홍법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인 사물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대만 불광대 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은 전통문화 체험과 불교 수행 등을 함께 하며 우의를 다졌다.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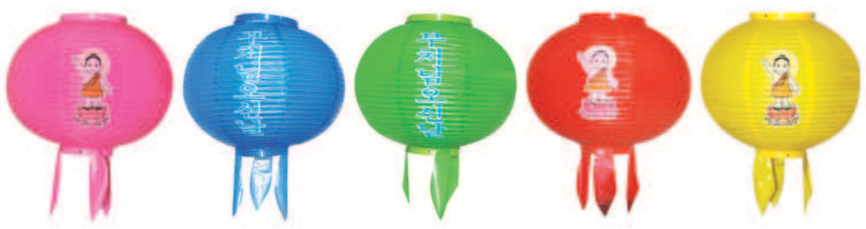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가족과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세요”

자명 스님, 국립극장서 ‘땡큐붓다 콘서트’

퓨전국악으로 全세대 아울러
가족의 소중함 되새기게 해
전국순회 후 수익금 기부 예정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은 1월 30일 저녁, 서울 국립극장에서 ‘가족愛’를 주제로 한 땡큐붓다 콘서트를 개최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언제 다시 오시려나….”

‘엄마’를 부르는 스님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눈을 감은 채 합장한 두 손이 떨렸다. 긴장인지 한(恨)인지 모를 그 떨림에 장삼 소맷자락이 바르르 흔들렸다. 그러자 관객석에 앉은 청중의 눈빛도 덩달아 떨렸다. 부모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하나의 가락이 되어 같은 공간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1월 30일 저녁, 서울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열린 ‘땡큐붓다 콘서트’는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바쁜 사회생활에 아름다운 가족의 정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수년째 음성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영덕 기원정사 주지)이 기획했다. 가야금 · 해금 · 생황 · 대금 등 국악기와 기타 · 베이스 · 드럼 등 밴드 악기가 하나의 곡을 함께 연주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500여 청중의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자명 스님은 작고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국악가요 ‘꽃분네야’를 부르기 전 애달픈 가정사를 밝혔다. 스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암 투병 끝에 작고하고, 3주 후 아버지마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남은 두 형도 자명 스님이 성인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나며 스님은 가족 없이 홀로 살아야만 했다.

자명 스님은 “세상을 홀로 살며 생긴 텅 빈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휑한 가슴에 힘든 일이 많았다”며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도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 노래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명 스님은 ‘꽃분네야’ ‘어디로 가야 하나’ ‘영가전에’ 등 3곡을 부르며 간주마다 합장인사를 올렸다. 90도로 숙인 스님의 허리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 청중은 손뼉으로 맞장구를 쳤다.

사회를 맡은 김흥신 소설가는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릴 만한 얘기를 하며 청중과 소통했다. 자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힐링멘토로 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마가 스님은 “가족 속에서 서로 힘들고 싸우는 것은 내가 나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내 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가족으로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콘서트에는 스님 외에도 국립창극단원 박자희 · 테너 최용호 · 뮤지컬 배우 이지영 씨 등이 출연해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를 선보였다. 몇몇 청중은 잔잔한 여운이 남는 노래 때문이었는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과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오는 이들은 ‘날마다 하늘만큼 환히 웃으소서’라는 콘서트 소주제처럼 밝게 웃진 않았지만 옅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편 자명 스님은 3월 6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도 땡큐붓다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후 울산 · 대구 · 광주 · 원주 · 청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공연 수익금 전액을 BBS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군종교구, 5사단 신교대 통일황룡사 낙성

전통사찰 양식 · 최신시설 갖춰

중부전선 최전방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최신시설을 갖춘 도량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29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신축법당 통일황룡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2011년 12월 현 위치로 부대를 옮긴 5사단 신교대는 부대이전 후 별도의 법당이 없어 실내 다목적실에서 법회를 봉행해왔다. 최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중인 여정 강건욱 군승의 건립 발원과 모연활동으로 통일황룡사 낙성이 이뤄졌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850평에 건축면적 120평이며, 약 28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군예산 10억6000만원이 소요됐으며, 5사단 장병 및 불자 등 법당 자체적으로 6000여만 원을 모연해 불상과 성물, 주련 등을 마련했다. 특히 통일황룡사는 전통사찰 외형에 최신 영상 · 음향시설을 갖춰 법회를 비롯해 교육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낙성법회에서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이 법당이 입영한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주는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경 5사단장은 “통일황룡사가 장병들에게 심신을 수행하는 도량이 돼 군 정신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황룡사 지도법사 지효 손영주 군승은 “불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3군사령부 군종참모 보명 공영호 군승 등 지역군승, 주창환 前5사단장, 정진경 5사단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불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29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신축법당 통일황룡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파라미타,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추진한다

100대 과제 선정 · 20년사 발간 계획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20년사를 발간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1월 29일 서울 국도호텔 3층 튤립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기조 및 주요사업 계획을 밝혔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29일 서울 국도호텔 3층 튤립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파라미타는 올해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에 총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창립 20년사 편찬, 홍보영상 제작 등에 매진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까지 중앙위원 · 집행위원 · 사무처장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중장기발전계획 TF팀을 조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발전계획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청소년 등작품 공모전’을 개최, 우리나라 전통등 문화를 계승하고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5~7월 공모전 홍보 이후 8월 ‘등 제작 지도자 강습회’를 열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모에 들어가 11월 작품전시를 연다. 또한 △청소년 봉축행사 △불자청소년 양성(나란다축제) △랩 창작곡 대회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봉사대회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전국연합캠프 △청소년심성계발 활동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임기만료와 사임요청에 따른 이사 선임도 이뤄졌다. 이사 상인스님(정방사 주지)과 원학 스님(前봉은사 주지)의 후임으로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과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이 신규이사로 선임됐다. **윤호섭 기자**

작은 도움이 아이들의 큰 꿈 키워요

아름다운동행,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위시박스’ 실시

내 작은 도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착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찰까?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어린꿈나무들의 ‘소원지킴이’가 될 수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캠페인 ‘위시박스’를 진행 중이다. ‘위시박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한 소원’을 들어주는 캠페인이다.

지원내용은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 가족 여행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누릴 수 없던 것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생계지원이 아닌 아이들의 자기 발전과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해엔 패션디자이너가 꿈인 주OO(여 · 15) 학생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재봉틀을 선물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주OO 양은 어린 시절부터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며 꿈을 지켜나갔던 주OO 양의 소원대로 재봉틀을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OO(남 · 10) 군은 ‘위시박스’ 캠페인을 통해 평소 갖고 싶었던 2층 침대를 지원받았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 자녀들의 착한 소원들이 먼 훗날 더 큰 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소원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시작된 ‘위시박스’ 캠페인은 현재까지 총 26명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약 8,300만 원 가량의 물품 등을 지원했다. 후원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서 확인 가능하다. 후원계좌 053-01-275564 농협 **박아름 기자**

한아름회, 케냐 우물사업 1,500만원 지원

1월 13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 전달

시니어불자 봉사모임 ‘한아름회’가 지구촌공생회에 케냐 ‘생명의 우물’ 건립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한아름회(회장 이정자)는 1월 13일 서울 아차산 영화사에서 ‘케냐 생명의 우물 건립기금’ 1,5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지구촌공생회 케냐지부를 통해 마을 우물을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월주 스님은 “인류가 함께 공존 · 공영하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해줘 감사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자 한아름회장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보시는 상을 내지 않고 인연 따라 하는 것이다. 목마른 케냐 아이들이 하루빨리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마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아름회(회장 이정자)는 1월 13일 서울 아차산 영화사에서 ‘케냐 생명의 우물 건립기금’ 1,500만원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전달했다.

한편, 한아름회는 60~80대 불자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2000년 창립했다. 2005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점심 대중공양 봉사, 독거어르신 겨울나기 물품지원 등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다. **박아름 기자**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승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고대 인도의 교육방법인
인명논리학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의 컨트롤 타워

◆ 모집인원 : 20명
◆ 대 상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학 비 : 연 100만원
◆ 입학식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정오

◆ 강 사 진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 外
특강강사

◆ 교육과정
전 문 과 정 : 2년
연 구 과 정 : 4년
교수사과정 : 7년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 토요일 오전 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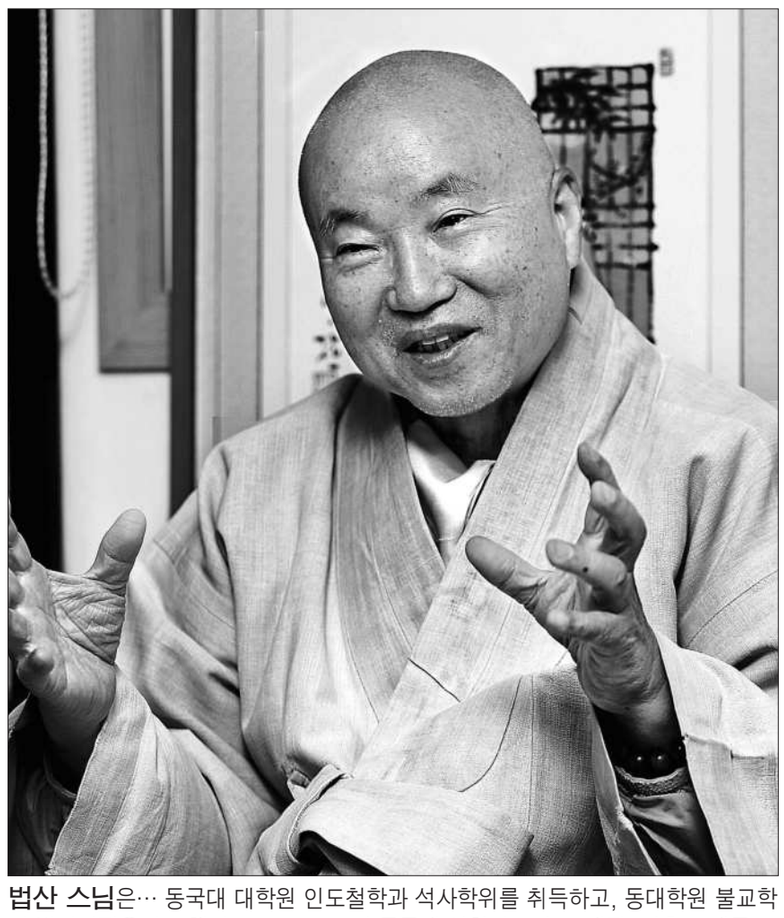
입학문의 : 010-8969-9444 (지암스님) / 010-7225-8426 (명혜스님)

是非 얽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無心에 대해'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본 두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며 서로 격론을 벌였다. 둘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스승 인종 스님에게 물었다. 하지만 인종 스님도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자 혜능대사는 "깃발도 바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스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심(無心)하다. 사람들은 이를 감정이 없거나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무심은 '버리려 해도 없앨 것이 없고 가지려 해도 생겨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달마대사는 "반야 가운데 무심반야가 제일"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1월 17일 방영된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서 "옳고 그름에 얽매이면 있는 그대로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법산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6~2011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 이후 조계종 고시위원장·한국선학회장·동국대 불교대학장 및 불교대학원장·한국정토학회장·동국대 5대 및 8대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조사상연구원장, 인도철학회장,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대즉곽주법계(大卽廓周法界)
소즉모갈부정(小卽毛竭不停)
번뇌혼지불탁(煩惱混之不濁)
열반징지불청(涅槃澄之不淸)
-달마대사 무심론(無心論) 중-

수지일절불립(收之一切不立)
산지보편함령(散之普遍含靈)
신묘비지소측(神妙非知所測)
정각절어수행(正覺絶於修行)
멸칙불견기회(滅則不見其壞)
생칙불견기성(生則不見其成)
대도적호무상(大道寂號無相)
만상요호무명(萬像窈號無名)
여사운용자재(如斯運用自在)
총시무심지정(總是無心之精)

이것은 무심(無心)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무심으로 돌아가면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의 무아사상을 잘 공부해서 무심, 즉 걱정 근심 없는 마음이 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무심이 아닙니다.

그 무심의 세계는 크기로는 우주법계를 다 감싸 안을 만큼 크고, 작기로는 터럭 끝에도 머물지 못할 만큼 작습니다. 또한 크고 작음을 떠나 아무리 번뇌망상이 혼탁하게 하려 한다 해도 흐려지지 않고, 열반을 증득해서 맑게 하려 해도 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한 자리가 진실의 자리요, 본래 자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번뇌망상에 놀아나고 열반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모두 항상 본래 그 자리를 갖추고 있건만 진실에 급급하다 보니, 대상에 쫓겨 살다 보니 자꾸 끌려 다녀서 자기를 잊어버린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채 끌려가다보니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헛된 구렁텅이에 빠지고,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 느끼는 오관육식의 장난에 자꾸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여본무분별(眞如本無分別)
능변유정무정(能辯有情無情)

진여는 본래 분별이 없으나 유정과 무정을 능히 가려내니 거두어들이려 해도 무엇도 설 자리가 없고 흩으려 해도 모든 중생에게 두루 있습니다. 그 신묘함은 헤아려 알 수 없고 정각에는 수행의 자리도 끊어져 버립니다. 없어져도 그 품은 곳을 볼 수가 없고, 생겨나도 그 이뤄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큰 도는 고요하여 모양이 없고, 삼라만상에 펼쳐진 현상세계는 깊고 그윽해서 이름이 없어, 이와 같이 씀씀이가 마음대로 하니 이것이 바로 무심의 본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이 되면 성질낼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 계신 처사님이 저를 살살 약 올린다고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귀엽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 제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날 이유도 없겠죠.

친한 도반 중에 4~50년간 나이 70이 넘도록 수행했는데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이러쿵저러쿵 한참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동풍은 불어 서쪽으로 가고 서풍은 불어 동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더니 바람 쐬러 가서 스트레스 날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 하라고 했지요. 중요한 건 동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그 바람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통도사에서 밖을 내다보면 꽃은 피는 대로 예쁘고, 녹음(綠陰)은 우거지는 대로 예쁘고, 단풍이 들면 드는 대로 예쁩니다. 겨울이 되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영축산 찬바람이 '휭~' 하고 불어도 좋고, 바람이 그치면 달님이 오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자꾸만 얽매이면 있는 그대로를 보기 어렵습니다.

모양도, 이름도 없는 것이 무심
부딪히려 안 하면 시비 벗어나
내 시각만으로 보려하지 말고
참선·염불 닦아 번뇌 지워라

남 탓 말고 나를 보라

물을 먹기 전에 물은 나와 다른 것이지만 먹고 나면 그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본래 자기 것이 없고 자지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마시면 내 물이 되는 것이요, 흐르는 물을 보기만 한다면 타물(다른 물건)이 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더불어 살면 한 가족이고, 더불어 살지 못하면 항상 남인 겁니다. 그러니 본래 남이 있는 것이 아니요, 본래 내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남의 것이고 남의 것이 내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스님, 남의 것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남의 것을 아무거나 집어다 쓰면 안 됩니다. 가져갈 것을 가져가고 주는 것을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 맘대로 가져가면 병이 되는 겁니다. 꽃이 시기에 맞춰 피듯이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또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딱 맞아 하나가 되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왼손의 소리, 오른손의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도 옳고 그른 것을 시비하려고 할 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부딪히지 않는다면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에게 "너 혼자 싸워봐라" 하면 하겠습니까. 무언가 마음에 걸릴 때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또 "그런 것은 스님들이나 하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될 게 없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되는데 다만 못할 뿐이지 안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일은요, 다 안 해서 그런 것이지 하려고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없다고 궁상떨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관세음보살을 찾아도 좋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장보살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잡히는 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보살님이 제게 그럽디다. 집에 반찬이 없어서 뭐가 걱정이고 어떻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밥만 꼭꼭 씹어 먹어도 밥맛이 참 좋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입맛이 있는데 밥맛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기 입맛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밥이 맛없네' 라고 투정 부린다면 그게 바로 남 탓입니다.

무심이 되어서 물을 마실 때는 물과 한 마음이 되고, 반찬이나 밥을 먹을 때는 먹는 데 신경을 쓰면 맛이 나기 마련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무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 살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이런 무심송을 남겼습니다.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해도 소리가 없네. 고요한 마음이여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구나. 어두운 것 같으나 어둠이 아니요, 밝은 것 같으나 밝은 것이 아니네. 버리려 해도 없앨 것이 없고 가지려 해도 생겨남이 없네.

편견 없애려 수행정진하라

이게 바로 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세상의 모든 반야 가운데 무심반야가 제일이더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쌀을 가지고 다양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설기·절편·가래떡·인절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똑같은 쌀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서로 내는 맛은 다릅니다. 모양·색·솜씨에 따라 다 다른 것이죠. 사람도 본래 한마음인데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비롯함이 없어서 우주법계 참된 진리가 무심이다' 고 합니다. 이러한 무심의 세계는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등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말이죠.

얼마 전 겪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네 편과 내 편을 나눈다. 중도에 대해 대담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에 가서 사진을 찍고 대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통도사에 돌아왔더니 다른 분들이 저보고 왜 그런 곳에 가서 데모를 하느냐고 묻더군요.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보니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물 때였습니다. 아마도 제 모습이 TV카메라에 잡혔나 봅니다. 전 무심으로 갔을 뿐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 위원장을 두둔하러 갔다거나 끌어내리려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삼각산을 오르는데 우이동쪽에서 오르는 사람이 있고, 의정부쪽에서 오르는 삶도 있고, 평창동 쪽에서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면 똑같이 하나지만 오르는 길과 과정에 따라 자기 기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은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부처님의 수행밖엔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생각을 지울 수 있고,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전부 익혀진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진실은 실상입니다. 실상은 곧 참된 모습이고요. 참된 모습에는 때가 껴있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꽃을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참 맑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 꽃의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은 근심걱정이 있을 때 꽃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 향기를 내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옆 사람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는 자세는 무심이 아닙니다.

물은 흐를수록 맑아지고 바람은 불수록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염불이라는, 참선이라는 수행을 통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자꾸 수행하면 지워집니다.

여러분,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빵빵거려봐야 자기 성질만 더러워지는 것이지 내 삶에 보탬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사십시오.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잘 따르고, 무심으로 돌아가 참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전통과 현대 학문 사이서 불교학 방법론을 고민하다

한국불교학회, 1월 30일 동계워크숍

2000여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불교를 학문적으로 구성한 것은 서양 학자들이었고, 한국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적 학문으로서 불교학을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불교학은 '전승의 불학'과 현대적 학문인 '불교학'이 혼재돼 있다.

인문학으로서 불교학의 위치를 되짚어보고 역사 · 문학 · 종교학 · 철학 등으로서의 불교학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1월 30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를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문학 · 역사 · 철학 · 종교학 · 예술학으로서 불교학의 방법론이 논의됐다.

'불교학 방법론' 주제로 문학 · 역사 등 방법 모색

'불교문학의 지형과 방법'에 대해 발표한 김종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불교문학'을 표방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의 대상화, 엄정한 논리의 전개 등이 수반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한때는 '한국불교어문학회'가 발족돼 〈불교어문논집〉을 발간했으나 9집(2004)을 끝으로 종간된 상태"라면서 "집체적 연구가 학술적 담론을 창안하기보다 개별 학자들의 서로 다른 관심 영역의 논의를 물리적으로 모아놓은 것 이상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과 학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황의 불교문학 관련 자료집, 대장경의 불교문학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번역하고 상호토론하며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 사학의 방법론에 대해 발제한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동아시아 범위에서의 사상사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종래 연구는 불교 사상사 연구가 아니라 불교 교리사 연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종합적인 역사와 사회에 밀착한 연구가 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불교사학은 동아시아 범위에서 사상사 일반의 흐름과 연관된 방법론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종교학으로서 불교학에 대한 논의도 눈길을 끌었다.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북미 대학을 중심으로 불교학은 'Buddhist Studies'로 불려지며 종교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소속이 옮겨가는 추세"라면서 "연구 방법도 인접학문들의 방법론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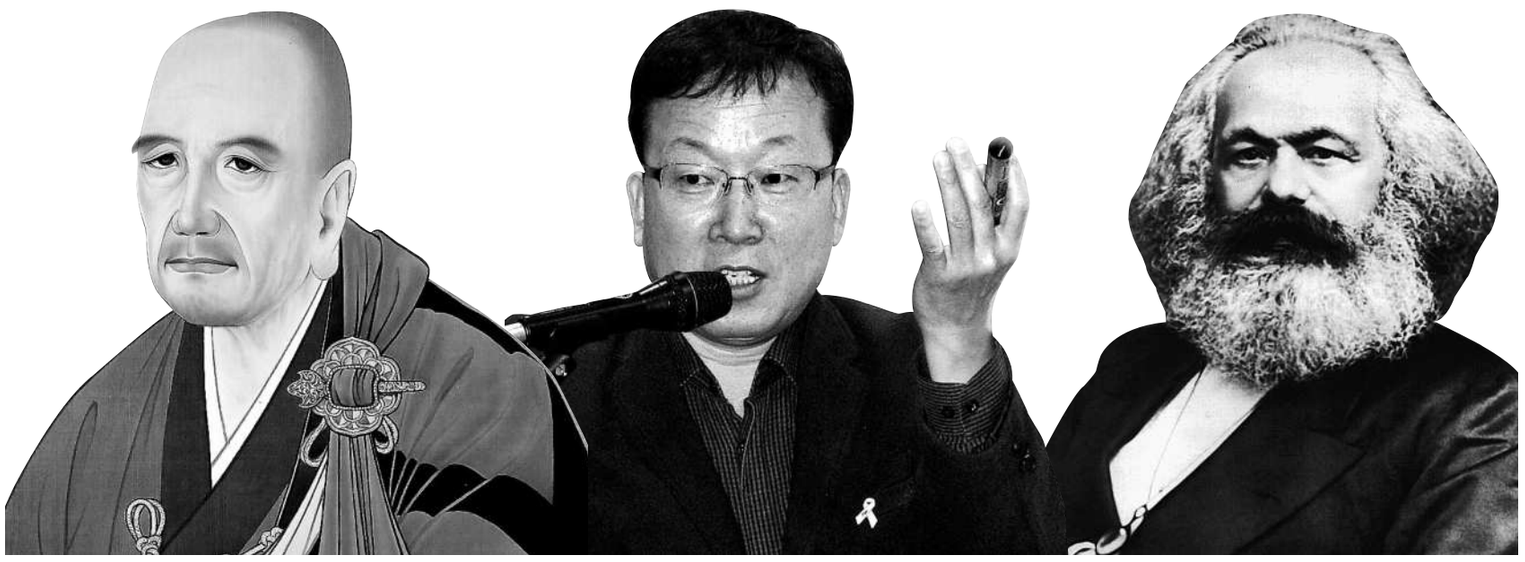
이어 "세계 종교연구 흐름으로 볼 때 한국에서도 종교학과 불교학이 여러 인문사회학과 협력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다른 인접학문과의 협동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학에 대해 발제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현대 불교학자는 '위학자(爲學者)'이면서 '위도자(爲道者)'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철학이 '위학'이라면 철학함은 '위도'이다"라면서 "학문이 '물음과 배움의 길'이듯이 우리는 '위도자'가 되기 위해 '위학자'가 돼야 하며 문헌학과 해석학이 능한 '위학자'가 돼야 비로소 응용학과 실천학에 깊은 '위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는 1월 30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를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라의 원효 스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칼 마르크스. 이도흠 교수는 원효의 화쟁과 마르크스 사상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

"자본주의 한계 봉착… 새로운 대안 준비하라"

이도흠 교수,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발간

"2000만 노동자 중 약 100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절반이 월수입으로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지금을 장기불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920~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 이윤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탄생했고, 자본의 악마성은 더욱 강화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합니다. 단언컨대 자본주의는 30~50년 내에 망합니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의 2월 3일 열린 강의 내용 중 일부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에서 마련한 강연회는 이 교수의 최근 저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기념해 열린 것이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자신의 저서의 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진단하기 위해 마르크시즘을 택했고, 갈등을 아우르는 사상으로 원효의 화쟁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서양은 오랫동안 실체론적인 사유를 했고, 동양은 관계론적 사유를 확대해왔다. 두 가지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원효와 마르크스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효와 마르크스. 생경하고 낯선 조합이지만 이 교수는 두 가지의 사유를 절묘하게 묶어낸다. 원효와 마르크스를 통해 이 교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10가지를 거론 ·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교수 지적한 현대사회의 위기는 △환경 △폭력 △소외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학기술의 도구화 △근대성의 위기 △분단 모순의 심화 △욕망의 과잉 △정보화사회의 모순 △가상성과 재현의 위기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서로가 깊은 연관을 맺고서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 조건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의지하며 서로를 만들어주는 상호생성자(inter-becoming)'와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기 안의 인간다운 본성을 형성하는 눈부처-주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제안한다.

화쟁과 마르크시즘의 낯선 동행

마르크시즘으로 자본 모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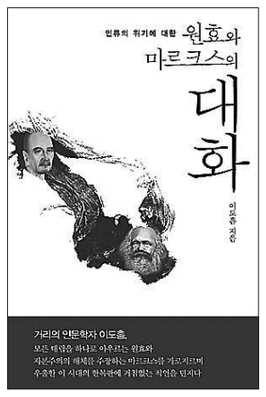
화쟁은 자본 · 노동 아우름을 모색

환경 · 폭력 · 소외 등 위기상황 짚어

'눈부처- 주체'로서의 삶 살아야

"이윤율 '0%' 오면 자본주의 붕괴

새 시대 맞을 패러다임 찾아야"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간중심주의와 이분법, 근대화를 낳은 폭력적 서열제도에 대해 처절히 성찰하고 불일불이와 같은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 학살: 폭력론 · 평화론 대(對) 변동어이(辨同於異)의 눈부처-차이론'에서는 20세기 이후 더욱 빈번해진 집단학살의 원인으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순전한 생각 없음'이나 스탠리 밀그램이 지적한 '상황과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집단학살이 타자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일성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서로를 생성하는 상호생성자로서 눈부처-주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철학과 연대 등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방식의 '개시개비(皆是皆非) 화쟁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4대강, 용산 철거민, 밀양 송전탑 등 한국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은 '개시개비의 화쟁'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개시개비는 화쟁의 출발점일 뿐이며 관념상의 갈등 해결 방식"이라며 "초역사적인 화쟁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추상과 구체의 종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관념의 유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연대'이며 이를 통한 '공동체' 구성이다. 착취 당하고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의 고통에 연대한 그곳에 인류의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강의 마지막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세 명이 연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화쟁 상생의 세계를 이루고 싶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4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 개 강 일 : 2016년 2월 26일(음력 1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한파스님(학장스님께서 직접 내외전 강의하십니다.)
■ 보조강사 : 수암스님(010-5488-7060)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055)343-2267~870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 연구보존회

무료 공개 강의 안내

사주를 잘 몰라도... 통변에 자신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프린터 출력을 할 줄 알면 그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귀하께서 방문하시어 직접 경험해 보면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겐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
성인에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려주는 내용!

● 문, 이과 통합과 이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 컴퓨터에 생년월일만 입력하거나 설문응답 자료를 입력하고 인쇄 출력하는 방법만 알면 즉시 자료를 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



➔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그 순간 16장의 자료가 출력된다.(학생.성인용)
➔ 1년 신수를 월별로 데이터화 한 자료가 5장 출력된다.(학생.성인용)
➔ 설문응답을 마치는 순간 15장의 자료가 출력된다.(학생.성인용)



"인문계 고3학생과 명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타를 기준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 진학상담교사. 학원운영자. 종교인(스님). 철학인.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본 연구학회와 함께 할 지사 모집

공개 강의 일자 : 2016년 2월 20일(토요일) 오후 2시 ~ 5시(3시간)

장 소 : 진로적성힐링상담소 401호 [총신대역 5번 출구 200m] (방배동 950-1번지)
연구소 : 010-5418-5972 / 강북지사 010-2146-1346 / 경기지사 010-8862-6624

“부산 넘어 전국에 法音 전하는 터전될 것”

BBS불교부산방송 2월 1일 사옥 건립 선포

BBS불교부산방송(사장 수불)이 사옥 건립을 선포했다. BBS불교부산방송은 2월 1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국 21주년을 기념해 ‘북항 발전과 BBS불교부산방송 사옥 건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사장 수불 스님의 인사말과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의 축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선포식에서는 ‘땅 한 평 사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를 직접 무대에 초대해 감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표 후원자로는 범어사 한주 무비 스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2호 성종사 대표 원광식 씨, BBS불교부산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 법소리 김주희 회장, 박종호 사무국장, 부산불교삼보회,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민주평화통일 이영숙 부의장 등이 뽑혔다.

행사에서는 땅10평 사기 후원금도 전달됐다. 후원금은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창원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박대성 사무총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BBS불교부산방송 류진수 초대회장, BBS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 김백영 변호사, 부산시화물운송사업협회 신한춘 이사장,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이사 등이 10억 여 원을 모았다.

지상 40층 랜드마크로 건립
선센터 및 불교단체도 입주
땅 10평 사기 후원행사 전개

사장 수불 스님은 “지난해 취임식 당시 약속한 신사옥 건립이 첫발을 내딛었다. 신사옥은 부산불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BBS불교부산방송은 2월 1일 사옥 건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편, BBS불교부산방송은 구랍 30일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 IT영상 전시지구에 사옥건립을 위한 부지 1805평을 계약했다. 토지 계약금 209억원 중 약 10%인 21억원이 계약금으로 지불된 상태다. BBS불교부산방송 신사옥은 지하 5층 지상 40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불교미디어테마파크와 선센터, 불교단체 사무실 공간 등도 함께 들어선다.

이 자리에는 수불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원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이윤희 회장, 박대성 사무총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류진수 초대사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가피로 福된 설날 되길”

부산지역 사찰, 설날 맞이 자비나눔행 활발

부산지역 사찰들이 자비나눔으로 설날을 맞이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2월 2일 지관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삼광사가 주최하고 힐링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1,600kg의 쌀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오른쪽 사진〉

주지 무원 스님은 “나눔은 부처님의 자비희사로 세상을 밝히는 행위”라며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겠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전했다.

또한 통영 보현사(주지 묵원)와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2월 4일 명절을 맞아 나눔을 실천했다. 보현사는 통영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10곳을 선정해 방문하고 한집 당 쌀 20kg, 라면 3박스, 화장지 1세트와 함께 십시일반 모은 성금도 전달했다.

주지 묵원 스님은 “나눔으로 그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2월 3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주민의 흥겨운 노래자랑과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어 설날에는 따뜻한 떡국도 지역민들에게 대접했다. 전달식에는 이종철 남구청장, 서용교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대가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28일 총본산 총무원 영천 정림사 대웅전에서 병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보명 스님과 총무원장 혜법 스님, 원로의장 대해 스님, 종회의장 법진 스님과 문화부장 진송 스님 및 회원 종도 사찰 주지스님 2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혜법 스님은 “나라 살림이 어려워 질때 회원 종도 사찰 스님들이 날마다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를 통해 창의로운 지혜가 생겨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정 보명 스님은 “늘 오늘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니, 깨닫음의 도량에서 이웃과 함께 혼신의 노력으로 수행 정진하여 부처님 법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 탐방

“리틀붓다 가득한 불국토 되길”

울산 황룡사, 어린이포교 현장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가 진행하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지역포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룡사에는 매주 일요일 70여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가득 채운다. 예불과 스님의 법문 그리고 명상 까지 거뜬히 해내는 아이들은 법회가 마치고도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 하루 종일 절에서 청소 봉사와 설거지 봉사, 그리고 고등부 청소년은 어린 학생들을 돌보며 멘토 역할도 담당한다. 어린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 황룡사의 노하우를 2월 3일 들어보았다.

황룡사는 울산 학산동 도심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도심포교 현장이다. 9년 전 문을 열었을 당시 황산 스님은 불교 대학과 함께 어린이 법회를 함께 시작했다. 그 때 당시에는 한명 혹은 두 명 정도 법회에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였다고 했다.

“어린이 포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 생각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조차도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낙담을 했었죠.”

그래도 스님은 포교 원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절실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다. 그러던 중 2010년 초에 발견 한 것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다. 국제청소년포상제는 전 세계 14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적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주된 프로그램은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와 탐험 활동으로 나눠지며 만 14세~25세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공인 자기성장프로그램으로 활동 단계에 따라 동장, 은장, 금장으로 나눠 포상이 주어진다. 황산 스님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찾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매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늘려갔다. 그리고 활동에 따른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며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됐다.


울산 황룡사 청소년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리산 등반을 한 청소년들이 즐겁게 웃고 있다.

“멘토링 봉사를 시키며 영어 뮤지컬, 배식 봉사, 축구, 요가, 뮤지컬, 야영 캠프, 여행 등 각 활동에 맞춘 프로그램을 열고 정규적으로 그 활동을 기록해 보고했습니다. 감사도 받아야 하고 까다롭지만 어린이 포교의 전환점이 되었고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매주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법회 출석율은 항상 90%를 넘는다. 그 결과 졸업을 한 학생들은 스스로 황룡사를 찾아 청년회를 결성하고 봉사를 자처했다. 황룡사 측은 14세 미만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도전포상제’를 제공했으며 평일에는 공부방을 운영해 학업 성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황산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주지 스님의 마음과 의지’라고 했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투자해야 할 곳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교사에 맞는 현실적 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여래사 불교대학 환우나눔 ‘눈길’

부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 재학생 및 졸업생 50여 명은 1월 28일 부산 동구 인창병원을 방문해 환우들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병원 휴게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조계종 신도교육기관으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설립됐다. 병원 방문 위로연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지역민을 위한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목종 스님은 “소외계층을 위하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 등에 나서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정토 · 어울림합창단은 1월 31일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제2회 합동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정토사는 불교대학 내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문화교실에는 민화반, 요가반, 난타반, 노래교실, 요리교실, 다도교실의 수강생으로 이뤄진 정토합창단, 직장인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 정토어울림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1997년부터 운영된 문화교실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와 불교 포교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동참하며 실력을 닦아왔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문화포교는 불법홍포의 첩경”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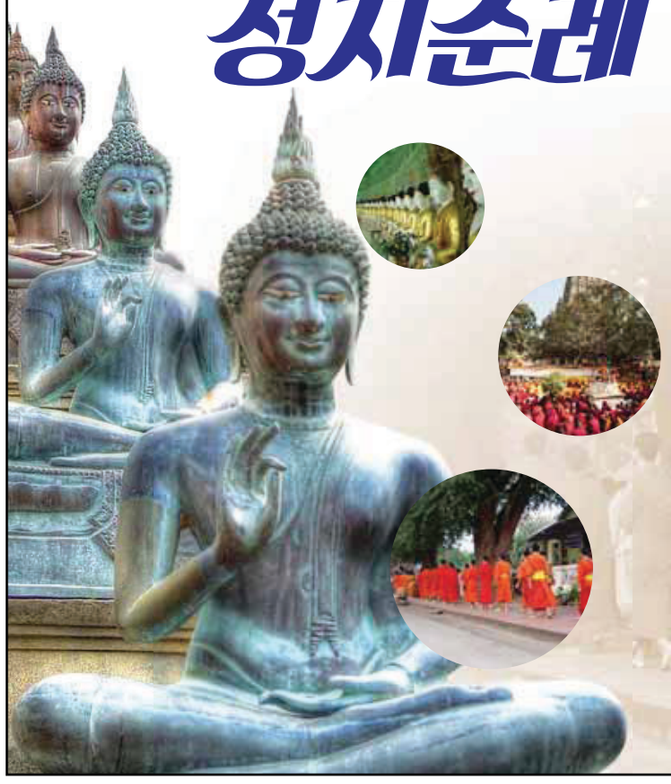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3월 27일, 상품가 : 20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Myanmar
선물 같은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호남 불교계, 설 맞아 온정의 손길

경로잔치 · 연탄 및 떡국 떡 나눔


선각종 옴천사는 1월 29일 광주 남구 관내 저소득층 12가구에 자비의 연탄 3600장을 전달했다.

암 환자 · 독거노인 초청 문화공연
건강식품 · 영양제 · 생필품 전달도
저소득 겨울나기 돕는 자비행과
명절음식 나눔으로 훈풍 불어넣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호남지역 불교계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자비행을 실천 했다.

연꽃마을 자비원 대표 정인 스님이 이끌고 있는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는 2월 2일 전주 리윈호텔 백제홀에서 암 환자 및 독거노인 100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전주 수 한방병원의 건강상담과 아리랑 예술단의 위문공연, 나눔 위안잔치,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인 스님은 "자기를 깨닫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주민을 돕는 것이 참다운 부처라는 생각에 1991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노인 및 암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행 생활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 참다운 불제자가 됨은 물론 사회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힘쓴 전수이 · 문동주 · 양재이 씨가 전주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한 김승혜(한별고 2) · 권의현(기전대 2) 학생에게는 김성주 국회의원상이 수여됐다.

또한 전주시내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된 독거노인들에게는 지역 내 독지가와 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 건강식품과, 영양제, 생활필수품 등 40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됐다.

경로 위안잔치에는 정인 스님, 소담불교박물관장 법성 스님, 임현기 한국노인복지회 전북지부장, 임선영 전주 수 한방병원장, 이창승 리윈호텔 회장, 송채옥 덕진구 사회과장을 비롯한 전주시 사회복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인 스님은 1996년에 효자동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중리에 연꽃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 어버이날 무렵 3~4차례에 걸쳐 100명의 불우이웃에 3000~6000만원 상당의 다기능 안마기와 건강기능식품,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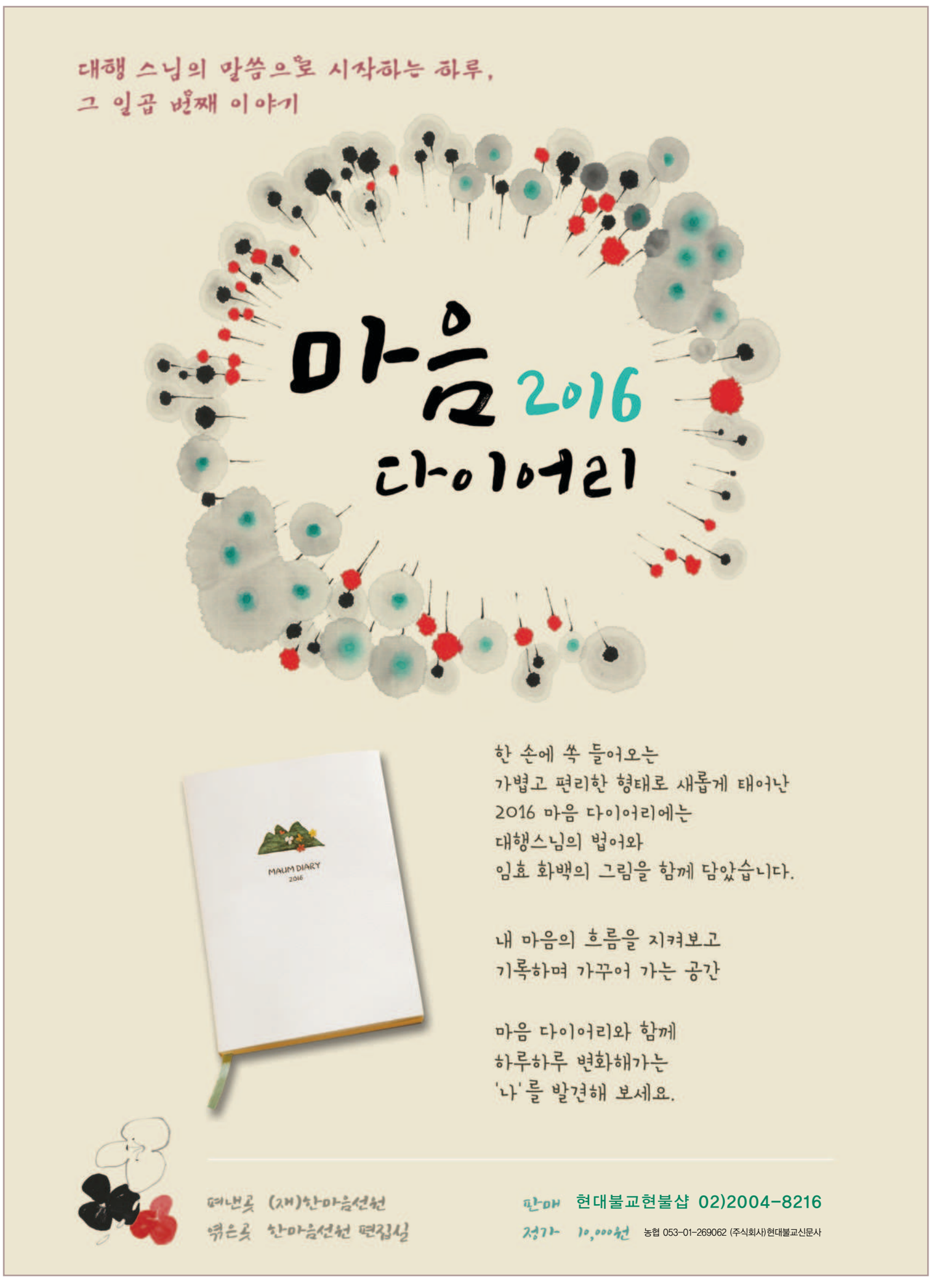
대한불교선각종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월 29일 최영호 광주남구청장,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사장, 종단 임원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비의 연탄 3600장을 남구 관내 저소득층 12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연탄은 선각종 사회복지원에서 종도와 신도들이 온정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선각종은 올해 말까지 총 3만장의 연탄을 모아 광주 및 영암, 강진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각종은 앞서 28일에도 강진군 저소득 24세대에 연탄 3600장을 지원한 바 있다.

정암 스님은 전달에 앞서 "설날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각국사 선양회(대표 대현)도 1월 29일 화순군 13개 읍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250세대에 떡국 떡 1100kg을 전달했다. 각 2.2kg씩 총 500박스가 후원된 전달식에는 대현 스님, 진각국사 선양회 회원스님을 비롯해 화순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대현 스님은 "설날은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다. 명절날 떡국을 통해 가족 간에 소중한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연음식문화원, '맛있는 방학 COOK방'

초·중·고교생 올바른 식습관 위해


(사)자연음식문화원은 1월 27일 전북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음식체험전을 진행했다.

전북불교네크워크(공동대표 오종근) 부설 (사)자연음식문화원(이사장 곽인순)은 1월 27일 전주 금암동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전주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방학 (COOK방)'이란 주제로 자연음식체험전을 진행했다.

자연음식체험전은 인스턴트식품과 화학조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진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자연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1차로 진행된 수업에는 초 · 중 · 고교생 20여 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연사찰음식인 느타리버섯 깐풍기와 홍시 무생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보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최승현(초5) 학생은 "자연음식과 사찰음식이라고 해서 입맛에 안 맞고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체험해보니 학생들이 따라 하기도 쉽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지는 몰랐다"며 "특히 버섯 깐풍기는 집에서도 종종 만들어 먹고 싶고 남은 수업이 기대된다"고 소감은 밝혔다.

설민자 전북지역 아동센터장은 "요즘 아이들은 배달 음식이나 햄버거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어 영양 불균형이 많이 걱정됐다. 이번 체험에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춘 자연음식과 사찰음식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한 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앞으로 아이들이 집에서도 직접 자연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자연음식문화원이 주관하고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공부, 끝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졸업식


전주 참좋은우리절은 불교대학 졸업생 24명을 배출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이 15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학장 회일)은 1월 31일 경내에서 15기 졸업식을 봉행, 정규반 14명, 경전반 10명 등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회일 스님을 비롯해 지난 1년간 강의를 진행한 강사와 졸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군 불자 등 14명의 정규반 졸업생들은 졸업식에 앞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신도품계인 부동품계를 품수했다.

회일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나 중심의 분별을 떠나 연기와 공생의 도리를 바탕으로 공존을 지향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우수불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지난 1년간 불교대학 전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남준우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 송병철 불자가 학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졸업생들은 지장전 불사를 비롯한 참좋은우리절 불사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06년 9월 설립된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은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 등록했으며 올해까지 총 3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복지사각지대 밝힐 지원사업 실시"

빛고을나눔나무, 상반기 사업계획

광주전남지역 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가 올해 복지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1월 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년 상반기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 여성단체(여성쉼터 및 미혼모시설) 지원사업과 네팔 지진피해지역 학용품 · 어린이 약값 · 자전거 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공모지원사업에 2000만원의 기금을 책정한다. 봉축행사 공모사업은 광주지역 불교단체가 스스로 다양한 봉축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10개 단체가 신청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추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2월 중 확정된다.

청소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나눔 경매를 통해 모연된 기금과 후원금을 바탕으로 각 사찰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추천받아 우선 지원한다. 여성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의 쉼터 지원 및 미혼모 자립(분만 · 출산 · 숙식 · 아기용품 등)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네팔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 구호활동 일환으로 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비품과 학용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병이 있는 어린이에게 약값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불교성지 거주 학생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띈다. 룸비니 지역(평야)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통학거리가 도보로 2~3시간 되는 학생들에게는 자전거를 보급할 계획이다.

문영배 기획팀장은 "올해 지원방향은 불교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며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입춘기도 공덕 지역사회에 회향

금선사 · 비전사, 쌀 나눔 행사


금선사는 4일 빛고을나눔나무에 쌀 2000㎏을 전달했다.

입춘을 기념하는 자비나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병신년 입춘인 4일 대웅전에서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시주한 쌀 2000kg과 100만원 상당의 동전을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를 통해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입춘기도에 불자들이 시주한 것으로 자비신행회,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전해졌다.

일명 스님은 "사찰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곳"이라며 "입춘을 맞아 예년처럼 많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사(주지 보혜)도 입춘을 맞아 신도들이 모은 쌀 2000kg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자비의 밭' 모연으로 만들어진 300만원 기금을 소아암백혈병 환우 3명에게 전달했다. 5년째 이어진 자비의 밭은 올해까지 2200만원을 모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통해 총 22명의 환우에게 전달돼 환우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세상이 소매 속 작은 공간은 아닐까?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㉟ 인삼과를 살리는 관세음보살



그림 · 최주현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은 현장법사 일행, 붙잡혀 갇히게 되지만 손오공 신통한 술법이 이때 빛을 발한다. 살며시 빠져나와 열심히 도망친다. 청풍 명월 두 사람 한 달 동안 잠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사이 하늘 세계 강의차 방문했던 진원대선 돌아오고 인삼과 뿌리째 뽑힌 걸 알게 되고 현장법사 일행 도망친 것도 알게 되고 휘익~ 구름을 타고 현장법사 일행을 추격해서 '게 섰거라!'

그런다고 서냐! 그렇지만 진원대선 신통한 술법이 있다. 수리건곤(袖裏乾坤)이라, 소맷자락 속의 세상이란 뜻인가? 휘익~ 소맷자락 한번 쓸어내면 한꺼번에 소맷자락 속으로 휘리릭~ 빨려들어가 버린다네. 손오공 여의봉으로 두들겨도 소용없고 저팔계 쇠스랑으로 찍어대도 까딱없다. 그저 소맷자락 속에 갇혀서 잡혀오는 것 뿐. 그래서 모두 잡아다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려하는데 손오공 가상하게도 스승 생각하는 마음은 사무친다.

'스승님 현장법사는 때리지 마시오! 모두 내가 대신 맞겠소!'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고 모질게 때리는데 손오공 끄떡도 없다. 아무리 쳐도 철면피 신공? 솥에 넣고 삶자니 돌사자와 자기를 슬쩍 바꿔치기~멀쩡한 손 밑바닥이 빠져버리네. 화가 난 진원대선 이제 현장법사를 삶으려 한다.

급해진 손오공, '우리 스승님 손대지 마라! 인삼과 나무 되살려내면 될 거 아니냐!'

진원대선 코웃음을 친다. '이게 그리 쉽게 살릴 수 있는 나무인 줄 아느냐? 네가 만일 되살려낸다면 너와 의형제를 맺으마.'

그래서 현장법사를 비롯한 나머지 인질로 남고, 손오공 홀로 인삼과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닌다.

우선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봉래산(蓬萊山)에 들려 수성(壽星), 복성(福星), 녹성(祿星) 세 신선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니 세 신선 펄쩍 뛴다.

어쩌자고 그 귀한 나무를 뽑아버렸소. 그 나무는 우리도 살릴 길이 없구려. 방장산(方丈山)을 찾아가 동화제군(東華帝君 ; 남자 신선들의 수장인 신선)을 만난다. 그렇지만 동화제군도 난색~ 나에게 구전태을환단(九轉太乙還丹)이란 신묘한 약이 있지만 그 나무는 살릴 수가 없다오. 마지막 삼신산인 영주산(瀛洲山)으로 달려가지만 모든 신선들 고개를 홰홰 젓는다.

어쩌다 그 나무를 뽑았단 말이요. 우리도 그건 어쩔 수 없소.

'에고! 이제 어쩐단 말이냐, 큰 소리 치고 왔는데' 하고 둘레둘레 하다 보니 어느새 관세음보살 계신 보타낙가산에 와 버렸네. 급하면 역시 보살님뿐이지. 여차 저차 사정을 아뢰니 관세음 보살님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쩌자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사정이 급하면 나를 찾아와야지. 어찌 쓸데없는 곳만 돌아다녔단 말이냐!'

손오공, 야단맞는 가운데도 귀가 번쩍 뜨인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나무 살릴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 이 못된 원숭이야! 이 정병(淨甁)에 담긴 감로수(甘露水)라면 될게다. 예전에 태상노군과 내기를 했었는데 그가 단약 굽는 화로에 넣고 불때어 말려버린 버들가지를 이 정병에 꽂아 두었더니 되살아난 적도 있으니까. 뽑혀 넘어진 나무는 문제없을게다.'

역시 일급 구원투수, 특급 소방수 관세음 보살님. 부랴부랴 모시고 오장관으로 달려온다. 버들가지로 감로수 찍어 손오공 손바닥에 부적을 그리곤 나무뿌리 아래 손바닥을 대고 기다리니 펑펑~ 맑은 샘물 솟아나네. 쓰러진 나무 일으켜 세우고 그 맑은 물 골고루 뿌리니 죽었던 나무 소생하고, 인삼과까지 주렁주렁~우와~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세음보살 왕림하시고 나무까지 온전히 소생하니 재앙이 변하여 경사가 되었네.

경사난 기념으로 보살님을 비롯하여 모인 회중에게 인삼과 하나씩 드려 드시게 하니 경사 중에 또 경사로구나.

또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던가? 아이들은 아니지만 손오공과 진원대선 약속대로 의형제를 맺었네. 그런데 다 좋은 가운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일~ 인삼과 먹은 현장법사의 몸이야말로 요괴들에겐 둘도 없는 보약이라. 욕심에 눈이 벌개진 요괴들 계속 달려들 테니 현장법사 좀 피곤해지겠네.

시공간, 체험따라 의미 틀려
삶의 고(苦), 다르게 보면
삶의 목표로 다시 다가와
초연한 사고와 수행 자세 필요

자, 이제 큰 사건을 일으킨 손오공이 어떻게 사건을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네요. 물론 손오공 성미에 쉽게 잘못 인정하고 머리 숙일 리야 없겠지요. 술법을 써서 살그머니 빠져 나오고 또 열심히 달아나지요. 그리곤 하늘세상에서 강의 마치고 돌아온 진원대선의 추격을 받아 잡혀오는 이야기……. 위에 쓰인 거 잘 읽어 보셨지요? 그런데 진원대선의 술법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수리건곤(袖裏乾坤)이라, 소맷자락 속에 하늘땅을 담는다는 뜻이겠지요? 여러 무협소설이라든가 신비한 이야기 속에 종종 등장하는 술법입니다. 여기 서유기에선 진원대선의 장기로 등장하네요. 진원대선은 어떤 존재였던가요? 세상과 더불어 아득한 시원에서부터 있던 존재, 신선들의 조상쯤 되는 분이지요. 그런 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세상은 정말 작고도 좁은 세계 아닐까요? 그러니 그 세계 소맷자락 속에 휘익 쓸어 담을 수 있는 신통한 재주를 지닐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열심히 했었지요? 여기서는 공간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군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 또한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체험 속에서도 가끔 생생하게 느껴져 오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초등학교 시절의 그 넓게 여겨지던 운동장이 이리도 좁았던가를, 절절하게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그리도 높게 여겨지던 산이 저렇게 낮았던가 하는, 그리도 먼 거리에 있던 것 같던 것이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경한 느낌을 가져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공간 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존재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단지 느낌이 아니지요. 크다 작다는 것은 상대적이니까, 작은 존재에게는 큰 것이 큰 존재에게는 작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개미에게 넓고도 큰 공간이 사람에게도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진원대선과 같은 위대한 존재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 정도는 소매 속에 휙 쓸어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구(對句)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소매 속 하늘땅이 크기도 하고, 표주박 속의 세월이 길기도 하여라"(袖裏乾坤大, 壺中日月長)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혹시 소매 속의 세상은 아닐까? 또 표주박 속에서 애증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나요? 그런 세상을 넘어서 훌쩍 날아오르고 싶은 꿈을 꾸신 적은 없나요? 터무니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비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시민적인 삶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초연한 자세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삶을 덧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중하기에 오히려 그 의미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손오공이 기가 막혀'를 시작하면서 삼쾌선생이 멋들어지게 읊조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풍속이러니~"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 잠시 머물다가는, 큰 바다 속의 좁쌀과 같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하염없이 싫증내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불퇴전의 자세…….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요. 하하. 자기 얼굴에 너무 금칠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걸 불교 집안에서는 개금불사라고 한다구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잘난 제 모습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개금불사라고 하시는 님의 마음이 문제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완전 구제불능의 자아도취증으로 몰리겠군요. 그렇지만 잘난 진면목을 계속 드러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삼쾌선생! 다음 시간에 그런 삼쾌선생의 노력을 살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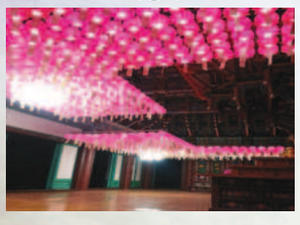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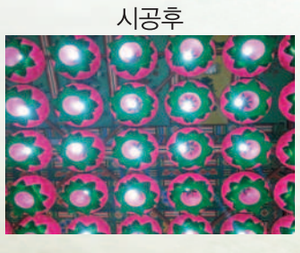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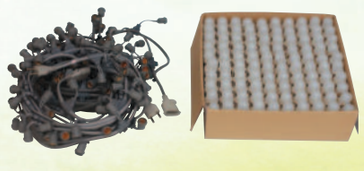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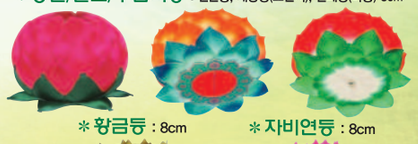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수행과 자비행은 양 날개… 조화롭게 정진해야”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② 조계종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금강경〉에 ‘유지계수복자(有持戒修福者)’라는 경구가 있다. 즉,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공양하고 예경한다고 한다. 반야지혜를 닦는 공부인(工夫人)의 복이야말로 무량한 복덕이다. 세속욕망에 갇혀 탐진치 삼독에 얽매여 살면서 문득 세속 욕망을 다 버리고 오롯이 반야지혜를 닦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것이다.

진리에 귀의하는 수행과 나눔의 공동체 ‘정법빠리사’는 국내외 선지식을 찾는 108선지식 구도순례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1차에는 학림사 오등선원을 찾아 구도 순례를 했다. 2번째로 찾은 선지식은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 주석하면서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회 이사장 소임도 맡고 계신 의정 스님이었다.

1월 29일 오후 5시에 상원사에 도착하니 용문산을 휘감는 기운이 청량했다. 며칠째 몰아닥친 한파가 가시고 그 매서움 대신 서늘하면서도 청아한 기운이 상쾌했다.

사무장의 안내로 정갈한 저녁공양을 마치고 시민선원 객방에 짐을 풀었다. 이후 선원장 의정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은 반갑게 웃으며 차를 내어주셨다. 온 방이 차향으로 가득하다. 창밖으로 좌청우백과 함께 저 멀리 주산이 고요하게 펼쳐진다. 참 담백하면서도 웅혼한 풍광이다.

차담이 시작되었다. 얼마 전 10여 명의 선원장 스님들과 유럽 3개국에 선불교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한다. 한국불교의 심장인 간화선을 국제화하기 위해 봉암사에 국제선센터를 건립할 계획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스님의 맑은 모습에 담긴 은은한 미소 속에 결연한 첫 마음이 담겨있다. 초심이 시작과 끝이라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한국 선불교의 활발발한 모습이 스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면서 방을 나와 시민선원 방에 앉아 화두를 가만히 들었다.

1월 30일 오후에 반가운 도반들이 도착했다. 이내 함께 법당으로 올라가 108참회와 절, 아비라기도를 하고 시민선방 대중방에서 선감 보석 스님으로부터 수행에 대한 긴요한 설명을 들었다.

보석 스님은 “섭생과 자세, 마음을 바르고 맑게 하여 정(精)과 기(氣), 신(身)을 잘 순환해 수행을 여법하게 하라”면서 구체적이면서 소소한 지침들까지 설명했다.

이어진 철야정진. 편안하고 깨끗한 기운이 선방에 가득하다. 연로한 몇몇 도반은 와선을 위해 조용히 나가시고 새벽3시 예불전까지 정진하고 밖으로 나왔다. 도반들과 함께 저멀리 하늘을 보니 연꽃같은 달빛이 오렌지 색으로 빛나며 곱게 비추고 있다. 도반들의 탄성 속에 새벽의 푸른공기를 가르는 목탁소리가 오히려 은은하게 들린다. 개운함 속에 맞이한 아침과 함께 의정 스님의 소참법문이 시작된다.



정법빠리사 회원들이 상원사 용문선원 시민선방에서 선감 보석 스님의 지도하에 수행 정진하고 있다.



의정 스님은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1974년에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를 수지했다. 1976년에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신 후 극락암, 송광사, 운문암, 봉암사, 태안사 등 제방성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60여 안거를 성만했다. 2001년부터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 주석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전국 선원 수좌들의 복지와 교육, 선 포교를 위한 재단법인 조계종전국선원 수좌복지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파 지나 만난 도반들과 함께
선지식 의정 스님 친견 · 구도행
철야정진하며 참선수행에 매진

의정 스님, 수행 · 실천 모두 강조
“수행과 자비실천 병행이 中道
봉암사에 국제선센터 건립할 것”



정법빠리사 회원들은 1월 29~30일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 주석하고 있는 의정 스님(사진 가운데)을 친견하고 수행 정진했다.

의정 스님은 “우리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양 날개로 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승의 핵심은 번뇌 속에서 번뇌를 여의지 않고 보리심으로 발하며, 생사 속에서 생사를 여의지 않고, 중생 속에서 중생을 여의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불교의 풍토는 지혜에 치중하고 자비의 실천에 등한시 해왔습니다. 저도 정진 욕심에 60세 이전에는 어떠한 법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상에 올라서는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법빠리사 도반 여러분들처럼 수행과 자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과 동체대비행을 실천하는 양 날개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행에 대한 궁금함에 질문이 쏟아졌고, 의정 스님은 막힘없는 답변을 내놓으셨다.

정은용 정법빠리사 대표가 청규를 지키는 운동에 대해 묻자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는 선방의 수행 지침과도 같다”면서 “제방 선원이 청규를 잘 지켜 21세기 한국불교의 선 풍토를 개선하고 수행문화를 발전, 정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 선원에서 위빠사나 등의 수행 방법들이 행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방의 납자들 중 반 정도는 자기 방식의 수행법을 택해 정진하고 있다. 방편상 공존해야 한다”면서도 “위빠사나는 정과 혜를 별도로 공부해야 하지만 간화선은 부처님 당시의 관법이 중국에 건너가 진화 · 발달된 수행법으로 1700개 공안이 하나만 꿰면 정 · 혜가 동시에 오는 가장 수승한 수행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가 안되니 모르고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가르치기 쉽게 제대로 간화선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시간여의 소참법문과 문답이 끝나고 이번 순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환희심에 넘쳐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수덕 지도법사는 “불교공부를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앞으로 자주 참여해 정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계율이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음식과 관련이 있다. 먹은 육식의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정체하는 기간이 길다. 육식은 피해야 한다. 수행의 반은 음식이다”며 육식의 절제를 강조했다.

조화제 도반은 “불교에 입문한지 40여년이 되었다. 그동안 무릎이 좋지 않아 정진을 잘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간 내서 동참하겠다. 의정 스님의 진솔한 말씀이 감명 깊었다. 주변에도 알려 구도순례에 동참토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순례를 통해 발심하고자 했다는 최재한 도반은 “간화선에 대해 맛을 봤으니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싶다”고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수련행 박수연 도반은 “수행법에 대해 보석 스님이 자세히 알려주어 도움이 됐다.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좋았다. 앞으로 3군데 사찰에 들려 참배하고 가면 더욱 좋겠다”고 건의를 하기도 했다.

수행의 반은 도반이라는 말이 새삼 느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의 요체는 불성(佛性)사상과 반야(般若)사상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중도로 융화시켰다는 스님의 말씀을 되뇌인다.

중도의 삶을 향해 나 혼자만이 아닌 도반들과 함께하는 수행을 하겠다는 원력을 다지며, 법당에 올라가 삼배를 드리고 나오니 구름속에 가렸던 따스한 빛이 경내에 가득하다.

정리=석준 이남재 운영책임도반

정법빠리사 3차 108선지식 구도순례

일시 : 2016년 4월 2(토)~3(일)
장소 : 경북 봉화 축서사
법문 : 무여 스님
문의 :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010-5217-2878)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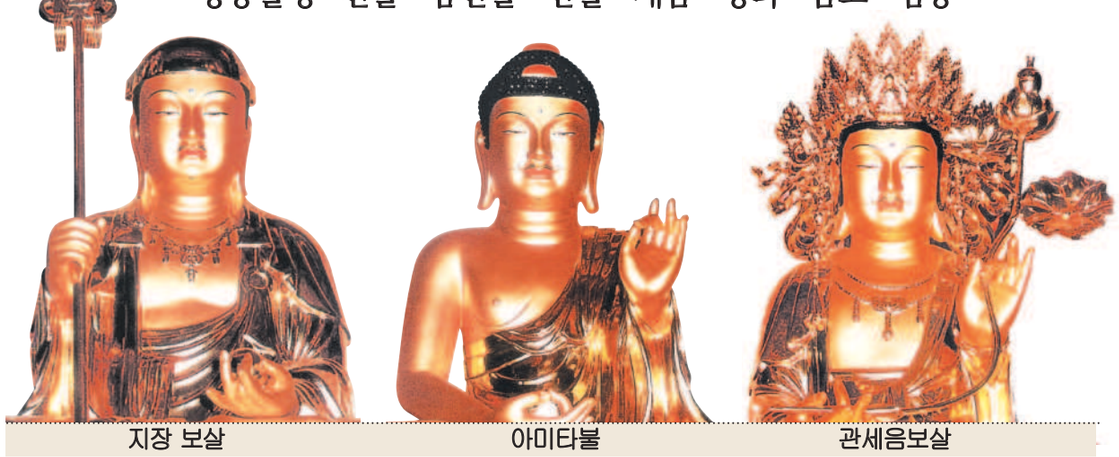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일본 직수입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난세 속 불교 감수성 잃지 않은 문장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⑮ 백주 이명한

백주 이명한(白洲 李明漢, 1595~1645)은 조선의 문장가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아들로, 그 또한 시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이미 어려서부터 문재(文才)를 드러냈던 그는 16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1616년에 전시(殿試)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 그가 전적(田籍)이란 6품 벼슬에 오른 것은 주청사(奏請使)로 공을 세운 아버지 이정구의 공로 때문이었다. 이후 공조좌랑에 제수되었고 대사헌 · 도승지 · 대제학 · 이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내외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특히 병자호란 때에 척화파로 지명된 그는 최명길, 김상헌, 이경여, 신익성 등과 함께 심양에 잡혀가 억류되었다가 이듬해에 돌아오는 수모를 당한 일이나, 1645년 명나라와 밀통하는 자문(咨文)을 썼다는 이유로 다시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수모를 겪게 된 것도 국력이 쇠락했던 시절에 겪어야 하는 약소국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런 혼란의 시절 속에서도 그의 문장은 빛났다. 김상헌이 쓴 〈백주집〉 후발(後跋)에는 그의 문장에 특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칠양(七襄)이 무늬를 이루기를 기약하고, 홍원(洪源)이 강과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아, 신채(神采)가 혁혁하게 빛나고 음조가 맑고 밝게 울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의 시는 천부적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하였으니 비단 뜰을 지나가는 사이에 들은 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동류끼리 접촉하여 확장시키고 이끌어서 폈다.(七襄之期於成章也 洪源之達乎江海也 奕奕乎其神采也 瀏瀏乎其音調也 或曰公之詩天得爲多 不但出於過庭之聞 觸類而長之 引而伸之)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으로 성숙된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에서 나왔다는 것이 김상헌이 평가한 백주의 문장세계였던 셈이다.

이처럼 웅혼하고 청절(淸切)했던 그의 문장은 당대(唐代)의 문장가 한유(韓愈, 768~824)에서 영향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포만필(西浦漫筆)〉에 "아버지 이정구는 백주가 어렸을 적에 한유의 '남산시(南山詩)'를 천 번이나 읽게 했다"고 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어떤 관료보다도 많은 승려들과 교유했으며 여러 사찰을 순례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문집 〈백주집〉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월정사의 설청상인(雪淸上人), 탄균상인(坦均上人), 선기상인(善奇上人) 등 50여 명이 넘는 승려들과 교유했을 뿐 아니라 일본 승려들과도 교유했던 흔적이 보인다. 특히 그가 편양당 언기대사의 비문(鞭羊堂彦機大師碑)을 썼던 사실에서도 폭넓은 승려들과의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그의 나이 46세에 금강산과 영동(嶺東)의 명승지를 유람한 바가 있고, 양주 수락산 승려 대주상인(大珠上人)에게 지어준 시의 소서(小敍)에는 옥경 승려와 대주 스님과의 인연이 시를 통해 맺어졌던 내력을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것은 내가 1624년 겨울에 양주의 수락산사에 이르러 옥경 스님에게 지어 준 것이다. 당시에 승려들과 납주(臘酒)를 마시며 취중에 붓 가는 대로 쓴 것인데 글을 쓴 후로는 다시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 풍악산에서 수행하는 대주 스님이 원주의 진영으로 나를 찾아와 옷소매에서 이 시를 꺼내며 말하길 우연히 충주 폐사의 판벽 먼지 속에서 오래된 종이 하나를 얻었는데 종이 말미에 공의 호가 쓰여 있었기에 가져와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아! 지금부터 갑자년과의 거리는 이미 17년이 지났으니 옥경 스님과 수락산에서 교유했던 것이 어느 해이며 이 시가 다른 절에 유전되었고 몇 번이나 열람되었는지도 몰랐다. 처음 양주에서 지었는데 갑자기 원주에서 만난 것이며 처음 이 시를 얻은 자는 옥경 스님이고 후에 (이 시를) 소유한 것은 대주 스님이다. 이런 모든 사람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겠는가. 종이의 형태는 켜켜이 묵힌 오래된 것이고 먹빛이 오래되면 더럽혀지고 사라질 것이며 조금 더 오래되면 그 글자의 자획을 구별할 수 없으리라. 이 종이가 묵혀진 것이 이와 같으니 이 종이에 쓴 것이 어찌 삭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종이를 바꾸어 써서 주노라.(此吾於天啓甲子冬 到楊州之水洛山寺 贈玉瓊師作也 時當歲時 飮僧臘酒 醉中信筆以書 書後不復記也 今者楓岳山人大珠訪我於原州之營 自袖出此詩曰 偶於忠州廢寺 得一故紙於板壁塵埃之中 見紙末有公號 故持而來獻云 噫 今之去甲子十七年矣 不知瓊師之西遊在何年而此詩之流轉他寺 又閱幾番也 始作於楊州而忽遇於原州 初得者瓊師而後有者珠師 此皆人事之預料者乎 紙樣陳久 墨色漫滅 稍久則將不能辨其字ø此紙之陳久如此 書此紙者安得不老 遂易紙書以贈)

어려서부터 文才 기질 드러내
사찰 순례 · 승려 교유 빈번
스님들에게 증표로 詩 써주며
산사 풍광 아름답게 표현해

백주가 처음 양주의 수락산사를 찾아간 것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였다. 그는 옥경 스님뿐 아니라 이곳에서 수행하는 승려들과 납주(臘酒, 섣달에 담가서 해를 묵혀 떠낸 술로 혹은 노주(老酒)라고도 한다)를 마시며 마음껏 담소하며 청담을 나눴을 것이다. 이들은 신분과 학문적 취향도 잊은 채 의기투합하여 술에도 취하고 시에 취해 마음가는대로 글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아름다운 고회(高會)는 그의 기억에 오래도록 각인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아온 대주 스님에 의해 17년 전에 쓴 자신의 시를 다시 보게 된 것이니 그 감회는 깊고도 새로웠을 것이다. 실제 대주 스님이 원주 감영으로 백주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는 백주가 1639년 강원감사로 있었고 1640년경에 금강산과 영동을 유람했다는 사실에서 백주가 대주 스님을 만난 것은 1640년경이라 짐작된다. 당시 백주는 자신을 찾아 온 대주 스님에게 〈증대주상인(贈大珠上人)〉을 지어 증표(證表)로 주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석경 소리 듣자니
(曉起聞淸磬)
성근 별빛이 석등에 어렸지
(疏星映佛燈)
이불로 몸을 싸고 술잔을 기울이자니
(擁衾傾白酒)
술 마시길 탐낸 건 산승에게 부끄럽네
(耽飮愧山僧)

수락산사는 고요함이 고여 있던 사찰이었던가 보다. 그렇기에 새벽의 성근 별빛이 석등에 어렸다고 하니 적요한 산사의 풍광을 시 속에 담아냈다. 아울러 납주를 마시기에 몰입된 속객, 즉 술에 탐닉했던 젊은 날의 백주였다. 이미 17년이 지난 후 당시를 회상하니 자신의 속된 탐욕이 못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이 시는 17년 전을 회상하여 쓴 시였다.

이어 그의 '외원암에 머물며(宿外院庵)'라는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온갖 삿된 생각이 다 고요해진 곳엔
(萬念俱寂處)
한 올의 티끌도 일어나지 않은 때이라
(一塵不生時)
그윽한 향기 그리고 맑디맑은 석경소리
(淸香與淸磬)
소리와 향기, 서로 어우러져 아름답구나
(聲氣兩相宜)

그가 찾았던 외원암이 어디에 있었던 암자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 그가 유람했던 금강산이나 영동(嶺東)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절일지도 모른다. 이곳은 분명 속인의 모든 삿된 망상이 잦아들게 하는 곳이었기에 절에서 듣는 석경소리는 속진에 찌든 속인의 마음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으리라. 더구나 그윽한 향이 주변의 속기를 정화한 외원암은 백주가 묵었던 아름다운 절이었기에 선미(禪味)를 맛보기에 충분했을 터이다.

그가 '어떤 스님의 시권에 쓴 시(修上人卷)'는 적요(寂廖)한 암자의 자연스런 공간의 소박함을 충분히 드러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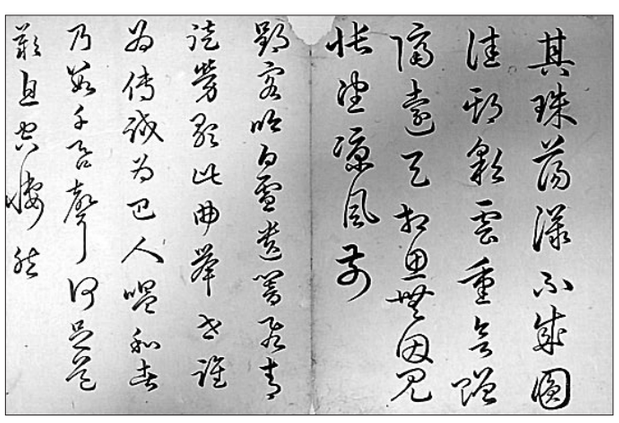
산인은 지금 백련산에 있겠거니
(山人今在白蓮山)
깊은 산,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라
(好是山深花發處)
오히려 속인에게 시구를 청하고 돌아가니
(猶向人間乞句還)
시인의 말을 기다리는 건, 바로 산꽃이라
(山花定待詩人語)

그와 교유했던 산인, 즉 승려는 백련산의 수행자인 듯하다. 그곳은 산이 깊고 꽃이 피는 승경지였다. 그런 곳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백주 같은 속인에게 "시구를 청하고 돌아가니 아마 그의 시를 기다리는 건 산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의 시구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산꽃이랴. 티끌도 없는 깊은 산 속에 사는 꽃은 삿됨이나 속진에 때 묻지 않은 수행자이리니 그가 시문에 능하다는 말은 이런 대목에서 나타난다. 난세의 혼란 속에서도 시인의 감수성을 잃지 않았던 백주의 결기는 무엇에서 근원한 것일까. 사찰을 순례하고 수많은 승려와 교유했던 그의 품성은 분명 요순(堯舜)의 후예였던 것일까. 이런 그의 근기는 후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 또 다른 불교와의 인연은 그가 '언기대사비(彦機大師碑)'를 쓴 연유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당시 이름난 문장가였다는 사실에 외에도 편양언기의 제자인 의신(義信)과 석민, 열청과의 인연 때문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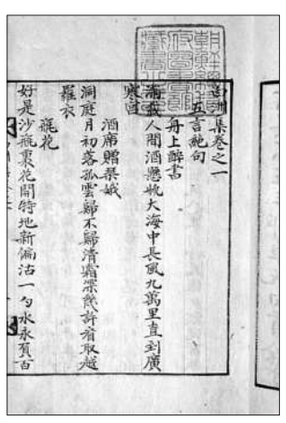
지면관계상 장문의 비문을 다 소개하기는 어려워서 이 비문 말미의 명왈(銘曰)만을 소개하면 "내원암이여(內院之庵兮) 스승과 스승에 스승이 함께 입적한 곳이라(師與師之師同入寂也) 백화의 비석이여(白華之石兮) 스승과 스승에 스승의 자취를 함께 기록했네(師與師之師同記蹟也) 금강산의 묘향은 만고에도 늘 그렇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香山楓岳亘萬古而長存兮) 스승과 스승에 스승의 이름이 끝없이 함께 전해지리(師與師之師同流名於無極)"라고 노래했다. 백화(白華)는 장안사와 표훈사 사이에 위치한 절의 이름이다(長安 表訓間有一寺 名白華). 서산이 새로 창건한 절이라고 한다(爲西山新 ㅠ也). 지금 우리는 금강산 장안사와 표훈사 사이에 위치한 백화사를 가 볼 수는 없지만 백주의 '언기대사비(彦機大師碑)'에 수록된 이 글은 언기 스님의 제자들이 염원한 대로 길이길이 남아 후세에도 읊어질 명문이라 하겠다. 백주는 이명한의 호이며 천장(天章)은 그의 자이다. 그는 저서로 〈백주집〉을 남겼다.



백주 이명한이 순례했던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이며 한국전쟁 때 불 타 현재는 축대 · 비석 등만 남아있다.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명한이 남긴 친필 글씨. 일부만 남아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편지글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한의 저서 〈백주집〉.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니까야서 길을 묻다 5. 계율 정신의 근원②

붓다에게 持戒의 완성 물은 니그로다

현존하는 불교 계율에 관한 정보는 모두 〈율장(律藏)〉에 들어 있다. 여기서 '장(藏)'이란 부처님 당시에는 물건을 담는 '바구니(piṭaka)'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동아시아권에서는 한자어 그대로 '창고'를 뜻한다. 이른바 계율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불교의 '계율 정신'을 찾고자 할 경우, 〈율장(律藏)〉을 근간으로 오계(五戒)를 비롯하여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수백에 이르는(비구 250계, 비구니 340계) 계율의 조항들을 속속들이 읽어보면 곧바로 알게 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 지킴(持戒)'의 길에서 현실주의적 태도와 근본주의적 태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율 정신'의 근원을 모색하는 일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계율 정신'이란 불교 안의 사람들에게는 '계율 지킴'의 동기와 이유를 확립하는 일이요, 불교 밖의 사람들에게는 불교사상의 대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를 확보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율장(律藏)〉의 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독해가 선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니까야〉에 서술되어 있는 계율관련 내용을 잘 검토해보면 그 정신을 파악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불교 밖의 종교인들과 수행자들이 어떤 계율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이상을 추구했는가? 또 그와 같은 계율 조항의 내용이나 지킴의 태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견해와 관점에 서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나서는 일을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선택하면 '계율 정신'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가-니까야〉의 스물다섯 번째인 '우둠바리까(Udumbarikā) 사자후' 경의 내용이 이 문제를 푸는 데 길잡이가 될 만하다.

우둠바리까 숲에 머무르고 있던 어떤 수행자 무리들이 재가불교도 '산다나'가 방문하자 부처님을 폄하하다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부처님과 대론(對論)을 시작하게 된다는 배경으로 경전의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들 무리를 이끌고 있는 '니그로다'가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고행(tapas)에 의거한 금욕생활(jigucch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하면서 '계율 정신'의 문제가 중심 화제로 떠오른다.

경전의 서술에 따르면, '니그로다'가 이끄는 수행자 무리들은 매우 엄격한 계율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나체 상태로 수련하고 거친 옷감으로만 옷을 만들어 입는 모습을 비롯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행위, 앉지 않고 서 있기, 쪼그려 앉아 있기, 가시 침대 사용' 등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고행을 종교 실천수행의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엄격한 고행의 모습은 매우 까다로운 식사규정에서 좀 더 잘 드러난다. 즉, '음식 초청에 응하지 않음,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음, 술을 마시지 않음, 풀뿌리나 떨어진 열매 등으로 식사' 등의 규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는 모습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그야말로 도인의 풍모가 보인다고 인정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그들이 부처님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킴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금욕생활의 완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다분히 자신들의 계율 지킴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내보이며 불교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서 불교의 계율 정신의 하나의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림 · 양경수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그대는 如如한 내 삶이자 스승"…

道伴의 향기

재가활동가 부부 윤남진 · 한주영 씨

누구에게나 한 명쯤 소중한 도반(道伴)이 있기 마련이다.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벗'을 뜻하기에 단순한 친구와는 무게감부터 다르다. 부처님도 전생에 불법(佛法)에 관심 없는 바라문 조띠빨라였을 때 친한 도반 가띠까라의 거듭된 권유로 깟사빠 부처님에게 진리의 법을 들을 수 있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7천겁의 인연을 쌓아야 이뤄지는 부부가 서로 도반인 경우, 그 인연은 얼마나 소중할까?

재가활동가 부부인 윤남진(49 ·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상임위원), 한주영(47 ·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씨는 20년 넘도록 서로 격려하고 의지해온 참 도반이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과정이 마치 드라마에나 나올 만큼 독특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은 정반대다. 2월 1일 오후,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족한 방석을 서로 양보하는 모습에서부터 '도반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1980년대 불교가 좋아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윤남진 · 한주영 씨 부부. 각각 85학번 · 87학번 선후배인 이들 부부는 20년 넘도록 불교시민사회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서로를 참 도반으로 여기는 두 사람은 "불교공부 덕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했다. 특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진정한 도반이 되기까지

남편 윤 씨는 충북 음성 출신이다. 집안은 불교를 믿었지만 그 시절 굿도 하고, 불상과 산신령을 함께 모신 '시골 누구나의 절'을 다녔다. 그 절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 윤 씨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그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이었는지 문득 삶에서 무의미함을 느꼈다.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 싫었다. 그래서 주말이면 우암산 자락의 고즈넉한 사찰을 찾아 혼자만의 사색을 즐겼다. 선생님은 그런 그에게 고등불교학생회 가입을 권유했다. 그렇게 윤 씨는 불교에 심취했다.

"당시 도심포교에 일찍 깨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많이 매진하셨어요. 그때는 초파일 제등행렬 때 등을 만들어 시상도 했죠.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요. 불교를 알아가면서부터는 교회 · 성당 다니는 친한 친구들과 종교에 관해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삶의 허무를 얘기하면 친구는 구약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을 했었죠."

윤 씨는 철없던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삶의 허무를 논한 것이 민망했는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윤 씨와 달리 부인 한 씨는 철저한 불교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불교학생회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한 씨는 자다가 일어나면 부모님이 화엄이나 법화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일상처럼 봐왔단다. 그녀에게 불교 가르침은 당연히 가장 수승한 것이었다.

"저는 모태신앙이 불교였어요. 항상 불교 가르침이 최고라는 얘기를 들으며 컸을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남편은 '자발적 발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두 사람은 동국대학교라는 공통분모 아래서 인연을 맺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은 많이 다르지만.

불교에 심취해 불교학과에 진학하고 싶었던 윤 씨는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나이 50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 스님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다. 단식투쟁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부모의 반대에 윤 씨는 조계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합격 가능성이 낮은 경찰행정학과를 1지망에 적고, 2 · 3지망을 각각 국문학과와 불교학과로 정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과는 달리 애석하게도 경찰행정학과에 턱걸이로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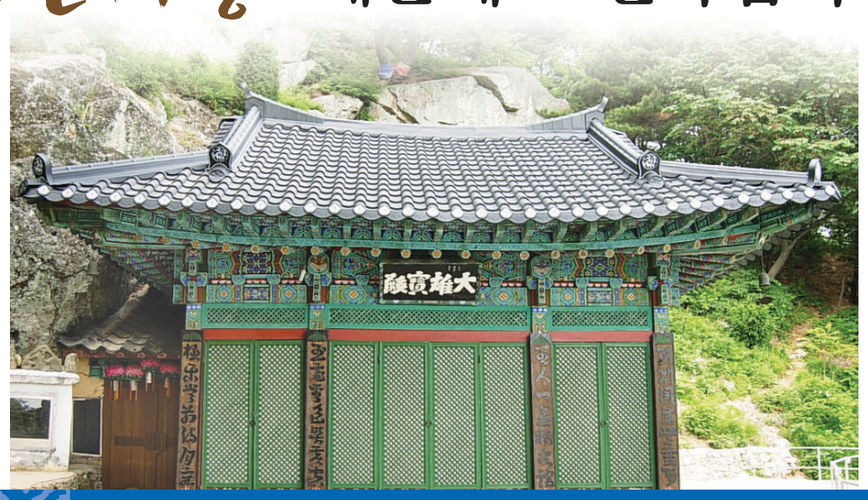
한 씨는 불교학과에 진학하는 데 장애물이 없었다. 부모는 두 손 들어 환영했다. 다만 친척들의 반대가 심할 것을 예상해 한동안은 수학과를 다닌다고 거짓말했을 뿐이다. "부모님이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분들이셔서 현실감각이 없다"며 농을 던지는 한 씨 얼굴에는 그런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났다.

동국대 85학번인 윤 씨는 대학시절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수십 번의 집회를 주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목포교도소는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하는데 우연도 인연이었는지 한 씨의 고향이 일로읍이었다. 한 씨는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던 지인이 "네 학교선배가 교도소에서 고생하는데 고향 가는 길에 면회 좀 가달라"고 부탁하자 일면식도 없는 윤 씨를 만나기 위해 난생 처음 교도소를 방문했다. 첫 방문에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단박에 거절당한 한 씨, 이후 윤 씨 누나와의 연락을 통해 두 번째 방문에 겨우 면회를 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아마도 제가 필요한 걸 부탁만 했던 것 같아요…."

윤 씨는 한 씨와의 첫 대면이 기억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씨도 "나도 생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4GB불경SD카드+1200AM베터리+USB충전케이블+충전아답터+불경목록+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천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불교시민사회 운동 同業

각이 안 난다"며 웃었다.

두 사람은 이후 편지와 불교서적을 주고받으며 교류했다. 청춘남녀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흘렀을 법도 하건만 이들은 정말 불교 관련 내용만 얘기했단다. 불교에 심취해 출가에 관심을 가진 청년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던 아가씨의 만남은 퍽 무미건조했다.

2년 8개월 후, 윤 씨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특사로 감옥을 벗어났다. 옥살이를 마친 뒤 만난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 많이 야위어있었다. 윤 씨는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 씨에게 프러포즈했다. 한 씨는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다"며 결혼하자는 윤 씨의 고백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출가에 대한 염원도 있었고, 세속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어서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프러포즈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더군요. 사실 당시 남편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들였죠."

1994년 4월 17일을 결혼날짜로 정한 두 사람. 하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승려대회가 열렸다. 당시 윤 씨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승려대회 후 범불교도대회가 열리고, 개혁회의가 만들어지면서 극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물론 결혼식 준비는 한 씨가 도맡아 해야 했고, 윤 씨는 결혼식 전날 링거 두 대를 맞고서야 겨우 식장에 설 수 있었지만.

함께 불교공부하며 성장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컸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은 뒤에도 늘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MBTI 성격유형검사 결과서도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이 다른 두 사람이지만 불교사상 공부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었다. 독서와 분석 · 기획을 좋아하는 윤 씨와 생명 · 평화 · 수행에 가치를 두는 한 씨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불도(佛道)를 닦았다.

"사실은 제가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는 전공이 불교가 아니었고, 아내는 불교공부를 하며 석사를 받았으니 가방끈 길이의 차이가 꽤 컸으니까요. 주로 불교서적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편인데 덕분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윤 씨는 불교계 활동에 있어 부인의 도움이 크다며 한 씨를 지긋이 바라봤다. 그러자 한 씨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계 흐름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한다"며 "알게 모르게 약간의 경쟁심리가 있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 씨의 영향이었는지 윤 씨는 3~4년 전부터 간화선 수행을 시작했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평소 자주 하진 않지만 윤 씨는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란다. 이들 부부는 불교공부 외에 농사에도 열심이다. 농촌출신인 두 사람은 결혼 후 시골에서 농사하는 부모님을 주말마다 찾아 일손을 도왔다. 귀농을 꿈꾸며 서울 불광동에서 텃밭을 가꾸던 것을 파주 광탄면에 땅을 빌려 주말농장으로 키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8년 종단사태를 지켜보며 승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종단개혁이 있은 지 고작 4년 남짓, 청정승가에 대한 염원은 곧 염세로 변했다. 귀농에 대한 꿈은 더욱 깊어졌고,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귀농학교를 수료하기도 했다. 이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어려서부터 불교 심취 · 동국대 진학

민주화운동 중 교도소 수감된 윤 씨

지인 도움으로 한 씨와 면회 후 인연

윤 씨, 2008년 조계종 부대변인 겸 홍보

여성불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한 씨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창립에 함께참여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처럼 세속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는 이들 부부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등을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로 불교계가 들끓을 당시, 윤 씨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부대변인 겸 기획홍보 등을 맡고 있었다. 그는 11월 대구경북대회를 앞두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만40세 생애전환주기를 맞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평소 병원에 잘 다니지 않는 그였지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소속 단체에 벌금이 부과되기에 억지로 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초기 위암을 진단받았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수술 전날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윤 씨에게 부인 한 씨는 "부처님도 노구를 이끌고 중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용기를 북돋았다.

"암은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병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인지 현실을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죠.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면서 또 다른 무언가의 원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 잘못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불법(佛法)을 공부한 덕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한 씨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묵직했다. 생(生)과 사(死)가 둘이 아니기에 여여(如如)하고자 노력한다고.

다양한 삶의 고난을 헤쳐 온 이들 부부는 최근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창립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는 부처님께서 60명의 비구에게 당부했던 전법선언의 정신이 현대사회에 흐려져 이를 되살리고자 하는 사부대중 연대의 장이다. 이 단체는 △신대승불교운동과 아시아 평화공동체 미래전략 개발 △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과 발전 △불교 가치를 소통하는 문화 형성 △불교시민사회 및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목표로 한다. 20여 년간 불교시민사회단체에 몸 담아왔던 두 사람은 귀농 전이를 통해 불교계에 마지막으로 회향하고자 한다.

"새로운 불교인데 불교라는 이름조차 없어도 괜찮을 정도의 불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자는 거죠. 불교 · 비불교 · 출가자 · 재가자 구분 없이 지금 시대의 언어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라는 좋은 보배를 제대로 활용해서 참된 가르침이나 삶 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를 맑히는 데 마지막으로 힘을 쓰려 합니다." 이들 부부의 다짐이다.

외로운 삶의 길에서 함께 걸을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다. 도반은 단순히 고독을 달래는 유희가 아니라 스스로를 반조할 수 있는 거울이요, 삿된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스승이다. 세상 무엇보다 짙은 부부의 연으로 도반의 길을 걷는 윤남진 · 한주영 씨. 세속을 멀리한 이들의 맑디맑은 서원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는 따끔한 가르침이 되길 기대해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서의현 前조계종 총무원장 재심결정에 대한 94년 종단개혁 동참 재가자들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윤남진 씨(사진 맨 왼쪽).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주영 씨(사진 맨 왼쪽)는 지난해 본지가 실시한 2015감사편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법일기

옛 이야기해도 눈물 안 나요

약초 공부 모임에 가는 길이었다. 가로수에 아슬아슬하게 얹힌 까치둥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 추운 날 새들은 어디에서 먹이를 구하고 언 몸을 녹일까. 차가운 하늘을 헤매고 다닐 작은 새를 생각하니 불현듯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들었다. 측은지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불교의 '자비'다.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슬퍼하는 마음이다. 사찰음식은 자비를 깨우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지방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알아보겠느냐고 했다. 어릴 적 고향 친구였다. 그녀는 방송에서 내가 스님이 되었음을 알았지만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단발머리 소녀를 초로의 여인과



그림 · 박구원

스님으로 만든 세월이 서운하게 느껴진 것도 잠시, 나는 그녀가 녹록지 않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딸 둘과 살았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기에 온갖 일을 마다 않고 했다.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그러나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모녀 사이는 조금씩 어긋났다. 편모슬하라는 말이 듣기 싫어 뭐든 최고로 잘하라고 다그친 것이 딸에게는 억압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회초리까지 들었지만 딸은 성년이 된 뒤에는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도 오십이 훌쩍 넘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주름과 흰머리가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를 악물고 살았던 세월이 허무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눈물만 나던 차에 나를 우연히 만난 것이다. 연신 눈물을 찍어내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힘든 세월을 살아냈으니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면 따님에게 사찰음식을 배워 보라고 권해 보세요."

얼마 뒤 친구로부터 딸이 사찰음식 강의를 신청해 듣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일부러 친구의 딸을 알은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스님, 고마워요. 스님 강의 듣더니 나보고 밖에서 나쁜 음식을 사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나를 걱정해주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나는 무엇이 딸아이를 변하게 했을까 생각했다. 무엇이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했을까. 사찰음식은 재료를 다루고 만들고 먹기까지 오롯이 다른 생명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다. '나'라는 생명은 유일무이하지만, 또 다른 생명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특별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

친구의 딸은 아마도 자신이 직접 요리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손길, 엄마의 슬픔과 상처를 헤아리지 않았을까. 직접 밥을 지으면서, 지난날 크게 다투고 난 뒤에도 어김없이 따듯한 밥을 해서 먹이려던 엄마의 마음을 떠올렸을 테고, 그 밥에 손도 대지 않고 차갑게 엄마를 쏘아보던 자신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던 엄마의 시간들을 그제야 정면으로 마주보았을지도 모른다. 그 엄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딸은 "몸에 해로운 음식은 그만 드세요"라고 에둘러 말한 것이리라.

딸이 수료를 한 다음에는 엄마가 이어서 강의를 들었다. 언젠가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님, 예전에는 옛날이야기를 하려면 눈물부터 솟았는데 이제는 눈물이 안 납니다." 비로소 그녀는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연등(등표)사다리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법당,외곽,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始覺의 네 가지 단계

〈시각〉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 단계적인 차별이 있다. 이를 지위점차(地位漸次)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범부의 지위에서 부처가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52위 혹은 55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상례다. 〈능엄경〉에서는 60위로 말하기도 한다.

〈기신론〉에서는 시각사위(始覺四位)라 하여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究竟覺)과 불완전한 깨달음(非究竟覺)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수행을 시작하는 범부들이 아직 최하위 수행단계에서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여 더 이상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범부의 깨달음(凡夫覺)이라 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바로 아는 정도의 자각이 일어난 상태에도 깨달음이란 말을 붙인다. 물론 이는 도를 체험한 분상의 깨달음은 아니다. 십신위(十信位)에 해당하는 수행단계다. 일념 속에 일어나는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사상(四相) 중 멸상을 깨닫는 단계를 말한다. 멸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신체적 행위나 언어적 행위, 다시 말해 신업과 구업의 나쁜 행위가 멈춰지는 것을 말한다.

성문이나 연각들의 관하는 지혜와 처음 뜻을 편 보살들은 생각의 달라짐을 깨달아서 생각에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진다. 거친 분별과 집착을 버린 까닭에 '비슷한 깨달음' (相似覺)이라 한다. 이승들과 초발의 보살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깨달음도 완전·불완전으로 나눠
미세 망념마저 없는 게 '구경각'
"無念 관하면 부처님 지혜 향하리"

번뇌의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異相)이 없어지므로 자아에 대한 고집을 갖는 아견(我見)이 없어진다고 한다.

'거친 분별'이란 미세한 분별보다 끊기 쉬운 번뇌로 이것저것을 구별하여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이 없어지면 표면상으로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와 비슷한 경지가 나타나는데 이를 상사각(相似覺)이라 한다. 이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의 삼현(三賢)의 수행지위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다.

십지(十地)의 수행지위에 오른 보살들은 생각이 머무는 것(住相)을 깨달아서 생각이 머무는 모습이 없어진다.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모습을 떼어낸 까닭에 '분을 따라 본각에 가까워지는 깨달음(隨分覺)'이라 한다. 주상(住相)이란 마음에 생각이 머물러 단단한 고집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아집(我執)을 이루어 모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된다. 나를 모르는 어리석음(我癡)과 나를 내세우는 고집(我見), 나만을 중히 여기는 생각(我愛), 나에 대한 교만(我慢)이 가득 찬 말나식(末那識)인 제7식이 수분각을 성취하면 사라진다. 보살의 수행지위인 십지(十地)의 수행을 완성하면 등각(等覺)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마음에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순간을 깨달아 최초로 형성되는 생각의 모습(生相)이 없어지게 된다. 미세한 망념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다. 곧 기신론에서 말하는 견성의 단계이다. 마음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머물게 되니 이를 완전한 깨달음(究竟覺)이라 한다. 이것은 시각의 최후 일념이 본각과 일치되는 순간이다. 이때 근본무명이 진여본각을 움직여 일심의 생멸을 일으키는 것을 깨달아 망념이 생기는 모습인 생상(生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 보이며, 다시 생(生), 주(住), 이(異), 멸(滅)하는 사상(四相)의 동요가 없어져 마음의 길이 한결같아진다. 생상(生相)에는 생각이 일어나는 원초적 단계의 세 가지 양상의 과정이 잠재해 있다. 이를 세 가지 미세한 과정이라 하여 삼세(三細)라 한다. 주관과 객관을 분립시키는 잠재적인 원동력인 업상(業相)과 능동적으로 주관을 세워 생각을 일으키는 양상(轉相)과 그 생각이 피동적으로 반영되는 객관적 양상이 있어 마음속에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의 문제를 생각의 문제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인간의 한 생각 곧 일념 속에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사상(四相)이 동시에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 전후(前後), 심천(深淺) 세추(細 麤)의 차별이 내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시각사위(始覺四位)의 설명을 마치고 〈능가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짓는 말이 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無念)을 관하는 자는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된다."

중생은 바로 보살이 예경할 대상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⑥ 보시의 대상은 누구인가

無有一切物 菩薩所未施
(무유일절물 보살소미시)
無有一衆生 不曾受施者
(무유일중생 부증수시자)
論者語大地 一切應禮汝
(논자어대지 일체응예여)
何故禮大地 菩薩行施處
(하고예대지 보살행시처)
菩薩一日施 種種眾雜物
(보살일일시 종종중잡물)
辟支支佛百劫 不能知邊際
(벽지불백겁 불능지변제)
所以不能知 大悲為施體
(소이불능지 대비위시체)
能成種智果 施因為爲위最大
(능성종지과 시인위최대)

번역

일체의 물질이 없다면야 보살도 베풀지 못하고, 한 명의 중생도 없다면야 곧 베풂을 받는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논설에서 말한 대지(大地)는 일체 응당 그대가 예경할 것이니, 어째서

대자비심은 곧 지혜의 씨앗
'내 것'이란 소유 개념 탈피

대지에 예경하라고 하는가하면, 보살이 보시를 행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하루만 보시하되 가지가지 중생에게 잡다한 것으로 했을지라도, 벽지불은 백겁이 지나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까닭은 대자비(大慈悲)를 보시의 근본 도리로 삼았기 때문이며, 능히 심은 대로 지혜의 열매를 맺기에 보시의 인연이 가장 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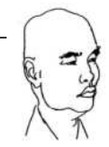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해설

동서남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듯이, 우리는 구하는 이들에게 모두 베풀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대지에 맑은 물이 스며들 듯 보시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대지를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 〈보리행경〉에서 '가죽신을 신고 다니면 온 대지에 가죽을 깔아놓은 것과 같다'는 말과 상통한다. 대지(大地)는 단순히 땅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대지는 보살행을 실천할 장소를 이르는 말이다.

보살행을 할 장소이란 어디인가? 바로 중생이 있는 장소이며, 중생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각자 한 사람씩 보시하는 이가 늘어나다 보면, 맑은 물이 대지를 다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는 말이 헛말은 아니다. 한이 없는 중생에게 보시를 못할 것도 없다. 또한 대지가 바로 보살이 예경할 곳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달리하면 모든 중생은 바로 모든 보살이 예경할 곳이 된다.

중생이 바로 보살이 예경할 곳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다. 부처님이 예경할 곳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중생이 예경할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살에게 있어서 중생은 더 이상 구제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중생이 곧 부처며, 보살은 그 중생인 부처님께 예경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보시를 하는 이가 보시를 받는 이에게 도리어 구제를 받는 도리가 성립된다. 구하는 이가 있어서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주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하다.

이런 마음을 성문과 벽지불은 백겁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심은 대로 지혜를 맺는 위대한 씨앗이라고 제바보살은 말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당당할 수 있게

승가(僧伽)는 사부대중의 결집체다. 출가 승가는 비구와 비구니이고 재가 승가는 우바새(남자 신도), 우바니(여자 신도)를 의미한다. 승가의 첫째 덕목은 화합(和合)이다. 진리의 등불(法燈明)과 마음의 등불(自燈明)을 스승삼아 게으름 없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함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탁마하고 경책하며 흔들림과 헐떡임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경전 구성은 주입식이 아닌 대화체로 되어 있다. 묻고 답하며 거듭되는 스승과 제자의 열린 대화 속에 열린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한 후, 사르나트에서 만난 다섯 제자와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대화에서 와 비구니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있다. 비구와 비구니는 어느 세월인지는 짚어 볼 일이나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의 해결사까지 자임하는 부끄러운 무리도 끼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비구와 비구니는 받는 입장이 되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 초청법회에 가서도 주최 측에서 내미는 봉투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승려의 장례식장에도 돈 받는 접수대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꼴사나운 지경에 이르렀다. 진리에 이르게 하는 대화다운 대화는 만나기 어렵고 신앙을 상품화하는 흥정 비슷한 거래 아닌 거래가 날로 둘레를 넓혀가고 있는 느낌이다.

받는 일에 익숙하다보니 소위 출가 수행승이 해마다 생일상을 신도들로부터 받고 있는가 하면, 생일축하의 현찰이든 봉투도 사양치 않는 풍토이다.

승려는 승려답게 수행력이 기본
마지막까지 깨달음 향해 정진해야

도 우월과 열등이 없는 평등성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 제자가 차례로 깨달음에 이른 순간에도 나를 스승으로 하여 다섯 제자가 붓다(Buddha)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나와 더불어 여섯 붓다'의 출현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함부 경전에 한 폭의 수채화처럼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달에 한 차례씩 보름날 밤에 행해지는 자자법회(自恣法會)에서도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행동과 언어에 있어, 대중화합을 흐드는 가벼움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대중을 향해 묻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실 때에도 제자 아란이 길상초를 자리에 펴드리자, 매우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는 따뜻한 말씀도 남기시는 것이다.

아함부에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자하신 할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자(聖者)의 오롯한 일상의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승가라 하면 비구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승려는 승려다워야 스님일 수 있는 것이다. 〈금강경〉의 흉내를 내지 않더라도 삭발염의 했다고 해서 승려는 아닌 것이다.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깨달음을 향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가난함으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름다운 사람이 스님인 것이다. 신도들의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도 주지 스님의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가 드물다면 이것은 한국불교계의 슬픔이요, 당장 고쳐 나가야할 출가승단의 병폐일게 분명하다.

이제 제발이지 대웅전의 법당에서는 복 짓는 불교, 공덕 쌓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영험설화를 풀어대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출가 승가는 사찰 재정을 앞세워 흔들리거나 헐떡이지 말 일이다. 노후대책 따위로 변명을 일삼지도 말 일이다. 승려의 노후는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게으름 없이 꾸준히, 죽는 그날까지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기본이 튼튼하여 상식이 통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게.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무료보시 안내!!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구입시 → 고성능 다이나믹마이크 보시!
앰프설치 사전 예약만 해도 → 고급 무선마이크 1셋 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구입 및 앰프설치 예약 사찰에 한함)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한국 최초!!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年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저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巧匠'이라 칭송한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

〈교장〉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② 색난(色難)

조선 후기(1600~1910)에 불교조각사의 최정상에 있는 작가는 색난(色難) 스님이다. 당시 대부분의 불상을 만든 조각승들을 화원(畵員), 양공(良工) 등으로 불렀다. 하지만 색난 스님은 달랐다. 일부 문헌을 살펴보면 색난 스님은 솜씨가 교묘(巧妙)한 목수(木手)라는 의미로, '교장(巧匠)'이나 '조묘공(彫妙工)'으로 기록돼 있다. 이만큼 당시에도 색난 스님의 조각 기술의 명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색난 스님이 만든 불상은 전국에 걸쳐 20여 건 수백 점에 이른다.

아직까지 색난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어느 스승 밑에서 조각을 배웠는지 등 조각승(彫刻僧)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 발원문과 사찰 연혁을 적은 사적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 지역, 조각승의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색난 스님이 제작한 가장 오래된 작품은 1680년에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광주 덕림사 봉안)과 흥개사 향로전 목조관음보살좌상(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이다. 그때 색난 스님이 불상 제작을 주도한 것을 보면 최소한 1670년대 불상 제작에 수화승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님은 1682년에 전남 순천 동화사 응진전 불상, 1683년에 경남 고성 운흥사 명부전 불상, 1684년에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불상, 1685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응진전 불상을 조성했다. 특히 능가사 응진전 불상을 제작할 때 '가섭대시주(迦葉大施主) 통정겸금어색난(通政兼金魚色難)'으로 언급되어 불상을 만들면서 시주자로 참여하였고, 정3품(正三品) 문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공명첩(空名帖)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님은 1678년에 경남 김해 은하사 명부전 불상을, 1689년에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과 개인 소장 목조삼존불감을, 1693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불상을, 1694년에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극락보전 삼존불을 제작하였다.

그 후 스님은 1698년에 고흥 능가사 범종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하면서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보살좌상(제주 관음사 봉안)을 개금하였다. 스님은 1700년에 해남 성도암에 석가삼존상과 나한상을,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 가운데 석가와 관음보살을, 1705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보현과 문수동자상 등을 제작하고, 1707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을 만들면서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간행에 대시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1709년에 고흥 금탑사 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과 목조삼존불좌상(광주 덕림사에 봉안되었다가 1980년에 화재로 소실)을 주도적으로 조성했으며, 1711년에 고흥 능가사 대웅전 기와와 1730년에 전남 곡성 관음사 대은암 범종(곡성 서산사 소장) 제작에도 시주자로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좌상. 각진 얼굴에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눈을 반쯤 지그시 뜨고, 입에는 은은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다. 능가사는 색난 자신이 주석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솜씨가 교묘한 목장인으로 추앙

전국 걸쳐 수백 점의 불상 제작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한획 그어

생몰 미상… 발원문 · 사적기 통해

색난 스님의 활동 지역 등 가늠

주로 호남 지역 중심 불상 조성

고흥 능가사 주석 · 부휴문도 추정

색난 스님이 어느 사찰에 주석했는지는 1703년에 만든 화엄사 각황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팔영산사문(八影山沙門)'으로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흥 능가사에 주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님은 1750년에 건립된 고흥 능가사사적비(楞伽寺事蹟碑) 후면에 가선(嘉善) 색난으로 언급되어 1709년에 불상을 만든 이후, 종2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공명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색난 스님은 164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서 1660년대 불상 제작의 수련기와 보조화승을 거친 후, 1680년부터 불상 제작에 우두머리인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 스님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면서 영남과 호남 지역의 많은 사찰에 명부전이나 영산전 불상을 주로 조성하였는데, 이는 사찰의 주전각인 대웅전에 불상이 색난 스님이 활동하기 이전에 대부분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불상을 제작한 후에 받은 수입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흥 능가사 범종, 불경 간행, 기와 제작 등의 많은 불사에 대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아직까지 색난 스님에게 조각을 가르쳐 준 스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색난(色難, 色蘭)→ 충옥(忠玉, 沖玉), 초변(楚卞), 일기(一機) → 하천(夏天), 석준(碩俊), 종혜(宗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색난 스님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전반에 형성된 부휴문도(浮休門徒)에 속한 스님으로 볼 수 있다.

색난 스님이 만든 고흥 능가사 영산전 등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100㎝ 정도의 중형불상이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소라모양의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깨달음의 상징인 육계(肉髻)는 흐릿하게 있고,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다.

각진 얼굴에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눈을 반쯤 지그시 뜨고, 코는 원통형으로 입에는 은은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다.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반달모양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다른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불상의 뒤에는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둘렀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어 도식화 된 5개의 연판형(蓮瓣形) 주름이 접혀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을 연잎 모양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펴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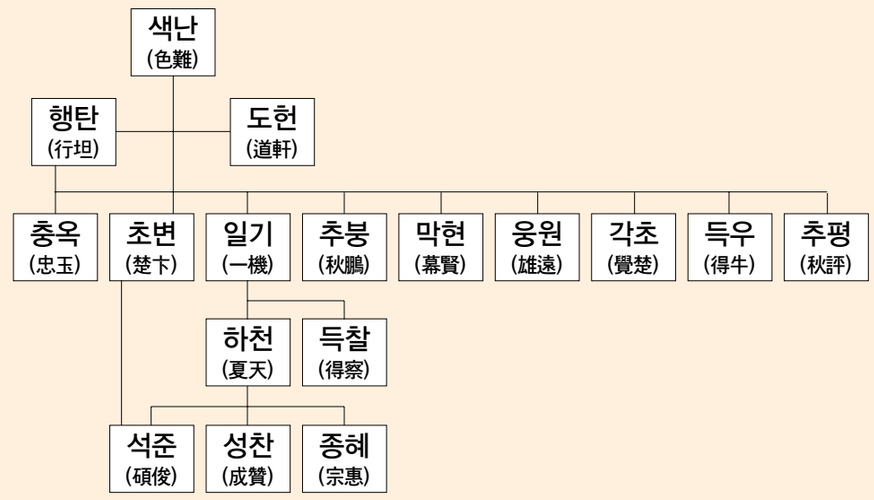
또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체비율, 인상, 승각기가 유사하지만,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있는 변형우견편단의 착의법이 다르다. 미륵과 제화갈라 보살은 여래상과 착의법이 같고, 화염과 연화문이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착용하며, 지장보살은 민머리의 성문비구형을 주로 만들었다. 이런 옷을 걸친 방법이나 소매 자락 처리는 색난 이전에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인균(印均)스님이 제작한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유사하다.

영산전에 석가여래좌상과 같이 봉안된 색난 스님이 만든 나한상은 바위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 반가좌(半跏坐), 유희좌(遊戱坐) 등의 다양한 자세로, 해태와 코끼리 등을 잡거나 경전을 들고 있다. 얼굴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각이 진 얼굴에 눈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가고, 원통형의 코, 어깨까지 내려온 귀, 살짝 미소 짓는 입 등이 목조여래좌상과 같다. 다만 나한상의 착의는 장삼 위에 가사로 왼쪽 어깨를 덮은 모습은 같지만, 장삼 안쪽에 내의(內衣)를 입은 상과 입지 않은 상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나한상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사가 늘어져 바위 위에 끌자락의 주름이 좌우대칭을 이룬다.

그밖에도 색난 스님은 개별 스님이 모시던 목조불감이나 명부전의 시왕상 등 다양한 형태의 존상을 만들었고,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호남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색난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강진 백련사 응진전, 구례 화엄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울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순천 선암사 불조전 53불상과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고성 옥천사 나한전 협시보살좌상, 남원 실상사 목조여래좌상, 인천 시립박물관 목조보살좌상, 해남 미황사 응진전 목조여래좌상 등으로, 이들 불상은 양식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조각승 색난과 문하 조각승들의 계보





능가사 범종의 시주자 부분을 확대 촬영한 것. 색난 스님이 시주자로 포함돼 있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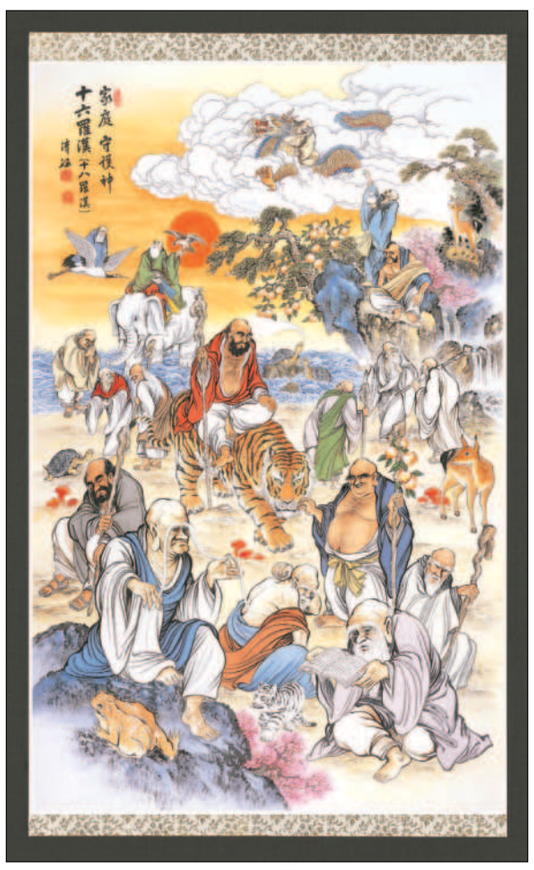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애니로 만나는 불교이야기

BTN, '증엄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 방영

불교 설화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대만 자제공덕회 창설자 증엄 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를 방송한다"고 2월 2일 밝혔다.

총 25편, 각 회 마다 30분 분량의 이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를 애니메이션에 담았다.

각 회마다 2가지의 에피소드로 전개되는 '증엄 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는 해설과 함께 법문을 이해를 돕는 수묵화를 배경으로 한 정감 어린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욕심의 과보', '인생의 소중한 가치' 등 각 에피소드의 주제를 대만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창설자인 증엄 스님이 불교적으로 해석 및 설명해 시청자들이 쉽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 TV법문의 새로운 시도가 엿보인다.


BTN불교TV는 대만 자제공덕회 창설자 증엄 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를 방송한다. 사진은 '증엄 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의 한 장면.

'증엄스님의 설화에 담긴 불교이야기'는 전편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되며, 2월 3일(수) 오후 1시 20분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매주 (화)19:30, (수)13:20, (금)06:20, (일)08:50 주 4회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m.btn.co.kr) 또는 인터넷(www.btn.co.kr)에서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웹드라마까지 진출

1일 네이버 TV캐스트 '출출한여자'서

인기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 시즌2의 번외편인 '출출한 여자-템플스테이'편이 2월 1일 네이버TV캐스트서 공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출출한 여자' 번외편이 템플스테이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템플스테이를 배경으로 드라마가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1월 29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1일 공개된 웹드라마는 여주인공 제갈재영(배우 박희본)이 휴가를 맞아 떠난 사찰에서의 1박2일 여정을 담고 있다. 특히 MBC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재벌2세로 밝혀져 반전을 선사했던 김풍호 역의 배우 안세하도 참여했다.

속리산 법주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템플스테이 패밀리브랜드 '아생여당'의 콘셉트를 살려 여주인공의 심경변화를 풀어가는 내용이다.

아생여당은 캐릭터 '아아(我我)' '생생(生生)' '여여(如如)' '당당(堂堂)'으로 각각 위로 · 건강 · 비움 · 꿈을 가리킨다. 드라마에는 법주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보관 스님이 특별 출연해 차담 · 발우공양 · 명상 · 새벽예불 등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또한 발우공양으로 나온 사찰음식 레시피를 따라 하기 쉽게 영상으로 풀었다.

문화사업단은 '출출한 여자-템플스테이'편 시청 후 퀴즈를 맞힌 시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권과 사찰음식 레시피북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보존과학부터 괘불까지 문화유산 면면을 보다

국립중앙박물관 2016년 전시 주목 일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다양한 특별전, 테마전 등 전시 일정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2일 2016년 주요 전시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는 불교 관련 전시는 줄었지만 그래도 주목할 전시들은 상당수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오는 3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이다.

보존과학 특별전은 박물관이 보존처리를 시작한 1976년 3월 기념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1980년대에도 박물관의 보존처리 인력은 1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1986년 보존처리를 마친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국보 제295호 백제 금동관, 황남대총 발굴 봉수형 유리병 등 50여 점이 전시되며, 현대 과학기술로 밝힌 우리 문화재의 재료와 복원 과정 등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테마전이 진행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불교회화실에서 5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리는 테마전에는 보물 제1278호 북장사 괘불이 전시된다.

이에 대해 박물관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사찰 소장 괘불을 공개하는 연속 기획전시"라면서 "17세기 경북 지역 최대급 괘불화의 특징을 조명하고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역점을 둔 전시회는 하반기에 대거 포진해 있다. 9월 27일부터 8주간 펼쳐지는 '도시와 미술' 특별전은 17세기 이후 형성된 도시문화를 배경으로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의 한국미술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본다.

國博 보존과학 40주년 기념해
문화재 보존 'A to Z' 한눈에
북장사 괘불 테마전도 예정돼
이집트 등 해외 특별전 '기대'

도성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8폭 병풍에 그린 '태평성시도'와 중국 랴오닝성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등 국내외 미술품 200여 점이 공개된다.


1986년 보존처리를 마친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조과학 특별전에서 공개된다.


북장사 괘불.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0일부터 불교회화실에서 '북장사 괘불' 테마전을 연다.

해외 유물들도 하반기 대거 한국을 찾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2월 17일 '이집트 보물전'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이 직접 발굴한 사람과 동물 미라, 석물, 보석 등 유물 230여 점이 전시된다.

이집트 보물전에 앞서 11월 8일 '아프가니스탄 황금전'이 개막한다. 전시품들은 국립카불박물관의 소장품들로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야 테페 고분에서 발굴한 금관과 신라 금관을 비교하는 전시도 진행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물관에서는 '발굴 40주년 기념 신안해저 문화재(7월26일~10월9일)', '활자, 혁신과 지식 전파의 상징(6월21일~8월28일)', '조선의 도자 제기-하늘에 올린 그릇(8월2일~10월3일)' 등도 주요한 올해 전시프로그램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개편한 발해실과 고려실에 이어 조선시대 전시실을 역사의 전환점과 변동을 부각하는 쪽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기념해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우리의 도자유물 30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중국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회화전'에 그림 20여 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르신과 젊은 디자이너가 만드는 '공예 콜라보'

서울 종로 탑골미술관
3월 30일까지 특별 체험전

짚풀 · 한지 등 전통공예 체험
젊은 작가, 어르신 세대 소통

어르신과 젊은 디자이너가 서로 소통하며 교류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2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예하는 어르신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특별 체험전 '어르신과 디자이너의 콜라보展'을 개최한다.

탑골미술관은 잊히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르신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전달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전통공예 전시를 진행해왔다. 이번이 세 번째 전시다.

두 달 동안 계속되는 체험 전시는 1부 '짚풀로 디자인하기'와 2부 '전통공예로 놀기'로 진행된다. 1부 '짚풀로 디자인하기'에서는 어르신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전통공예와 디자인의 만남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 2부 '전통공예로 놀기'에서는 전통공예의 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확장하고자 짚풀, 한지, 나전칠기 체험공방을 운영한다.


지난해 '전통공예와 디자인의 만남' 전시에서 어르신들이 짚풀공예를 체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탑골미술관은 "전통공예는 오늘날 특수한 예술로 인식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의 필요와 우리 민족 특유의 미적 감각으로 발달한 일상이었다"면서 "이번 전시는 이러한 전통공예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여 이를 오늘날 필요에 맞는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확장하는 실험적인 전시"라고 설명했다.

전시와 함께 다양한 강의와 체험행사도 이뤄진다. 전시 개막일인 2월 3일에는 정희정 큐레이터가 '오늘날 전통공예의 의미와 활용'을 강의하며, 2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민족과 짚풀'을 주제로 서종원 문학박사의 강연이 이뤄진다.

또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영선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디렉터, 심화숙 전통한지공예가협회 회장, 이희승 중요무형문화제 제113호 칠장 이수자의 체험공방이 총 6회 진행된다. 짚을 이용한 자유로운 디자인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열린 체험장'은 전시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탈골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짚풀 약 2톤 분량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전통공예 전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통공예와 디자인의 만남' 전시의 워크샵에 참여했던 대학생 이효정(23) 씨는 "짚풀공예에 관심이 있었지만 짚풀을 구하거나 배울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지 못했었다"며 "어르신들에게 직접 짚풀 다루는 법과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들의 강의와 워크샵을 통해 전통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탑골미술관은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미술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전시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미술관이다. **신성민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7~2015.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틴텐최된	불광출판사
3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5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6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9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삶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옛 선사들의 쩌렁쩌렁한 외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장웅연 지음 | 도법 원철 신규탁 감수 | 불광 펴냄 | 1만 3천원



"선문답하고 앉았네!" 이렇게 일상생활서 선문답은 흔히 동문서답과 같은 치로 대접받는다. 대답이 뜬구름을 잡거나 무책임할 때 언론서 번번이 가져다 쓰는 관용어가 돼버렸다. 어쩌면 선문답은 말 같지 않은 말들이다. 다만 문맥을 벗어나 있어서 통념을 초월해 있다. 말싸움에 끼지도 말장난으로 기만하지도 않는다. 옳음에 대한 떠듦은 그냥 떠듦이다. 남들 말에 오래도록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기만의 말을 찾아야 한다. 마조도일 선사가 몸져 누웠을 때 누군가 물었다.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마조가 말했다. "일면불, 월면불!" 사실상 그의 열반송이다. 얼핏 알쏭달쏭하나, 무슨 거창하고 심오한 의미를 품은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일면불은 수명이 1,800세에 이른다는 부처님이다. 반면 월면불은 하루살이다. 마조의 대답은 "좋을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다"며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병세를 재치있게 표현한 말이다. 자기 구석에 매달리기에 앞서 죽음 앞에서도 농담을 던질 수 있던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지난한 인생의 길목서 다시 펼쳐든 선가(禪家)의 말들.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유명한 역대 화두 100개를 가려 뽑았다. 선 정신의 핵심을 가르는 촌철살인의 논평이 곁들여져, 선문답(禪問答)의 묘미를 흠씬 느끼게 해준다.

선문답은 상식을 벗어난 초논리의 대화로서, 삶에 대한 뛰어난 혜안과 통찰력을 반영한다. 언어적인 역설과 비약을 통해 통념의 벽을 깨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지만 고도로 응축된 선문답 일화는 비약이 심하고 논리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저자가 직관 세계를 현실의 삶에 대입해, 살아있는 일상 언어로 차근차근 알기 쉽게 풀어냈다.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이해 못할 동문서답의 선문답이 다시금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나,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삶을 곤궁히 만들던 편견을 부수고,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과 식견을 길러준다.

한국불교는 선불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선을 이해 못하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요원하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래로 달마 대사를 비롯한 숱한 선사들이 그토록 전하려한 선불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라"는 한 마디 말로 귀결된다.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 또한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고 고백한 바 있다.

중국의 옛 선사들인 혜능, 마조, 백장, 조주, 임제 스님 등을 이어 우리의 경허, 만공, 성철 스님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외쳤다.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란 없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완성된 존재, 즉 본래부처임을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데서 자신의 참모습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 본연의 정신이다.

그래서 선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있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안겨 준다. 그 통찰을 삶에 적용시킨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갖은 어

유명한 역대 화두 100개 가려 뽑아
禪정신 핵심 가르는 촌철살인 논평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온전히 살라" 전해

려움이 옥죄어오더라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다. 오늘을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 저자가 말하는 묵직한 행복이다.

저자는 "눈 내리는 거리의 모든 뒷모습은 안아주고 싶게 생겼다. 산다는 건 이러나저러나 견디는 것이요, 견딤이 쌓이면 무심(無心)이 쌓인다. 그 행복은 너무 무거워서, 남이 훔쳐가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이 책을 감수한 원철 스님(해인사승가대학 학장)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웅연 거사에 의해 또 다른 '교외별전'으로 이어지는 화두집이 새로 나왔다. 나의 안목과 목소리로 '말을 붙인' 흔치 않은 책이다."라고 평했다.

각자 다른 위치서 치열히 선을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도법 스님, 원철 스님, 신규탁 교수가 꼼꼼히 감수했다. 짤막한 감수의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진가가 느껴진다. 이외에도 각각의 선문답 일화가 실린 출처와 선사들의 이력을 흥미롭게 풀어주고 있어, 종교를 떠나 선의 세계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 역할도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도(道)는 찾을 필요조차 없다… 생각 이전의 것을 확인하라"

아줌마와 선

임순희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 3천원



아줌마가 깨친 도(道), 그러니 당신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과 온전한 자유를 위한 명쾌한 안내서다. 평범한 아줌마의 몸으로 선(禪)을 공부해 도(道)를 알게된 저자가 우리의 본성이자 궁극의 진실인 '마음'을 쉽고 명쾌한 언어로 가리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저자가 마음공부에 입문해 진리에 눈 뜨고 마침내 온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2부서 4부까지는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늘 있는 진리를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끈질긴 분별의 습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돕는 말들을 실었다.

구도자들은 깨달음을 추구한다. 왜 깨달음을 추구하는가? 결코 변치 않는 궁극의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끝없는 생사유전의 꿈에서 깨어나 어떤 분리도 없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온갖 번뇌의 감옥서 해방돼 온전히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간 무척이나 신비화되고 왜곡되고 오해되기도 했다. 깨달음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상상될 뿐 아니라,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일이며 초인적인 고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여자의 몸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이 책 저자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평범한 아줌마지만, 선(禪)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진리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녀는 출가 하지도 않았고, 수련 코스를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다양한 경전을 섭렵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신통을 경험한 적도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불현듯 일어나는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삶의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뿐이고, 우연찮게 도시 교외의 자그마한 선원을 알게 돼 꾸준히 마음공부를 하

'마음'을 쉽고 명쾌한 언어로 설명
분별의 습관서 벗어나는 법도 소개

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됐고,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머리말'에는 중년의 대학교수와 저자 임순희 씨가 나눈 다음의 대화가 실려 있다.

그때 불쑥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오늘 용기를 얻고 갑니다. 저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이 마음을 갖추고 있는데, 발심만 제대로 돼있다면 남녀노소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순희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라구요." 그러면서 껄껄껄 웃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순희도 하는데 철수라고 못하겠어요?"

순희도 하는데 철수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단, 참된 자신에 대한 의문과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리를 가리키는 이름은 수없이 많지만, 선불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는 '마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과는 다른, 생각 이전의 것인 이 마음은 존재 자체이며, 만상의 근원이자 바탕이며, 모든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까닭은 모양이 없고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으로 찾는 한 이 마음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안내를 잘 따르기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본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마음을 쉽고 명쾌한 언어로 가리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노(老)보살님들까지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책에는 노보살님들과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면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모양을 통해 즉각즉각 확인되는 이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공부는 그 뒤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분별의 습관, 생각과 관념에 대한 믿음, 분리된 개인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버릇은 뿌리가 깊고 교묘하며 완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단숨에 재미있게 읽는 소설식 육조단경

육조단경

법진 | 이원일 공저 | 블루리본 펴냄 | 1만 7천원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육조단경〉은 어려운 한문과 그 해석 내지는 해설로 돼있다. 그 결과, 일반 불교신자들이나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인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딱딱하고 지루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읽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새로 나온 〈혜능 일대기로 읽는 육조단경〉은 6조 혜능대사 일대기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일반이나 초보자이나 누구나 소설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불교와 선불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맞는다.

이 책은 육조 스님 삶의 족적 하나하나를 좇아가며 생애와 수행의 단편들을 방대한 생생한 현장답사 사진과 역사자료 및 도해를 곁들여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만 하면, 육조 혜능 스님이 태어난 광동 신흥현서 출발해 5조 홍인대사에게서 의법을 전수 받은 허베이성 황매 오조사를 거쳐, 다시 남하해 매령, 즉 대유령을 넘어 행화도량 샤오관 보림사를 거쳐 열반도량 국은사까지 각종 생생한 현장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또한 기존 〈육조단경〉이 한문과 그 해석 위주였고 곳곳에 있는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일반인이나 초보불자들이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전일지라도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 못한다면 경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반감되거나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보다 더 애석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자들이 흔히 〈육조단경〉에 대해 갖는 어려운 용어나 의문점을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명쾌한 해설로 속 시원히 해결한다. 이 책은 또한 선의 핵심을 오롯이 담아내고, 난해한 선의 묘리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선사상 이해의 길잡이 역할도 한다.

일자무식 나무꾼 출신의 행자 혜능이 조계종 창시자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구도의 역정과 또 다른 경쟁자 신수대사와의 돈오냐, 점수냐 하는 대결, 그리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남종선을 중국 대표종파로 화려하게 꽃피우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육조단경 탄생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선수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위빠간화선
선을 더 쉽게 배우는 길
한영판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필요없게 된다. 위빠간화선은 누구나 원하는 수행의 열매를 훨씬 쉽게 수확하게 해주는 촉매가 되어주는 것이다.
합본: 풀어옮긴 반야심경, 금강경

"간화선 수행은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지만,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화두가 성성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화두를 놓쳤을 때 놓쳤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곧바로 화두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현 스님

• 자매편: 『선을 배우는 길』 대현 지음/신국판/302쪽/값 15,000원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하고 화두를 챙기는
위빠간화선과 함께 하십시오.
대자유의 길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불교 유산 보고 '나테슈와르'서 사리탑 발굴

〈寶庫〉

방글라데시-중국 연합 발굴단, 16개 불교 사리탑 발견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불교유적지 '나테슈와르(Nateshwar)'에서 1,000년 된 불교 사리탑 16개가 대거 출토됐다. 사진출처=Thedailystar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불교유적지 '나테슈와르(Nateshwar)' 발굴단이 불교 사리탑 16개를 대거 발견했다.

'나테슈와르'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로부터 남방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교유적지다. 2010년 방글라데시 고고학계에 의해 발견돼 2014년부터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연합 발굴 작업을 펼쳐왔다. 다량의 불교유적이 발견되며 '고고학계 보물'로 평가되고 있다.

'The daily Star'는 1월 31일 "나테슈와르 유적지서 약 1,000년 된 불교 사리탑 16개가 발굴됐다"며 "각각의 사리탑은 심미·고고학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뽐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16개 사리탑은 길이 16m, 깊이 3.5m 규모의 벽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형태는 마치 전체가 하나의 홀(Hall)을 이룬 듯 연결돼 있다.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The daily Star'는 "16개 사리탑은 크게 4개의 거대한 홀로 나뉘어 전체적으로 십(十)자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구조를 설계했던 당대 사람들의 경이로운 능력과 경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특히 자한기르나가르(Jahangirnagar) 대학 무스타피 (Mustafizur) 교수는 십(十)자 형태에 대해 "불교 철학이 사리탑 구조에 나타나 있다"며 "사리탑 중 8각형 구조 사리탑은 불교의 8가지 거룩한 진언인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한다"고 다른 차원의 해석을 제시했다.

2015년 발굴된 불교 유적지서
1000년 전 제작 추정
"불교 역사에 획 긋는 발견"
4개 구획 십(十)자 형태 구성
"8각형 구조는 '팔정도' 상징"

이번 발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불교 유적에 획을 긋는 발견"이라면서 "1,000여 년 전 불교문명의 번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추가적인 발굴이 진행되면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될 것"이라 입 모으고 있다.

발굴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누 울 알람 레닌(Nuh-ul-Alam Lenin) 씨는 "불교 사리탑들이 심미학적으로도 우수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들을 크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조사 작업 참여뿐만 아니라 이곳에 박물관, 관광시설 등 유치하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에는 이 유적지서 1,300년 전 형성된 불교 도시가 발견돼 큰 화제를 낳았다. 당시 배수로, 도로 등 다양한 구조물이 발굴단에 의해 출토됐다.

도로는 길이 30m 폭 2m로,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서 동서쪽엔 측면 도로도 위치해 있다. 수직·수평 구조로 벽돌을 배치한 이 도로는 당대 토목공학 기술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81㎡의 불교 사원도 중요한 발견으로 꼽히고 있다. 'The daily Star'는 "사원 벽을 둘러싼 벽돌 디자인은 방글라데시 사원 건축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후 발굴단은 미국 베타 실험실에서 출토된 유물 26개에 대한 탄소화학실험을 진행했으며, 이 유적지가 1,100년 이상 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 유적지는 780~950년, 950~1223년에 걸쳐 2차례 인간 생활터전이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가

17년간 분석 마치고 2월 6일부터 전시



900년 전 제작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17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간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NewYorkTimes)

900년 전 제작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17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간다.

'뉴욕타임즈'는 1월 28일(현지시간)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정밀한 분석과 수리 및 도금 작업을 거치고, 17년 만에 제자리인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9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는 6피트(약 182㎝)의 이 보살상은 편안한 자세로 한 다리는 물가에 발을 담그려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으며, 유리로 된 눈은 아래를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불상은 물가에 반사된 달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보살상은 머리에 관을 쓰고 술이 달린 장식과 비즈 보석 등으로 꾸며져 있다. 귓볼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고리도 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마 가운데 보석 장식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이 보석은 1950년경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분석은 박물관 미술품 보존전문가인 애비개일 하이킨이 맡았다. 하이킨은 목조관음상의 얇게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곤충이 갉아먹은 곳이나 못 자국 및 몸통과 팔다리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불상을 갉아먹은 곤충의 종류가 밝혀지면 추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현존하는 목조관음보살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캔자스시에 있는 넬슨앳킨 박물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 레이크스 미술관과 영국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 등이 공개된 전부다.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920년 북중국에서 온 것으로 이전에 어느 사찰에 있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관음보살상은 2개의 불상과 함께 매입됐으며, 향후 나머지 2개 불상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 불상 표면에는 나무를 다시 덧칠 했던 날짜를 알리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중국미술 담당 큐레이터인 낸시 베를리너는 "아마 이 목조관음보살좌상 후원자는 새로 덧칠을 하면서 선업 쌓기를 기원한 것 같다"며 "이 불상은 허영심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 표정에는 연민심이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스턴 미술관은 이 불상 및 분석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불상 내부를 스캔한 사진 등을 2월 6일부터 전시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태국불교 최고지도자 후보 '벤츠 수집' 파문

승왕 임명절차 앞두고 경찰조사 들어가

태국 불교계 최고 지도자인 승왕(僧王) 후보로 지명된 노승이 고가의 벤츠를 수집해 전시하는 등 자질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태국 현지 언론 및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1월 24일(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은 승왕 후보로 지목된 랏차망갈라찬이 최고 지도자로 자질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90세인 랏차망갈라찬은 최고 등급의 성직인 '쏨뎃 프라 마하'에 오른 고승으로, 지난 2013년 19대 승왕인 얀나쌍원이 입적한 뒤 승왕 대행을 맡아왔다.

그는 최근 원로회의에서 20대 승왕 후보로 지목돼 태국 국왕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 군사정권은 그에 대한 승왕 승인을 지연했다. 랏차망갈라찬이 주지로 있던 절에서 벤츠 등 고가의 수입 빈티지 차량이 여러 대 발견됐기 때문이다. 차량은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되는가 하면 완제품 형태가 아닌 부품 형태로 수입돼 현지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금 탈루 의혹까지 받게 됐다.

태국 경찰청 특별조사국(DSI)는 랏차망갈라찬이 수입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승왕 후보의 자질 부족문제는 인구 95%이상이 불교도인 태국 사회에 긴장을 초래했다.

일부 반대파들은 랏차망갈라찬이 후계와 관련한 친필 서한을 조작했다거나, 불교 계율을 위반해 성직을 박탈해야 할 동료를 감쌌단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반대파 종단인 루앙 푸 붓다 이사라 스님은 태국 정부에 "세계 각지의 차를 수집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며 승왕 자격에 맞지 않다"며 랏차망갈라찬의 승왕 후보 추천을 취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또한 이사라 스님은 "승왕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30만 태국 승려들을 대변하는 중책인 동시에 태국 사회와 불교에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만약 승왕이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찼다면 그는 아이들과 불자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랏차망갈라찬을 지지자들은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태국 최대 불교대학교인 마하출라롱콘라자위디얄라야 대학교(MCU, 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 University) 부학장인 프라 메티 담마잔은 "이번 사건은 태국 불교 종파들이 서로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만약 태국 정부가 이번 문제로 승왕 취소로 해결한다면 승가집단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랏차망갈라찬에 대한 공격은 태국 승가와 태국 내 기타 종단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랏차망갈라찬은 담마까야 사찰 주지인 프라 담마차요 스님과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태국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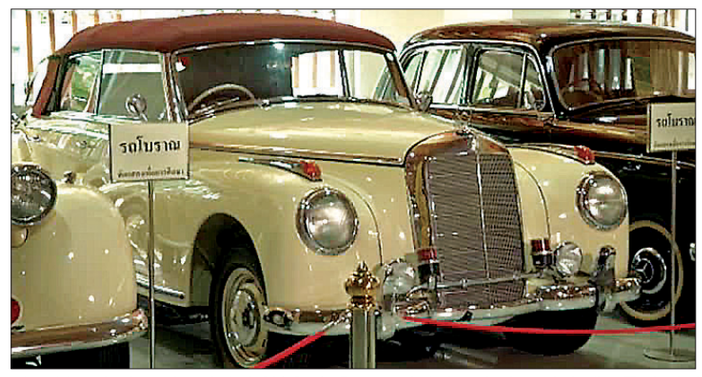
담마까야 사원은 카르마를 상업화해 구원을 위한 기부를 강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지 담마차요 스님은 2012년 횡령의혹을 비롯해 그가 명상 중 스티브 잡스의 사후 모습을 봤다고 주장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태국 사회비평가인 술락 시바락사는 "많은 사람들이 랏차망갈라찬 승왕 후보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담마까야 사원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담마까야 사원은 불교교리를 전파하기 보단 자본주의와 소비지상주의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승왕 임명절차 담당 총리실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랏차망갈라찬에 대한 승왕직 승인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에게 후보자 명단을 보내기에 앞서 경찰 수사 결과를 충실히 수집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태국 불교계 최고 지도자인 승왕(僧王) 후보로 지명된 노승이 고가의 벤츠를 수집해 전시하는 등 자질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출처=채널뉴스아시아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화제의 신간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정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如來藏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敎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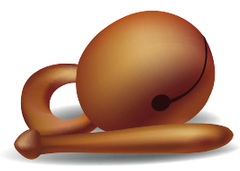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수보리여, 여래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여(眞如)를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 금강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건강태극권수련
출장지도가능
20년수련
사주, 풍수
031-591-9023
보현수련원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받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 항상 산소가
녹아있는 1급수 약수터,
주위 숲속 산책로,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에 위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31-333-5014.010-7105-5013
수정산 수정사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살풀이,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노스님 무보시 로 시봉하며 기도하실 신심있는 보살님 인연 기다립니다
(부산 / 나이, 조건 없음)
010-5886-08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삼방동 신어산 동림사)
055-337-00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10-2627-857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중반 – 50대 초반)
모든 것 전수해 드리고
절까지도 인도해 드립니다.
010-6674-1356

주지 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한
절을 도와드립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법납 40세 비구스님
010-7629-134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종교부지 환영합니다
경기지역 3000평이상
종교부지 소유자 환영
(불사동참) 하겠습니다.
010-8961-5498
소승 합장

기치료,기마사지
전국 수도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
정진 중 생긴 몸의 이상 변
화나 기혈의 막힘. 갖가지
질병 등을 치유해 드립니다.
010-8227-3627
(경북 성주군 수륜면 위치)

신통력을 전수
스님에게만 은밀하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쉼템플 기자단 기자학교 개강
템플스테이 활동 및 사찰을 취재하여
기사를 쓰는 기자단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개강 (6강+워크샵)

쉼템플 지도자 교육생 모집
템플스테이 모집/홍보/진행/관리를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개강 (4강+워크샵)
쉼템플 운영실장 조보길 010-8997-8578 www.Shimtemp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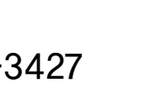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3499-372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이것이 정통 풍수다!!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짚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태극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방술회원 모집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실습장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 (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 천 공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높다는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며, 태어난 자 언젠가는 죽어가고,
모이는 자 마침내는 흩어지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넓은 터전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삼량진
- 총부지 : 33,000평
- 건물 : 목조법당(10평), 암벽위 목조 산신각, 요사채(5동), 계곡물 철철 흐름
- 가액 : 6억 6천

051-863-6622/010-3560-8522

▶바닷가 부근 토굴◀
- 위치 : 통영 (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 **(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 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계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제천시 추천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45㎡ 한옥요사채 80㎡
- 토지 250㎡
- 제천시장부근, 유동인구 많음
- 포교사찰로 적당함
- 가액 : 1억 6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60평 ◎ 대지: 22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60평
◎ 양도: 10억 5천 ◎ 양도: 7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단양 토굴 양도
- 토지 4,500㎡, 검루 75㎡
- 전망좋음
- 노천불, 광수원 수입 있음
- 뒷편산이며 교통편리함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4억 8천(융자포함) 전세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KTX 울산역 10분거리
- 대지 3,300㎡ 국유지 660㎡
- 대웅전: 목조칠보삼존불, 나한전,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2동 그외 다수 각종 조경수와 연못 산세좋고 깨끗한 계곡물
- 가액 : 23억(융자 5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010-5346-413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면
- 3층 건물 중 3층
- 법당 27평, 삼존불, 집무실, 방
- 주차 20대가능
- 몸 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3502-2618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280평, 대지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도심속 현대식 건물 사찰

관심 있으신분

전화주세요

- 가액 : 13억

010-3860-1228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80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김해
- 평수 248평
- 법당23평.요사채.방가루
- 마당잔디.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남로 버스정류장 대로변
- 상가 2층. 50평이상, 방 2, 화장실2, 주방, 각시설 완비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3700-3628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소재
- KTX 역세권, 조용한 산사
-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대 197평, 법당 30평
- 요사 1동(방3), 산신각1동 5평
- 양도가 : 3억 5천만(절충가)

010-6658-16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조정가능)

010-4646-36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건강상 급양도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 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총가액: 19억

010-9567-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약 42평, 건평 20평
- 법당(상단, 신중, 산신 용왕 등)
- 방2 공양간 욕실 실내외 화장실
- 도심밀집,뒷산, 동남향,기도처
- 절앞 차량 진입
- 집기일체 시설포함(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몽땅 7천백만원

연락처 010-8503-6000

불심깊은도시 경북 영주

포교원을 양도 합니다
- 3층 건물 2층(3층 주인 살림)
- 55평(방 2, 요사, 공양실, 화장실 2)
- 법당(단청, 운각,6지장보살 봉안)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보시고 판단)

010-6472-562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전철 2분거리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또는 3,000만원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1-1750-404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바닷가 5분 거리
- 대지 : 183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방 4개 주차시설 완벽
- 가액 : 4억 1천

010-4155-27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중앙동 요지
- 실평수 40평 3층, 방 2
- 욕실, 공양간, 도시가스설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337-7766
053-325-0400

암자(급) 안내

- 위치 : 합천 해인사 위쪽 도솔암
- 기도처 155평
- 요사채 1동 법당포함
- 도로포장 잘되었음
- 임산 배수로 경관이 좋고 800고지에 차량출입가능
- 심야전기, 지하수시설
- 가액 : 1억 2천

010-3900-30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앞바다, 뒷산)
- 대지 252평(터밭 50평)
- 2층건물 1층 큰방 2칸, 상담실, 샤워장, 화장실, 2층법당 23평, 삼존불
- 요사채: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 녀 화장실
- 해수관음, 다보탑
- 가액 : 4억 7천(대출 1억 안고) 3억 7천(절충가능)

010-5121-3347

암 자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20분거리 호남선 옥과IC 5km
- 종교부지 : 650평, 산1만2천평 사자형상암석, 사자앙천혈주변,
- 창건5년, 조립식건물 3동, 적송소나무숲속, 노천약사불
- 종교시설만 매도시 2억7천
- 전체 : 3억 7천

010-8224-16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요지),신축사찰
- 종교부지 160평, 전 110평
- 3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공양주방, 화장실2
- 즉시법회 가능
- 실외 화장실2, 창고1
- 가액 : 대출 2억5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동구 수정1동 지하철 3분거리
- 평수:70평, 법당25평
- 공양간 10평, 방3칸
- 가액 : 3억 5천

010-9323-569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 오래된 암자 대지 전 176평
- 법당 12평, 요사채 약 14평
- 용도 : 철학보는데 적합 노스님 계시기 적당합니다
- 가액 : 1억

010-3288-1317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죽림사
- 법 명 : 보림(서복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태봉길 56

위 인 및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법하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120-1
- 대지 : 104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허가유 2층 법당, 신당 무허
- 법당 : 2층 약 30평 법당 삼존불 모심 20평, 신당 10평
- 요사채: 1층 약 35평
- 가액 : 약 4억

010-2575-3089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전리 1221-1, 1221-2
- 법당 30평,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
- 종무소 컴퓨터 및 모든 집기류 일체
- 사찰로서 모든 것 구비
- 전세금 : 2천만원,월40만원

010-2204-2333

건 물 안 내

- 위치: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93
- 정남향집(급) 단층 슬라브
- 대지 41동, 건평 19평
- 방큰방 1, 작은방 3개
- 가액: 은행 3천만원 안고 6천 800만원
- 비구니 스님에게 좋은집

주인직 : 051-852-1810
010-3598-547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땅값만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 로라 짐머만(명상 지도자)

〈1〉 숨 쉰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

명상 수행법에 정답은 없다

이 책은 붓다가 설한 〈호흡관법경〉의 16단계 호흡관법을 3단계로 축약했다. '사마타' (samatha, 止)와 '위빠사나' (vipassana, 觀)의 2단계에 더해 선불교의 정수인 '명징한 바라봄'을 포함시킨 것이 바로 저자가 제시한 3단계 호흡관법이다. 특히 〈깔라마경〉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초기불교와 선불교가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호흡=깨달음의 중요한 기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만 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명상 수행의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붓다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호흡이 깨달음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붓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이를 아나빠나사띠(ana-panasati), 풀어서 설명하면 '호흡을 통한 완전한 깨어있음'이라고 불렀고, 〈호흡관법경〉이라고 경전의 이름으로까지 삼았습니다.

붓다는 깨닫고 난 이후에도 호흡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흡관법경〉에서 16단계로 호흡을 통해 완전히 깨어있는 법을 가르친 붓다는 이것으로 명상 수행의 기본을 다져 놓았습니다. 붓다 시대 이후로 많은 수행자들이 호흡 명상을 가르쳤고, 연구와 해석을 거듭해 왔습니다.

나는 40여 년간 수행하고, 공부하고,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16단계 수행을 두 단계로 압축하고 여기에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를 더하여 3단계 명상 수행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있는 대학 도시인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에 살면서 나는 마치 박사 학위를 따듯 16단계의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자들에게나 필요한 이런 세밀한 접근법은 종종 명상을 하면서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자유로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3단계 명상 수행법은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사는 재가수행자들에게 더 요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법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호흡관법경〉 전체의 핵심을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수행법은 전통적인 호흡 명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그 단계를 세 가지, 즉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리고(whole-body breath awareness), 호흡을 하나의 닻 또는 좋은 친구로 활용하여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breath-as-anchor),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choiceless awareness)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었다고 해서 전통적인 것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호흡의 힘

내가 처음 호흡 알아차림을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1982년이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것이 위빠사나(vipassana, 觀), 즉 통찰 명상이었습니다. 이 명상법은 상좌부 불교에서 온 것으로, 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인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사마디(samadhi, 三昧)라고 부릅니다. 사마디는 위빠사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전체 과정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진리(法 다르마 dharma)의 여여(如如)함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주의 진리를 의미하고 이 진리는 붓다의 가르침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상좌부 불교 위빠사나의 전통에 따라 호흡 알아차림을 배우고, 행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위말로(Vimalo) 스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독일 승려로서 수년간 미얀마와 태국에서 수행하며 지냈습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나는 그를 통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호흡관법경〉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했는데,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된 그 경전을 통해 나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감정과 마음 상태를 포함한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을 알게 하고, 마침내는 통찰과 자유로움을 이르게 합니다.

이 수행이 내 삶의 중심이 되자 나는 위대한 수행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운도 따라서 위대한 베트남 선사인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과 존경하는 아잔 붓다다사(Ajahn Buddhadasa)를 모시고 수행하기도 하고, 아잔 리(Ajahn Lee)의 법맥을 잇고 있는 타니싸로(Thanissaro) 스님으로부터 〈호흡관법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혹적이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웠던 점은 이 세분의 탁월한 스승들이 똑같이 〈호흡관법경〉을 읽고, 때로는 동일한 번역본을 따르면서도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를 서로 아주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해석은 모두 근거와 권위를 가진, 모두다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붓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오로지 한 가지' 해석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붓다는 적절한 방편을 사용하는 탁월한 수행자로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적절한 수행법과 법문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호흡관법경〉에 내재된 있는 그대로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 붓다 당시의 세상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수행이 많은 스승들이 〈호흡관법경〉으로 수행한 햇수만큼 깊어졌을 때 제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붓다 16단계 '호흡관법경' 축약
40년 간 수행 후 '3단계' 법 제시
전통 수행법과 대립되진 않아
통하는 '막' 있을 뿐 '벽' 아냐

3단계 명상 수행법

경험 많은 수행자들은 이미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깨어있고,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호흡이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위에 집중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듯 코나 가슴 또는 배에 집중하라는 주문과는 다릅니다. 직접 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느껴 보세요. 초심자든 경험 많은 수행자든 온몸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지켜보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인 호흡에 닻 내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온몸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 이외의 모든 것, 즉 기분, 감정, 감각, 침묵을 포함한 정신 상태를 지켜봅니다. 호흡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집중이 자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을 느껴봅니다. 이것은 불안이나 분노처럼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때도 적용됩니다.

두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의 두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나는 이를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선호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 주의를 집중합니다. 하나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호흡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단지 그 순간 일어나는 것에만 깨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점에 가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비롯해서 삶이 주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깨어있음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게 되고, 관찰한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명상 수행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호흡 수행을 해 온 수행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배제하고, 알아차림 그 자체만 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40년 이상 수행하고 가르치다 보니 세 번째 단계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추천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최고'라든가 '이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 흥미를 느껴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 단계 사이에 견고한 벽은 없습니다.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통할 수 있는 막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징하게 깨어있으면서 관찰하고, 그 깨어있음이 자신을 인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질이야말로 자신의 상황과 경험에 맞는 수행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생 동안 말입니다.

이제 수행법을 정했다면 어디서 수행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곳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수행은 책상에서, 수행센터에서, 또는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는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져 갔습니다. '집중 수행'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실제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여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슬픔과 행복을 압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인간이 가진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과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를 수행하면서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행복과 고통의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호흡이 주는 선물〉(나무를 심는 사람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래리 로젠버스(Larry Rosenberg)은

브루클린 대학 졸업 후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시카고 대학,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다.

숭산 선사로부터 5년 간 간화선 지도를 받았으며, 이 중 1년 남짓 수덕사에서 혹독하게 수련하기도 했다. 베트남 틱낫한 선사 등으로부터 10년 간 참선을 배웠고, 이후 아시아 등지에서 위빠사나를 본격 수행했다.

제2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초급과정(불교의식)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 39 위작법, 관음시식(불교기초교리)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 일관

* 6개월 수련 후 법사자격증 부여, 숙식 제공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6. 3.1(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문 의 :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강 주 스 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및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배종훈의
명상카툰

내가 하고 싶은 것 남에게 베풀라

새벽, 해우소를 다녀오는 길에 달을 만났다.

'제가 여기 계신 달님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니 달은 푸른 웃음을 짓는다.

다시 방에 들어가 남은 잠을 자기엔 아쉬운 새벽이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대웅전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에 나방처럼 다가섰다. 법당 안에는 새벽 예불을 준비하느라 불을 밝히는 노보살이 혼자 합장을 하고 있었다. 들어설까 잠시 주춤하다가 가만히 돌아섰다.

내가 오롯이 홀로 있고 싶은 순간의 마음이 날 붙들었나보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마흔아홉 번째 날 ㊤

난 할머니 친구 꽃님이야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일곱 날이 지났어.

할머니를 차가운 땅속에 묻고 돌아와서 엄마는 며칠 동안 앓아누웠어. 아빠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나를 보살폈지.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할머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을 거야. 집안에는 물에 젖은 솜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어디를 가도 무겁고 축축해.

큰고모 스님(어른들이 이제 큰고모에게 고모라고 하면 안 된대. 행화 스님이라고 해야 한 대.)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읊고 있어. 목탁 소리에 맞춰 작은고모는 아이고 아이고 우는 소리를 내. 작은고모는 절을 올리다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음을 터트렸어.

"아이고, 엄마.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엄마 없이 못 살아!"

고모부는 고모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 사촌 언니 오빠도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있어. 나는 그 꼴이 보기 싫어 할머니 방으로 왔어.

작은고모는 항상 말만 늘어놓지. 효도를 말로 할 것 같으면 작은고모가 세계 1등이라고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머리칼을 잘랐을 때, 작은고모는 엄마를 잡아먹을 듯이 다그쳤어. 노인네 머리 하나 감기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느냐고. 네 몸 하나 편하자고 그 고운 머리칼을 이리 싹둑 잘랐느냐고. 할머니가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런 말은 못 했을 텐데.

"그럼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가서 머리도 감겨드리고 곱게 손질도 해드리세요."

엄마가 차갑게 말했지. 작은고모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꽁지 빠지게 도망쳤어. 엄마랑 나랑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어. 기억나, 할머니?

내가 머리를 자르던 날 할머니도 머리를 잘랐어. 할머니가 아프기 전에는 할머니가 늘 내 머리를 묶어주고 땋아 주었는데, 엄마는 할머니처럼 예쁘게 못 묶어. 늘 같은 모양으로 고무줄로 질끈 묶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칼이 주르르 흘러내리지. 귀밑에서 찰랑거리는 내 머리를 보고 할머니가 말했어.

"나도. 나도. 나도 꽃님이처럼 자를 테야."

"할머니, 다희. 나 다희잖아. 꽃님이 아니고."

"몰라. 몰라. 나도 꽃님이 저년처럼 예쁘게 잘라 줘."

할머니는 기억이 거꾸로 가는 병에 걸렸다고 아빠가 말했어. 할머니에게 나는 손녀 다희가 아니라 어릴 적 친구 꽃님이라고. 가까운 날의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 오래전 기억만 생생하게 남았다고.

할머니 방은 무척 쓸쓸해. 할머니 옷이랑 이불이랑 모두 태워버렸거든. 남은 건 할머니랑 같이 베던 커다란 베개뿐이야.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울며 매달렸어. 참 이상해. 태워버린 건 옷이랑 이불뿐인데, 옷장도 텔레비전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할머니가 없는 방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아.

커다란 옷장 안에는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사각사각 소리가 나던 모시 적삼이랑 소매에 꽃으로 수놓은 누빔 두루마기도 이제 없어. 할머니가 수놓은 그 꽃들은 정말 예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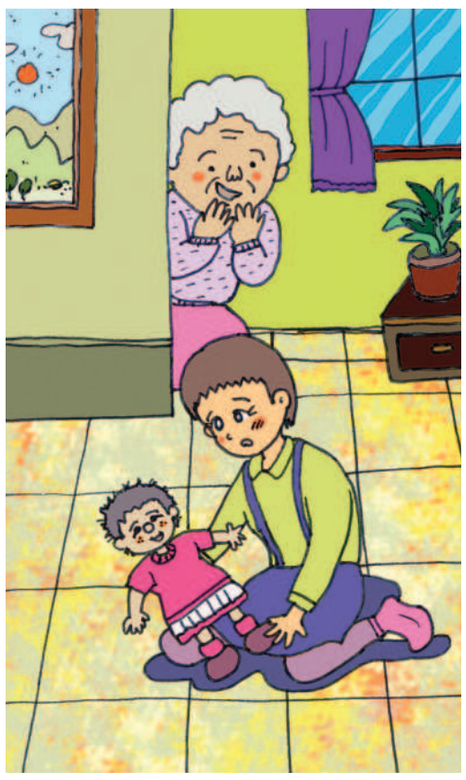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베개를 꺼내다가 깜짝 놀랐어. 베개 아래에 흉한 것이 놓여 있었어. 한참을 보고서야 그게 윌로우인지 알아차렸지. 윌로우를 안고 나는 소리를 질렀어.

"할머니이이이이!"

어른들이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어. 나는 울음을 터트렸어.

"할머니가 윌로우 머리를 잘라 버렸어!"

나는 어른들 뒤에 할머니가 움츠리고 숨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흘겼어.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허리까지 내려오던 윌로우의 아름다운 머리칼은 싹둑 잘려버렸어. 그렇게 윤기 나고 부드럽던 머리칼인데, 지금은 온통 하늘을 향해 뻗쳐 있어.

언제부턴가 윌로우가 보이지 않았어. 아마 할머니랑 내가 머리를 자른 날부터였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윌로우를 내어놓으라고 할머니를 다그치면 할머니는

"꽃분이는 내 거야. 울 아부지가 장에 갔다 사다 주신 거야."

그러다 그만 울어버리곤 했지. 다른 장난감들처럼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잘려버리다니.

"얘, 그깟 인형 하나 가지고 소란이니. 내가 하나 새로 사 줄게."

작은고모는 어쩜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저렇게 얄밉게 할까. 언젠가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지. 작은고모를 가졌을 때 할아버지가 토끼 고기를 구해다 줬는데, 그게 토끼가 아니라 여우 고기였던 모양이라고.

윌로우는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인형이 아니야. 윌로우는 내 친구야. 내가 아주 아기였을 때 아빠가 사주셨어. 그때부터 나는 윌로우랑 같이 잠자고, 같이 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어. 할머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윌로우는 원래 뚱뚱하고 좀 못생겼지.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입술은 퉁퉁해. 동글동글한 코 위에는 주근깨도 나 있고. 유일하게 예쁜 곳이라고는 머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윌로우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못난이 인형이 돼 버렸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할머니.

엄마가 손수건을 곱게 접어서 윌로우 머리 위에 두건처럼 씌워 주었어. 씩씩한 인디언 소녀 같던 윌로우는 이제 가여운 성냥팔이 소녀처럼 보여.

"이 인형은 너를 똑 닮았구나. 네 아버지는 어디서 이런 예쁜 것들을 사다 주시니?"

어린아이가 된 할머니는 늘 내 장난감을 부러워했어. 나는 할머니와 장난감을 나눠 쓰곤 했지. 할머니가 나를 자꾸 꽃님이라고 불러도, 난 여전히 할머니가 좋았어. 어쩌면 아이가 된 할머니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소꿉놀이를 해도, 훌라후프를 돌려도, 할머니랑 같이하면 뭐든 신이 나고 재미있었으니까. 막대 사탕을 먹다가 서로 바꿔 먹을 수도 있었지.

할머니는 꽃을 좋아했어. 옷 소매에 꽃으로 수를 놓고,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내 머리에 씌워주기도 했어. 마당에는 채송화, 해바라기, 분꽃 같은 꽃들이 계절마다 피었어.

"할머니는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해?"

그러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

"예쁘잖니. 이 세상에 꽃보다 예쁜 것은 꽃님이 너밖에 없단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엄마는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 차가운 땅속에 할머니를 묻고 왔는데, 나는 자꾸 어딘가에 할머니가 살아 있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등 뒤에서 나와 윌로우를 빼앗아 갈 것 같아. 이건 꽃분이라고, 윌로우가 아니라 꽃분이라고, 아버지가 장에 갔다 사다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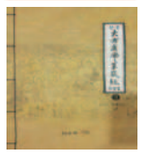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 는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대행 스님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일체 만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듯, 우리가 이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끼리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거든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됐을 때에 열 달 동안 그 모습들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조성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될 때에 처음부터 사람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흐늘흐늘하게 시작이 돼서, 올챙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 모습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下)의 생명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둘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없는 나날을 지나 오면서 그런 모습을 거쳐서 진화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의 내 모습,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봐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렇게 거쳐 온 그 중생들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좇아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 업식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량적인 육안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만 중생들이 모두 제가끔들 한 가지씩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뿔의 기능, 말은 발차기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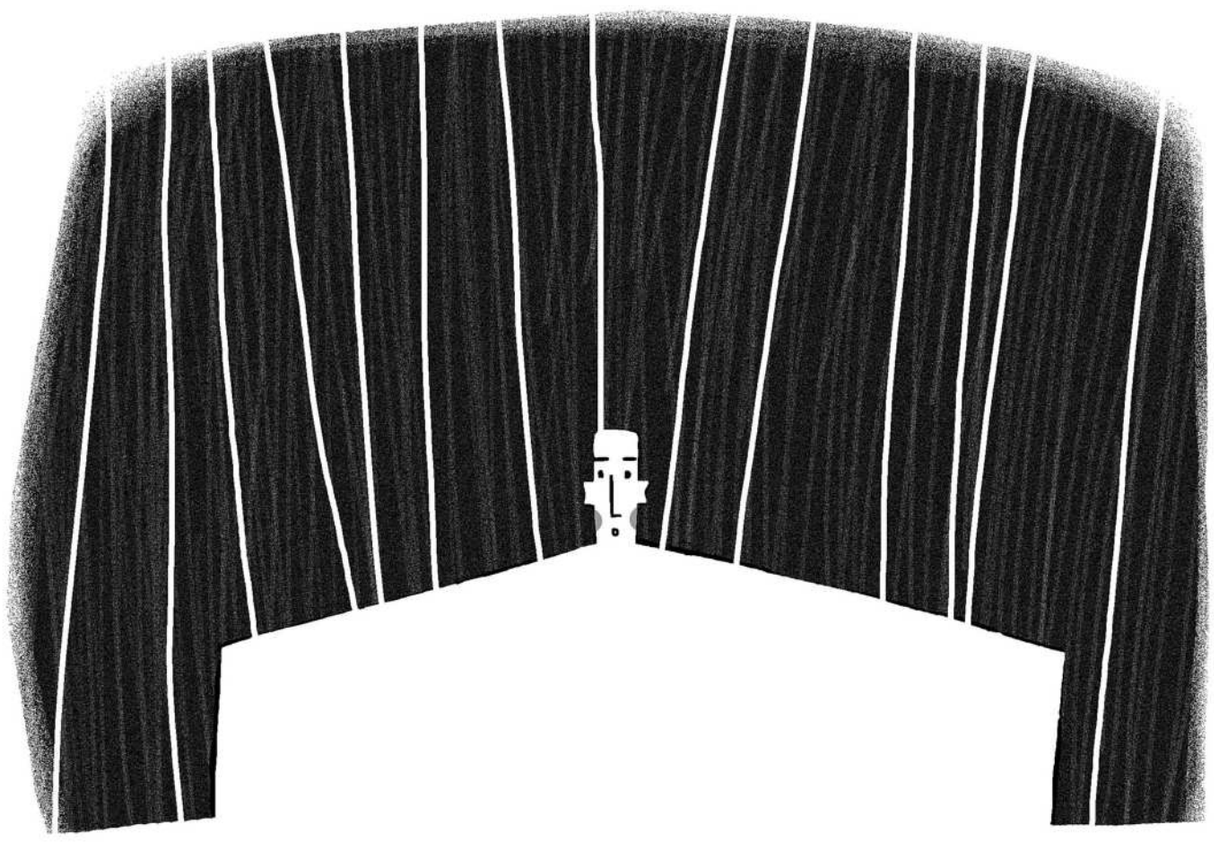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을 소유하듯, 밖에 있는 일체 만물들, 인간 이하의 모든 동물들도 역시 한 가지씩은 기능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촉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감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청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후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모두 한 가지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닥칠 때마다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또 만법으로써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다 내 마음으로 그쪽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면 그쪽에서 그대로 응하고 돌아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내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러 가자 하면 도둑질을 하러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전력은 '나쁜 짓을 해라, 좋은 짓을 해라' 하고 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의식도 내 마음에 따라서 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악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업으로도 쓰고, 악업과 선업이 한데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바로 응신(應身)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신!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응신으로 화(化)해야 응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이지, 무슨 말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나 모든 걸 대응하고 작용하고 중용을 할 줄 알고,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권을 갖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제일 빠른 게 그거니까. 만약에 어저께 남을 속이고 따귀를 때렸다면 결국은 오늘 반드시 그 따귀가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한 시간 전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사들이 깨친 것은 바로 과거생 · 현재생 · 미래생을 다 한꺼번에…. 그것이 과거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현재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미래생만 있어도 아니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목석일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생과 현재생, 미래생 바로 삼세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면서, 삼생(三生)의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라고 한다면,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죠.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는 말로 전달을 하고, 행으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피리란 말이에요, 피리! 우리가 한생각을 깨쳤다 하면, '여여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소를 타고 여여하게 피리를 불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입니다.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 중생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 한생각 돌리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고 보현신입니다. 마음의 도리,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잘들 들으시라고요. 또 노인네는 죽어서 요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올 테니까 들어야 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로만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테니까 들어야 하고…, 그러기에 얘기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오직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구상해서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체질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는 까닭에 아기를 잉태할 때 어떠한 형상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원한다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놓고 좀 밝게 태어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부부가 어디다 세워 놔도 괜찮을 정도라면 그대로 두고요. 부부지간에 '나는 간판이 좀 안됐어!' 이랬을 때는 2세를 가차없이 좀 인물을 좋게 해서 태어나게 하면 어떠냐구요. 이게 마음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의 발전을 이루는 거지, 생활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는

☞ 26면으로 계속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인 모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기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빕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제9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안성시 영평사 중앙불교대학원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특강
홍고(새벽에 치는 큰 북)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 연 락 처 : 회 장(관희) 010-8290-6623
강 주(문곡) 010-3727-0870
총 무(진효) 010-5306-0856

모두 '할 수 있어'지 '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 25면에서 계속

영혼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부딪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이 발전해야 바로 진화가 되고, 진화의 능력으로써 바로 창조력을 이끌어서 창조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과학적이게 되는 거죠. 과학도 물질과학이 아니라 심성과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마음씨를 생각을 해서, 잉태를 해서 한 아이를 갖다가 착 내놨을 때, 어디다 세워 놔도 모순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러고도 일반 과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심성과학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고, 먹어 보지 않고, 잘라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는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 봐야 알죠.

오늘도 스님네들이 잣을 요렇게 소나무 이파리에다 잘 꿰어서 가져왔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전자에 산에서 살 때, 잣을 따서 깔 때는 손에 그 찐득찐득한 걸 다 묻히면서, 요만큼만 까도 그것이 너무나 어렵게 한 거라 참 귀해서 그것도 큰스님네들 입에나 들어갔지, 그 밑의 사람들은 맛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 한 알갱이를 입에 넣으려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넣었다 이 소립니다. 그거 하나만 볼 때도 그런데…, 요새 살림살이하는 분들은 얼마나 흔하게 씁니까? 잣뿐이 아닙니다. 버섯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도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서 조금씩 해서 양념으로 쓰던 그때, 입에나 넣었습니까, 어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 보지 않고 자기가 겪어 보지 않고는 아까운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돈도, 몸소 어렵게 번 돈은 아주 마디게, 쓸 때만 딱딱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냥 흔전만전히 들어오는 돈이라면 흔전만전히 또 나가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기가 더 어렵다고 보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살이를, 삼세를 꿰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인간이 다 됐느냐 한다면, 허! '다 되지 못했다' 할 수도 없고, '다 됐다'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계발이 되면서 자꾸 달라지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자에 모자랐던 것을 채울 수도 있고, 전자엔 잘했는데 타락이 돼서 그 능력이 그냥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자유고 악업을 쌓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악업을 쌓으면 대대로 악업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선업을 쌓으면 대대로 선업이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어떤 생명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연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이게 돼 있지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물은 나물대로 놓여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그것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 놓기도 하고, 깡통은 깡통대로 놓여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놓여 있고…. 이거를 가만히,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상만사를 한번 둘러보면, 인간의 차원도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살라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하되 왜 선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악으로 끌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냥 소 타고 피리 불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고 道입니다.
그런데 그 道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잘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움죽거려 준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이 업식이 바꾸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의 이 모든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바꾸어집니다. 화한다는 건 바꾸어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꾸어진다는 얘깁니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모두 거기 놔라 하는 것은 내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과거에 업을 지은 대로 자꾸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과거의 모든 거를 네가 한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어'지 '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그럭한다면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생각 하나하나가,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죽고 사는 것도 없어집니다. 육신이야 죽고 산다 하지만 마음이야 어찌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움죽거려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마음으로부터 일체 만법이 다 형성되고 돌아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가 깨쳐서 한 마음이라면 일체제불 마음도 거기에 한꺼번에 다 속해 있고, 일체 중생, 일체 우주 만물 만생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움죽거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 한꺼번에 움죽거리면서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촉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또는 후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하는 모든 거를 한마음으로 모두 굴릴 수 있다, 자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모든 문제들도, 그 영령들도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면 싸움이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바로 둘이 아니게 놓는다면, 내가 된다면, 둘이 돼야 액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럴 텐데, 하나가 돼 버리니까 혼란이 없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의 업식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도중에 그냥 그 유전으로 인해 영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살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정상인데, 한 몸에 두 사람의 마음이 사니까, 세 사람 마음도 살고, 네 사람 마음도 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금방 딴소리 하고, 금방 딴소리 하고 이러니 그게 이름해서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우리가 정신계의 모든 것을 안다면 100%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계의 50%, 반을 모르기 때문에, 반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다면 그냥 걸림 없이 원을 돌아야 할 텐데, 반밖에 돌 줄 모르니까 반이 막힌 거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마음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거리니까, 그 반에서만 뱅글뱅글 도니까 걸릴 수밖에 없죠. 삼세를 그냥 돌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고, 병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요? 어떤 나쁜 병이라고 병원에서 말한다 해도, 어떤 핑계든지 그런 병이 들어서 오는 원인은 유전성이 될 수도 있고 영계성이 될 수도 있고, 업보성이 될 수도 있고 세균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해결치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를 한데 합쳐서 우리가 100% 응용을 한다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가만히 보면 "참 애로가 많은데 주인공을 찾아도 아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지…." 이러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힘이 있든 없든 수억겁 전에서부터 자기를 끌고 왔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님만 연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스님이니까 스님은 자동적으로 벌써 주인공에 첨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이 다섯이 있다고 합시다. 도둑질하는 놈과 망보는 놈들이 다 도둑놈이지, 어떻게 도둑놈이 아닙니까? 지키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도둑놈이죠? 도둑질을 시키는 놈도 도둑놈이죠? 다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나도 똑같은 놈이란 얘깁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놈이라 이 소립니다. 똑같은 놈이라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허탕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신으로 화해서 거기에 첨보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미리부터 나는 힘이 없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묘법인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일거일동,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그 살아온 습성 때문에, 살아온 관습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그만 녹아 나는 거죠. '토정비결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더라.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또 걸린 거죠. 점을 치니까 또 이런 게 이런 게 걸리지요? 또 누가 지난 일을 잘 맞추는데, 삼재가 들면 모두 그냥 언짢고 망하고 그런다더라 하면 여기에 또 걸리죠. 아예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를 가도 방향을 봐서 가야 된다더라. 이것저것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거일동이 다 그래요. 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살 생각은 못 하고요. 아주 그냥 일거일동…. 머리는 요만한데다가 그것까지도 전부 넣고 살아가려니 그릇이 꽉 차서, 좋은 것이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불교라는 것이 목탁만 두들기는 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건 생명을 뜻하고 '교(敎)'라는 건 서로 전달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가 불교란 얘깁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대로 불교고 종교란 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라.' 해서 인간으로 진화돼서 태어났고,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실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소 타고 피리 불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고 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다 두고 어디 가서 도를 찾습니까? 역대 조사들한테서요? 역대 경설로 부처를 찾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일 처음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웠더니 인간이 돼 놓고 보니까 살림살이하기가 또 어렵더라. 살림살이를 하려니까 도구를 만들 줄 몰라서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을 했다. 막대기를 사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돌을 갈아서 쓰기도 하고, 뼈로도 그렇게 쓰고…. 그러다 구리가 더 단단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안되겠으니까 또 철을 쓰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마음의 진화까지 바라게 된 겁니다, 마음의 진화! 이 모습은 일단 사람으로 진화가 됐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진화가 돼야 발전이 되고 창조력이 생기고 만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대권(大權)을 얻지 않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



오경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 연구 교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우선 일본은 아베 신조(安培晋三)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할 것이며, 기시다 외상은 약 10억 엔(한국 돈으로 약 96억 6,980만 원 가량) 정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가 일본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公館)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날인 12월 29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정신대대책협의회에 피해자할머니들을 찾아갔을 때다.

이용수 할머니가 임 차관에게 "왜 우리 두 번 죽이러 왔어요? 당신이 제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가슴이 아닌 뼈에 새겨야 할 말들이다.

피해자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고 국격(國格)의 수준에서 생각해야할 말이다. 이 대목에서부터 한국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할머니들은 한국정부가 협상타결 이전에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정식사과, 그리고 법적 배상이 이 오랜 진실을 위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을 풀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녀상은 국민들이 한푼 한푼 모아서 조성한 '역사의 표시'라면서 이전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1월 30일 요미우리 신문은 "소녀상 이전이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외무장관회담에 앞서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에 집착을 보인 이유는 소녀상들이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줘 국제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도 없었고, 일본 외무상이 먼저 꺼내지도 않은 말을 우리 외교부 장관이 먼저 꺼냈다고 한 것은 사전에 거론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기술과 협상의 순서를 다시 학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들은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무지함과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정말로 이 정부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1995년 8월 15일 종전 50주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과하고 강한 반성을 표명했던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보다도 못하지 않은가. 그는 이번 협상에서 아베총리가 직접 한·일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총리 명의의 사죄문을 외무상에게 대독시킨 뒤 자기는 나중에 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죄한 점을 꾸짖었다고 한다.

지난 1월 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직접 만들고, 일본이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지원금 10억 엔(약 97억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상징적 선언이기도 하다.

일본은 2월 15일 열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아마 한동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는 반복되는 역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발언대

현응·수불 스님의 법석을 기대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생의 길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이나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다수의 성자들이 내 주변과 사회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위대한 선지식에 대한 기대는 희망일 뿐이다.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길이 자정이고 혁신이며 강도 높은 정진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94년도 개혁불사 시 종단이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만 불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선지식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누차 주장한 바 있다.

불자들은 일상에서 자비구현 또는 구세대비라는 말을 쉽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 문구들의 의미에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깊이와 무게감이 내재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흔히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여긴다. 지혜와 더불어서 자비의 완성자는 부처님이시며, 범부는 신심과 수행, 깨달음에 대한 정도에 따라 자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수많은 개개인들의 삶이 얽히고설켜 세상사를 이룬다. 자비는 그러한 인간들의 세상사 속에서 실천되고 구현된다. 그런데 여기 금강경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하이고(何以故) 수보리(須菩提) 여아석위가리왕(如我昔爲歌利王) 할절신체(割截身體) 아어이시(我於爾時) 무아상(無我相) 무인상(無人相) 무중생상(無衆生相) 무수자상(無壽者相)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필자는 위에 인용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한다. 구도자라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토록 잔인한 일이 발생하게 된 현상의 배경과 거대 사회구조 모두에까지 당당히 맞서서 세상을 제도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구도자인 너(나) 자신부터 '상(相)'을 버리고 스스로 대 자유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평소 경험하지 못하였던 극악한 경계에 맞닥뜨렸을 때 현응 스님의 견해처럼 과연 불교를 "잘 이해"하는 선에서 흔들림 없는 무량한 자비행이 가능할까, 그러한 경계에서 구세대비자로서의 손색 없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수불 스님은 1월 17일자 〈불교신문〉을 통해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논쟁이면 언제든지 환영지만 비공식적인 자리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종단의 고위급 교역직을 맡고 계시다. 교육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응 스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하기에 두 분의 토론 자리는 수불 스님이나 현응 스님, 당사자 두 분 가운데 아무라도 한 분이 나서서 마련한다고 토론의 격이 떨어진다거나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것을 두고 '비공식적'이라고 폄훼할 불자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하여간 수불 스님께서 '종단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조계종 총무원이나 교육원이 주최하고 종단 산하기구가 주관하여 여러 기관, 단체의 협찬 속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여법성이 구족하고도 남는다.

일반 불자도 아닌 출가자가 진리를 논하고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공식 비공식을 차별하고 장소와 격식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와 격식은 어쩌면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종단의 주체적이고 빠른 주도를 기대한다. 시간을 끌거나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법을 논하는 자리보다 더 자비롭고 자색광명이 방광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매순간 삶의 고통이 연속인 우리 사회와, 크나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불교 전반에 무엇이 지혜와 자비의 완성에 이르는 길인지, 걸출한 두 분 스님께서 대좌해서 대중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社說

'미생' 비상개혁 재조명 통해 '완생'으로

1983년 한국불교계에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 본사 주지 임명을 두고 스님들 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비화됐다.

1983년 9월 조계사 승려대회 후 소장 스님들과 청년재가운동가들은 당시 종정인 성철 스님 교시를 받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비상종단을 꾸렸다. 우리가 흔히 아는 83년 종단비상조치다. 당시 비상종단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파격적인 여러 종책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본사 폐지 및 도심지에 교구 신설, 상·하원 입법기관 구성 및 재가자 입회, 사찰재산관리 공영화, 재가 전법사 제도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 개혁은 당시에 대중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이내 사라졌다. 33년이 지난 지금, 비상종단 개혁을 이끈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이 당시 개혁안에 대한 재조명에 팔을 걷어 부쳤다. 단체의 이름은 비상종단개혁종책연구모임이라 붙였다. 이 모임은 2월 2일 서울 조계사 인근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종책 재조명사업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밝혔다. 비상종단 1년간의 활동은 결국 미완의 개혁이 됐지만 현재와 94년 개혁에 분명 일정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시에 발의된 정책은 현재에도 유용한 것들이 많은 만큼 올바로 재조명을 한다면 불교 쇄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문으로 추대된 성문 스님은 "당시 전법사 제도를 두어 스님을 보좌하는가 하면 시대 흐름에 맞춰 불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선보였다. 이때 입안한 여러 종책이 정착됐다면 현재 한국불교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짧게 끝난 개혁 움직임이었지만 이후 불교 개혁의 청사진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늦은만큼 제대로 재조명돼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

'IJBTC' 동국대 이관서 상생을 보다

국내 유일한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의 발행처가 동국대로 이관된다. 그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발행처였지만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크게 마음을 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02년 창립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영문 불교학술지를 육성하기 위해 〈IJBTC〉를 매년 2회씩 발간해왔다. 2002년 2월 창간된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로 현재까지 25집이 발간됐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적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매회 300부를 발행해 해외 학술기관과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며, 하버드대, 예일대, 콜럼비아대 등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

그간 〈IJBTC〉 발행에는 송석구 학회장(동국대 前 총장)과 최근 정년퇴임한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의 역할이 컸다. 누구 하나 지원하지 않는 영문학술지를 한국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해 화주를 하고 사재를 출연했으며, 시간을 쪼개 원고 섭외, 편집에 매달렸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발행 학술지 〈IJBTC〉의 발행처를 동국대로 이관한 것은 재정 안정화와 함께 전문 편집인 양성, 정기적인 국제 학술대회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를 받아들인 동국대도 〈IJBTC〉를 A&HCI 등재하는 등 국제적 명성의 유수의 영문 불교 학술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자신이 애착을 가졌던 것을 남에게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내린 통 큰 결정은 상생을 위한 것이다. 〈IJBTC〉의 발전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풀이 살풀이 꿈해몽 대사전
화제의 책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일어 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로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전국 4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 (소광호)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 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